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
박혜준(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73-01
연구보고 2021-26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6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9-1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73-0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저자		권미경, 김지현, 김영민, 박혜준, 서혜민, 강향미, 송지언	
주관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현 연구위원 김영민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혜준 교수	서혜민 박사과정생 강향미 박사과정생 송지언 석사과정생
	SBS	유영석 부장	김태현 PD 김윤희 작가 강보경 작가



본 과제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체감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저출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 현황을 진단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적 요소들을 줄여가 고자 하는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화 조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와 협력하여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방안 연구’를 3개년의 협동연구로 기획하였다.

1차년도에는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진단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양육자의 일터인 직장에서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3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육아하는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가 존중받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 함께 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결과를 담아 13시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한 SBS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연구진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로 활동하고 설문과 면담에 응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문화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가능한지에 대해 부모 열 명 중 아홉 명이 그렇다고 동의하였고 또한 부모들은 사회 안에서 양육자들이 환대 받고 싶다고 하였다. ‘환대(歡待),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사회 전체가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의 조성이 그 지향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적 개선을 도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아동과 육아하는 가족을 존중

하고 환대하는 육아존중문화가 사회 안에 안착되어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2
II. 연구 배경	37
1. 육아문화 관련 용어 정의	39
2. 육아문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0
3. 육아문화 관련 동향	48
4. 육아 관련 지원체계 및 활동	53
5.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58
III.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사례	63
1. 국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65
2. 해외 육아문화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동향	85
3. 소결	102
IV.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 질적조사	105
1.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107
2.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115
3.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123
4. 소결	127
V.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I): 양적조사	131
1.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133

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평가	182
3.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199
4. 소결	219
 VI.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존중문화 조성 시도	223
1.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노력	225
2. SBS 특집방송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238
3. 소결	245
 VII.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247
1.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249
2.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256
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263
 참고문헌	269
Abstract	285
부록	289
부록 1. 설문조사지	289
부록 2. 심층면담 조사지	303
부록 3. 초점집단 면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305



표 목차

〈표 I-3-1〉 초점집단면담 개요	26
〈표 I-3-2〉 초점집단면담 연구참여자 구성	27
〈표 I-3-3〉 초점집단면담 응답자 특성	28
〈표 I-3-4〉 설문조사 개요	29
〈표 I-3-5〉 조사대상 자녀 연령별, 부모별 임의 할당	30
〈표 I-3-6〉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 (2021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	30
〈표 I-3-7〉 조사대상 비례할당 결과	30
〈표 I-3-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1
〈표 I-3-9〉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33
〈표 II-2-1〉 1993~2018년까지 아버지의 양육태도관련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 ..	42
〈표 II-2-2〉 아버지 참여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43
〈표 II-2-3〉 아버지의 인식 및 특성이 부모 양육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44
〈표 II-2-4〉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45
〈표 II-2-5〉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연구	46
〈표 II-2-6〉 육아문화 관련 연구	47
〈표 II-5-1〉 100인의 아바단 신청과정	59
〈표 II-5-2〉 100인의 아바단 주간 미션예시	60
〈표 III-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개요	67
〈표 III-1-2〉 아이조아 아바교실 개요	69
〈표 III-1-3〉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70
〈표 III-1-4〉 돌봄 공동체 사례집 소개	73
〈표 III-1-5〉 2021년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운영	76
〈표 III-1-6〉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81
〈표 III-2-1〉 미국의 가족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특징	96
〈표 V-1-1〉 자녀,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와 인식	134
〈표 V-1-2〉 자녀의 의미와 인식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	134
〈표 V-1-3〉 자녀의 의미와 인식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	135
〈표 V-1-4〉 자녀의 의미와 인식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	136

〈표 V-1-5〉 자녀의 의미와 인식-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7
〈표 V-1-6〉 자녀의 의미와 인식_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	138
〈표 V-1-7〉 자녀의 의미와 인식_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39
〈표 V-1-8〉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140
〈표 V-1-9〉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	141
〈표 V-1-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141
〈표 V-1-11〉 부부 간 역할에의 인식(전체)	143
〈표 V-1-12〉 부부 간 역할_가사일, 육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	143
〈표 V-1-13〉 부부 간 역할_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144
〈표 V-1-14〉 부부 간 역할_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144
〈표 V-1-15〉 부부 간 역할_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 보다 아내에게 더 많다	145
〈표 V-1-16〉 부부 간 역할_여자는 양육과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한다	146
〈표 V-1-17〉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전체)	147
〈표 V-1-18〉 주중 동안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_아버지	148
〈표 V-1-19〉 주말 동안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_아버지	149
〈표 V-1-20〉 부부 간 양육분담 만족도	150
〈표 V-1-21〉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내용(전체)	151
〈표 V-1-22〉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기본생활돌봄	151
〈표 V-1-23〉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가사활동	152
〈표 V-1-24〉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놀이	154
〈표 V-1-25〉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훈육	154
〈표 V-1-26〉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학습지원	155
〈표 V-1-27〉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등하원	156
〈표 V-1-28〉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 전체	157
〈표 V-1-29〉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이전)_물품구매	158
〈표 V-1-30〉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생활지도	159

<표 V-1-31>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돌봄(목욕 등) ···	160
<표 V-1-32>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놀이 ······	161
<표 V-1-33>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전체) ·····················	162
<표 V-1-34>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	162
<표 V-1-35>	가정 내 양육 환경_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63
<표 V-1-36>	가정 내 양육 환경_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	164
<표 V-1-37>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	165
<표 V-1-38>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	166
<표 V-1-39>	가정 내 양육 환경_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	167
<표 V-1-40>	가정 내 양육 환경_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	168
<표 V-1-41>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168
<표 V-1-42>	가정 내 양육 환경_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	169
<표 V-1-43>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	170
<표 V-1-44>	가정 내 양육 환경_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	170
<표 V-1-45>	가정 내 육아문화 만족도 ·······························	171
<표 V-1-46>	자녀 양육 관련 갈등 경험 ·······························	173
<표 V-1-47>	자녀 양육 갈등 원인 ·····································	176
<표 V-1-48>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	177
<표 V-1-49>	육아 현상 관련 인식(전체) ·······························	178
<표 V-1-50>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	178
<표 V-1-51>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한다 ···········	179
<표 V-1-52>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180

〈표 V-1-53〉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181
〈표 V-1-54〉 자녀양육 관련 교육/활동 경험	182
〈표 V-2-1〉 지역사회 내 육아환경 평가(전체)	183
〈표 V-2-2〉 지역사회 육아 환경_아이다움 인정	184
〈표 V-2-3〉 지역사회 육아 환경_안전한 놀이공간 여부	184
〈표 V-2-4〉 지역사회 육아 환경_긴급돌봄 여부	185
〈표 V-2-5〉 지역사회 육아 환경_양육정보 제공	186
〈표 V-2-6〉 지역사회 육아 환경_소통 공간 여부	186
〈표 V-2-7〉 지역사회 육아 환경_서비스 인프라 여부	187
〈표 V-2-8〉 지역사회 육아 환경_정부지원 서비스 여부	188
〈표 V-2-9〉 지역사회 육아 문화 체감(전체)	188
〈표 V-2-10〉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대중교통 양보	189
〈표 V-2-11〉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사랑과 칭찬 표현	189
〈표 V-2-12〉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아이 배려	190
〈표 V-2-13〉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양육지원시설 이용 편리성	190
〈표 V-2-14〉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노키즈존 출입 제한	191
〈표 V-2-15〉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놀이터 소음 갈등	191
〈표 V-2-16〉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층간 소음 갈등	192
〈표 V-2-17〉 동네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193
〈표 V-2-18〉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1순위/1+2+3순위)	195
〈표 V-2-19〉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1순위/1+2+3순위)	195
〈표 V-2-20〉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196
〈표 V-2-21〉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197
〈표 V-2-22〉 향후 육아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198
〈표 V-3-1〉 자녀 양육 만족도(전체)	200
〈표 V-3-2〉 양육 만족도_아이 기르는 일	201
〈표 V-3-3〉 양육 만족도_부모로서 본인의 역할	201
〈표 V-3-4〉 양육 만족도_부모로서 배우자 역할	202
〈표 V-3-5〉 양육 만족도_자녀와의 관계	203
〈표 V-3-6〉 양육 만족도_정부의 육아지원	203
〈표 V-3-7〉 최근 10년간 육아문화 육아 문화 변화	204

〈표 V-3-8〉 육아문화가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중복응답)	207
〈표 V-3-9〉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한 원인(중복응답)	208
〈표 V-3-10〉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	209
〈표 V-3-11〉 가정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	211
〈표 V-3-1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	212
〈표 V-3-13〉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중복응답)	214
〈표 V-3-14〉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216
〈표 V-3-15〉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이용하는 SNS	218
〈표 VI-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4차 워크숍 진행순서	226
〈표 VI-1-2〉 가정 내 육아문화 체크리스트	226
〈표 VI-1-3〉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체크리스트	228
〈표 VI-1-4〉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 조별 브레인스토밍	230
〈표 VI-1-5〉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공통 실천 과제	233
〈표 VI-1-6〉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가정 관련)	234
〈표 VI-1-7〉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 관련) ..	236
〈표 VI-2-1〉 SBS ‘희망 TV’,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편성표 ..	240
〈표 VII-1-1〉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249
〈표 VII-2-1〉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256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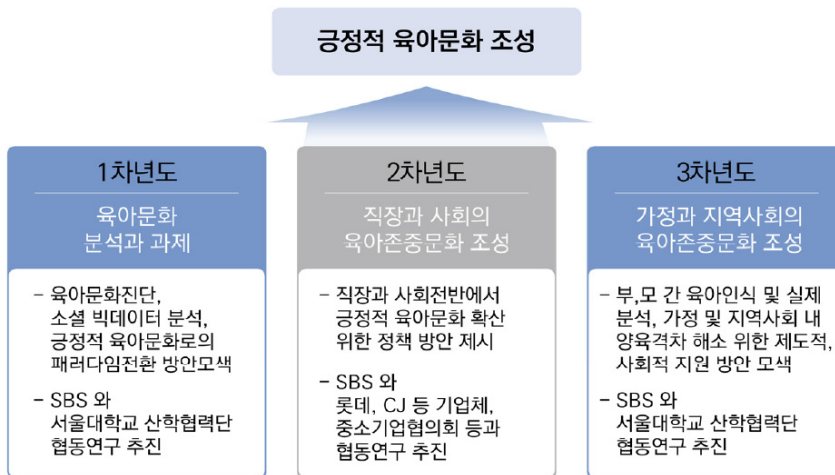
[그림 I-1-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추진 계획	20
[그림 I-3-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협동 추진 방법	22
[그림 I-3-2]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차년도 연구 추진 개요 ..	24
[그림 I-3-3]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차년도 협동 추진 체계 ..	36
[그림 II-3-1] 육아문화 개선 캠페인 안내	50
[그림 II-4-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	54
[그림 II-4-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공동체 사업	55
[그림 II-4-3]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특성화 사업	58
[그림 II-5-1]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61
[그림 II-5-2] 100인의 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일부	61
[그림 III-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모형	67
[그림 III-2-1] 독일의 육아친화적 놀이터	88
[그림 III-2-2] 독일 내 지역별 다세대교류센터 분포	89
[그림 III-2-3] 다세대교류센터 내 요리 수업	89
[그림 III-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91
[그림 III-2-5] Baluba 열린 음악유치원 포스터와 스케줄	93
[그림 III-2-6] Kløverveien 어린이공원	94
[그림 III-2-7] 미국 St. Ann's Center	98
[그림 III-2-8] Ikumen Project 포스터	100
[그림 V-1-1] 부부 자녀 양육 부담정도(전체)	147
[그림 V-1-2] 자녀양육 관련 교육/활동 경험	182
[그림 V-3-1] 자녀 양육 만족도	200
[그림 V-3-2] 최근 10년간 육아문화 변화	205
[그림 VI-1-1]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결과	227
[그림 VI-1-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결과	229
[그림 VI-1-3]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 투표 결과	231
[그림 VI-1-4]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캠페인곡	232
[그림 VI-1-5]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4차 워크숍 결과물	233

[그림 VI-2-1] SBS ‘희망 TV’,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방송 ...	241
[그림 VI-2-2] 검색어 ‘육아’ 기사 건수 변화 추이	242
[그림 VI-2-3] 구글트렌드 ‘육아’ 관심도 변화 추이	243
[그림 VI-2-4] 구글트렌드 ‘아동’ 관심도 변화 추이	244
[그림 VI-2-5] 네이버터이터랩 ‘아동’ 관심도 변화 추이	244
[그림 VII-3-1]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	267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과제의 출발은 현재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됨.
-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또한, 문화 조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를 포함하고, 각 년도별 협동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3개년의 협동연구임.



- 3차년도는 연구의 초점을 ‘육아기 가정’에 두고,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평등 요소,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의 인식과 부-모 공동 책임의 육아 문화, 육아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구 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동향과 육아지원 현황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관련 문헌 및 육아지원 현황 검토 선행연구 육아문화 동향 육아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 문헌연구
	-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 - 지역사회 육아지원 연구 - 육아문화 연구 - 가정 내 육아문화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 육아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사례 분석	국내 사례 조사 해외 사례 조사	- 문헌연구 - 현장조사
	육아문화 및 육아지원 사업 현황 육아문화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동향	
요약 및 시사점 도출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과 개선 요구: 질적조사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층 면담	- 초점집단 면담 조사
	-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과 개선 요구: 양적조사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 통계 분석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 시도	육아문화 워크숍 캠페인 추진	- 토론회 - SNS 활동
	3차년도 4차 워크숍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육아문화 확산 활동 언론 보도 SBS 희망TV 프로그램 방안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정책화 방향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양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육아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평등한 양육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육아존중문화 확산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2. 연구 배경

□ 용어의 정의

- ‘육아문화(育兒文化)’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
-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육아하는 행위와 육아의 대상인 아동과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는 문화를 의미함.
- 긍정적 육아문화(肯定的 育兒文化)는 ‘부정적 육아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우리사회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의미함.

□ 육아문화 동향

- 우리사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경험되는 육아문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그 동향을 정리함.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는 아버지 육아휴직의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제도 사용에의 격차가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이 확대되며,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요약됨.
- 지역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하여 이웃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 육아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며,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 등이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함.

□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바단’은 아빠의 양육지원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버지들의 모임으로 육아관련 문화 변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는 육아문화 개선은 정책 대상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3.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사례

가. 국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 국내 사례로 육아지원의 전달체계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육아문화 조성사례를 정리하고, 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함.
- 가정 내 육아문화에 변화를 주기 위한 요소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실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한 가정 내에 자녀가 많지 않고,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양육의 어려움과 장점을 나누고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 있기 위해 그 공간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의 공동육아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사업,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족 운동회’ 등이 그 사례임.
- 지역사회의 육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맞춤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식조사’ 지표를 이용해 육아에의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했던 것처럼, 각 지역에서의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양육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간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임.

나. 국외 육아문화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동향

- 국외사례로는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에서의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 제도와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와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봄.
- 독일은 과거 가족주의 풍토가 강한 사회였으나, 여성 및 어머니 중심이었던 돌봄의 형태가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됨.
 - 2007년 부모수당(Elterngeld)의 도입을 기점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 일·가정 균형을 제고하는 가족정책으로 개선함.

- 조부모 세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육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독일의 ‘다세대교류센터(Mehrgenerationenhaus)’의 운영 사례를 살펴봄.
- 노르웨이 수준의 아버지할당제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가 아플 때 최대 14일의 유급 결근을 허용하는 ‘Sick Child Days’와 같은 제도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미국 사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의 확대라는 조세 제도를 통한 근로가구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부분으로 보임.
- 일본은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캠페인과 육아하는 아버지를 ikumen이라는 우리말로 ‘육아맨’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늘고 있음.
- 사례로 선정된 국가들은 성평등한 가정 내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음.
- 국외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병행되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함을 시사함.

4.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 질적조사

-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 48명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 지역사회에서 체감한 육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요구 등에 대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가.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 가정 내 육아 분담은 부모의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로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육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부부의 소통과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가정 내 역할 분담은 부모 개인의 특성, 성향, 특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춰 직장 및 개인의 일과를 조율함.
-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주말에 도드라졌는데, 평일 육아 참여가 부족한 아버지의 경우 주말에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배우자가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시기도 함.
- 부모들은 육아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임을 깨달음으로써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현황

- 부모들은 자녀 출산 전부터 실제 육아를 하는 시기까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임.
 - 특히 재정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도 장난감 대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 도서관 이용 등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평가함.
-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점,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자녀를 외부로 데리고 나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아쉬움을 표함.
- 부모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지역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넘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녀 양육을 통해 확장된 지역사회를 경험함.
 - 오프라인으로 형성하게 된 네트워크는 주로 회사 동료, 친구, 조리원 동기, 자녀가 속한 기관의 학부모들로 구성되며, 온라인 네트워크는 맘카페, 온라인 거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안에서 형성함.
-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함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동네 이웃이지만, 오늘날의 사회의 의미는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함.

다.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 부모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함.
- 지역사회 내 공간과 장소가 육아 친화적으로 개선되길 제안함.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었으면 하였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돌봄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채울 수 있길 제안함.
- 여전히 육아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 대해 아쉬워하며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5.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I): 양적조사

-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 대상 설문을 실시함.
 - 가정의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육아, 부부역할과 관련한 인식, 자녀양육 분담 및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양육 관련 갈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함.

가.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가치와 자녀가 주는 의미에 대해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함.
 - 40대와 50대에서 20~30대에 비해 또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지님.
- 가정 내 부부 간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구분을 두는 보수적 경향이 40대와 50대에서 20~30대에 비해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음.
- 자녀양육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주중에는 어머니의 양육 분담비율이 70.9%, 아버지는 29.1%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이 증가하여 어머니는 57.8%, 아버지는 42.2%로 조사됨.
 - 이러한 부부의 양육 분담에 대해 만족 정도는 평균 3.4점이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2%임.

- 가정 내 양육환경의 진단을 위해 양육에 대한 가치 인정, 공평한 양육 분담에 대한 인식,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가족 내 지지,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양육공간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인식은 높으나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침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가정 내 형성된 육아문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3%이며,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남.
-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빈도는 높지 않았고, 갈등의 원인은 자녀의 훈육과 부부간 양육 역할의 분담이 대부분임.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어려움은 연령별 차이를 보여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4.6%가 가장 높았음.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가족이 함께 참여가 가능한 활동과 교육이 설계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육아용품의 나눔과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관련 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시 접점이 어디인지를 시사함.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현황

- 우리 동네, 지역사회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인지 진단한 결과에서도 가치나 인식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양육 지원 서비스나 긴급 돌봄 제공,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임.
 -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지 못해 정책의 접근성 제고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좋은 양육환경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양육지원이 특화될 필요가 있음.
 - 양육환경 평가 문항 중 양육지원 서비스 인프라의 구성, 안전한 놀이 공간, 긴급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제공, 정부의 양육지원 서비스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양육자들이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으로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시설’임.

-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지역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와 ‘자녀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로 수렴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으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음.
- 양육자들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 받기 원하는 서비스로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아버지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함.

다.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양육자가 현재 양육과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양육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와 ‘아이를 기르는 일 자체’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최근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변화를 진단한 결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에 동의하나 육아지원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은 ‘양육자 개인과 가족’을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
-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이 부각됨.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에의 요구가 높았음.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양육하는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의견이 모아짐.
- 주로 사용하는 육아관련 검색과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인한 결과, 검색채널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네이버를 활용하며, 평소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SNS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순서로 조사됨.
 - 20~30대 양육자들은 인스타그램을, 40~50대의 경우는 블로그와 카카오톡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6.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존중문화 조성 시도

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노력

- 숙의토론 워크숍은 기존에 활동하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5인과 새롭게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4인¹⁾을 대상으로 4월에 4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수요자 참여형 숙의토론을 진행함.
- 워크숍에 참석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1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육아문화 조성 실천 활동을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수행함.
 - 우리 동네 예스키즈존 탐색, 홍보하기, 육아존중문화 SNS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 육아존중문화 이모티콘 문구 공모, 우리동네,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진단 후 개선이 필요한 점 각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작성하기, SNS '잘하고 있어!' 챌린지(양육자 칭찬하기) 참여,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콕놀이’ 공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약속챌린지 참여,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육아지원정책 칭찬하고 주변에 추천하기 등의 활동을 공통과제로 월별로 추진함.

나. SBS 특집방송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 ‘육아존중문화’는 본 3개년의 연구를 착수하면서 처음 개념화하여 사용한 단어로 육아하는 가족에게 힘을 주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3년의 연구를 통해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 개선을 도모하면서 협동기관인 SBS를 통해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다양하게 집중 조명하게 됨은 문화조성이라는 본 연구 목적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SBS ‘희망 TV’는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로 2021년 11월 19일, 20일 양일 간 13시간 동안 연속으로 방영하였고 연구진은 프로그램의 기획구성에 함께 참여하고 출연함.
 - ‘아이 기르는 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방송이 결을 같이 하기 위해 연구진은 방송제작진과 그동안 연구결과를 강의 및 토의 과정을 수차례 거침.

1) 참여자 정보 부록 참조

- SBS 희망TV 누적 실시간 시청자수는 2,479,790명으로 추산되며, 동영상 누적 조회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19일 ~ 2021년 11월 27일 기간 중 주간 ‘육아’ 기사건수는 SBS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방영된 19일과 20일이 속한 11월 21일 주간 ‘육아’ 기사건수가 313건으로 최근 10주 중에서 가장 높게(이전 9주 평균 233건) 나타남.

7.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가.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자녀 양육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 - 성평등한 가치관 지니나 실행은 미진 -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대의 요구 - 자녀 양육역량 강화에의 요구 - 육아 중심 소통 다양화(맘카페, 지역나눔)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보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역량 강화 기회 확대(아버지교육 등)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 가정 육아문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 평등한 양육참여 가능한 제도적 지원
아버지 양육 역량강화 기회 확대, ‘아빠들의 놀이터’ 운영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육아정보의 교환, 소통의 장 마련

나.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육아 관련 가치/인식은 높은 평가 -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활용 어려움 -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 - 농어촌지역 양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 -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 지역사회 육아문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 강화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및 정책 건의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정' 설치, 건강한 온라인 공동체 조성 방안
-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기업 중심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조성

다.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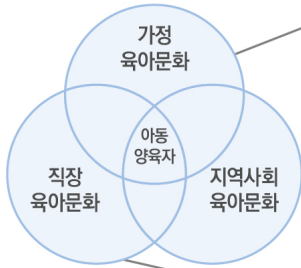
□ 자녀와 그 양육자의 환경으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족들이 환대 받는 육아존중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함.

- 양육자 환경의 육아친화성(育兒親和)증진
- 육아지원 제도의 수요자 적합성
- 육아문화 개선 노력과 홍보의 지속성

□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3개년의 협동연구로 추진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육아 존중문화 조성

-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 수요자 적합한 지원제도
- 지속적인 개선 노력



- 우리 사회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
- 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있으나 그 사용은 쉽지 않음
-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육아(育兒)'에 대해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 격차 존재

가정 육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양육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
- 성평등한 가치관 지니나 실행은 미진
- 자녀/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애의 요구
- 자녀 양육 역량 강화애의 요구
- 육아 중심 소통 다양화(맘카페, 지역나눔)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보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아버지교육 등)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육아 관련 가치/인식은 높은 평가
-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활용 어려움
-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애의 요구
- 농어촌지역 양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
-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직장 육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제도는 있지만 그 사용은 어려움
-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함
-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큼
- 직장 내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보이는 상황
- 직장 육아지원제도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이 좌우

개선방안

- 지원 제도 활성화
- 시간 지원의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집중
- 육아지원 직장 문화 조성
-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문화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가능한가? 본 과제의 출발은 현재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권미경, 문무경, 김영민, 2019).

3개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는 본 연구는 1차년도에는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를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 등의 방법으로 진단 분석하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다음의 세 가지 가정(假定)이 우리 문화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우리사회가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우리 일터에서는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 셋째,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양성 평등하지 못한 부분, 양육 격차가 존재한다(권미경 외, 2019, p.22).”

2차년도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설에 근거하여 부모의 주 생활터전인 직장에서의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육아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육아지원 관련 부분의 제도와 그 활용, 활용에의 저해요인 등을 고찰하고 기업규모나 근로자의 성별, 직무 등에 따른 불평등적 요소, 갈등 요소를 구체화하여 정책 변화를 포함하는 육아문화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3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가설에 근거하여 그 초점을 ‘육아기 가족’에 두고,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부-모간 역할 분담 및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지

역사회 안에서의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편견과 배려를 살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에서의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모의 역할 분담과 인식을 포함하는 가정 내 육아문화의 진단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유아기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정 내 양육 분담 현황을 한국아동패널(7차년도) 데이터²⁾로 재분석한 연구(최윤경, 박은정, 김보미, 우석진, 2020)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돌봄 시 부모의 양육 분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 참여,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분명해 보인다. 2020년 보도³⁾에 따르면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그 사용의향을 밝혀 5년 사이 3배 이상 높아졌으며, 2019년 육아휴직자 16만명 중 아빠가 약 20% 정도로 10년 사이 16배 증가한 상황이다.⁴⁾ 이는 부모의 양육관련 문화, 가정에서의 육아문화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감되는 변화 속에 가정 내 형성된 육아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 시도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안에서 체감되는 육아문화의 진단도 필요하다. 노키즈존(No Kids Zone), 맘충, 독박육아 등의 단어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안에 존재하며, 이는 육아하는 가족을 어렵게 하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적 경험은 육아하는 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 더 나아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부터 육아존중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티브즈’를 운영 중이다. 2차년도까지 육아문화 크리에이티브즈들은 속의 토론을 통해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3차년도에는 긍정적 육아

2) 한국아동패널(7차년도) 데이터는 아동연령이 6세이며, 약 1,700여명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임.

3) 연합뉴스(2020. 1. 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4) 동아일보(2020. 12. 22.). “육아휴직 16만명...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문화 조성을 위한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활동을 보다 실천적 부분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들은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부모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다. 육아하는 가정이 체감하는 육아정책,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적인 지원정책, 제도들을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의 중요한 축이다.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인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상담 등 다면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특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부모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로 평가되는 지자체의 사업, 정책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육아존중문화에서 존중의 의미는 ‘육아’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의 인정과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배려를 넘어서는 존중이라는 방향성을 의미한다(권미경 외, 2019, p.21).” 본 연구는 ‘육아’하는 행위와 그를 수행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육아문화’ 변화를 도모(권미경 외, 2019, p.21)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의 현황을 진단하여 부정적 또는 차별적 요소, 개선요구들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들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통해 시도해보고 SBS 특집방송으로 제작 방영하며, 이와 더불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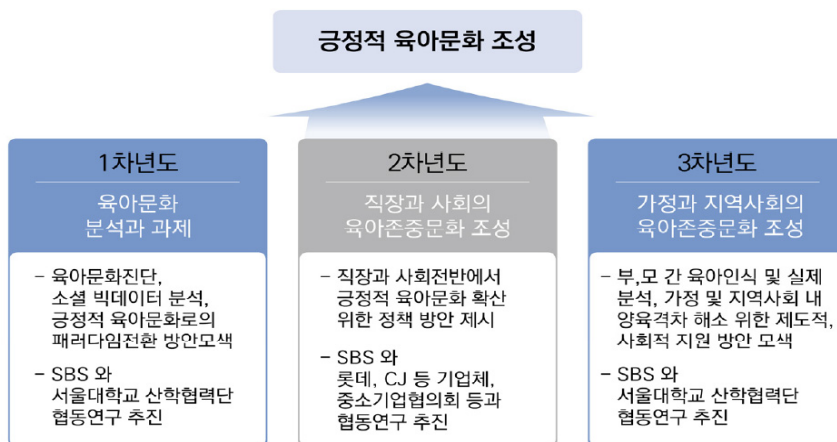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권미경 외, 2019, p.21).”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또한, 문화 조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를 포함하고, 각 년도별 협동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3개년의 협동연구이다.

1차년도(2019)는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2차년도(2020)는 ‘직장에서의 육아존

중문화 조성’, 3차년도(2021)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이라는 부제를 지닌다.

3차년도는 연구의 초점을 ‘육아기 가정’에 두고,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평등 요소,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의 인식과 부-모 공동 책임의 육아 문화, 육아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1-1-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추진 계획



2. 연구내용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추진한 육아문화 진단을 토대로 아동과 부모가 존중받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추진하는 3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 아버지의 육아참여,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 지역사회 가족지원 사업, 육아문화 개선 사업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둘째, 양육자의 육아문화 인식과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부와 모의 인식을 결혼과 출산, 육아를 중심으로 살피고 성평등한 육아, 긍정적 육아문화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셋째, 양육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양육자로 경험하는 차별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의 요구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지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육아지원의 전달체계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육아문화 조성사례를 정리하였다. 국외 사례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는 체계와 환경이 잘 마련된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 사례를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성평등 육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독일은 새로운 육아지원 모델로 'Familienzentrum(가족지원센터)'를 두어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에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두어 취학 전의 아이와 그 보호자가 교류하는 공간 제공, 육아상담, 육아 정보의 제공을 하고 있다.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국외 사례로 노르웨이 양성평등부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이를 제거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동과 육아를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긍정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변화의 필수 요건을 발굴하여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육아존중 육아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실천 및 홍보로 육아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며, 행복한 육아로의 의식 변화로 긍정적 육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기획(SBS), 캠페인 등을 수행하였다. 협동 기관인 SBS와 더불어 기획프로그램인 '희망 TV'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확산을 도모하였다.

3. 연구방법

가. 3개년 협동연구 추진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SBS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진행하였다.

[그림 1-3-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협동 추진 방법

1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	3차년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연구,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부정적 요인 분석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키워드 분석 통한 육아문화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 도출/부정적 육아 인식을 유도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조사, 분석 3) SBS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진행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 추진, 육아존중문화의 직장, 사회 내 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언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육아문화 현황 설문조사 분석 3) SBS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기반하여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진행(계속) 중소기업 협의체의 참여로 숙의토론과 직장 내 육아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육아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연구,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부-모 공동 책임의 가정, 지역사회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가정 내 양성 평등 방해요소 조사, 분석(양적연구)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 사업 계획 추진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정 내 양성 평등 방해요소 조사, 분석(질적연구), 국외 사례조사 3) SBS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기반하여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방영(13시간 연속)

1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육아 관련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디어 분석을, SBS는 기획 프로그램⁵⁾

을 통해 긍정적 육아 인식을 선도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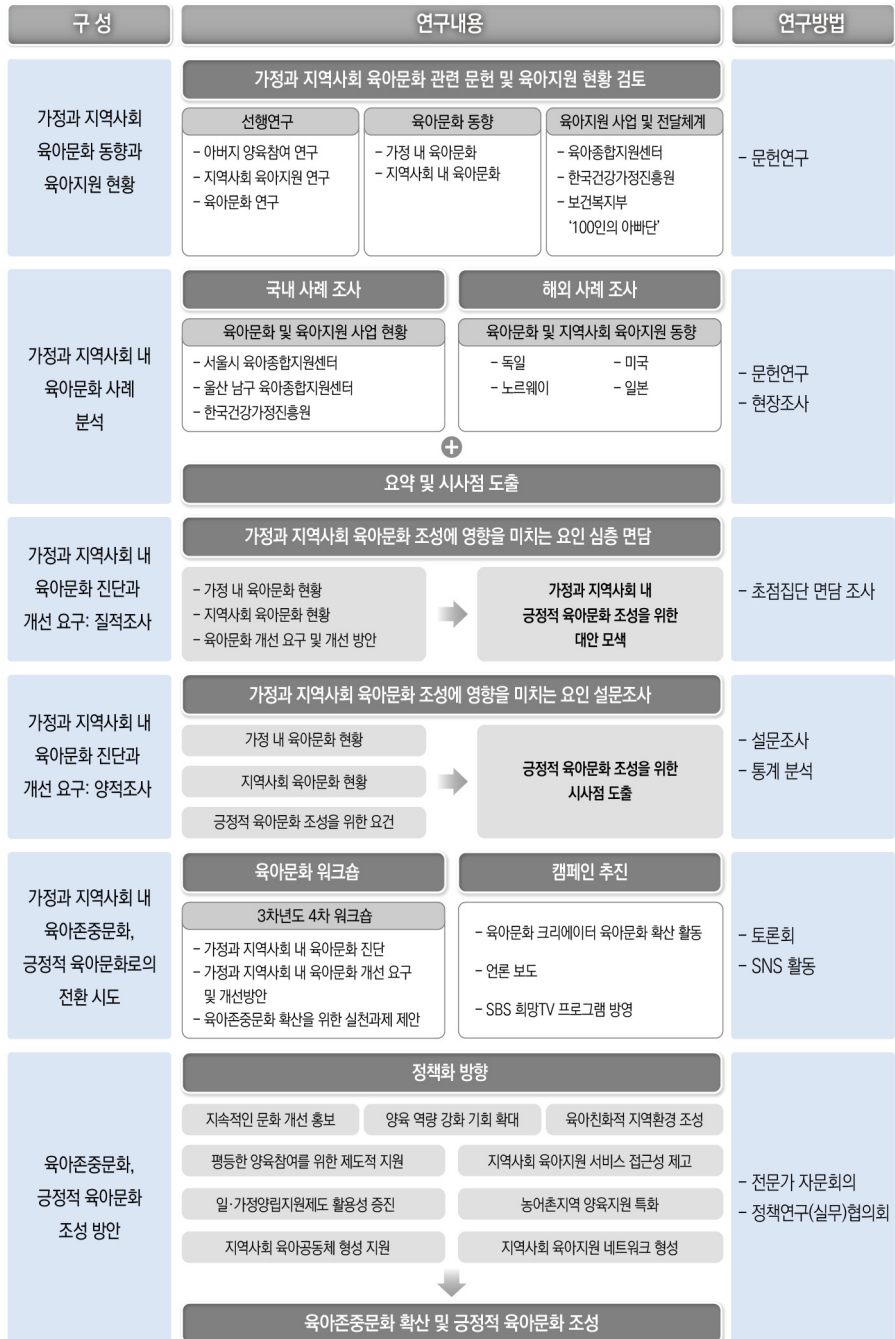
2차년도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하여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요구를 수렴하였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⁶⁾을 통해 직장 내 긍정적 육아 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연구는 이를 지원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부-모 공동 책임의 가정, 지원적이고 지지적인 지역사회 육아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선행연구의 분석, 육아 관련 인식 조사 및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통한 문화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동가족학에의 전문성을 살려 가정 내 양성 평등 방해요소에 대한 질적 분석과 더불어 국외 사례 등을 수합하였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희망TV’)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연구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3차년도 연구 추진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I-3-2]와 같다.

5) 1차년도 연구결과는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155회로 방영됨.

6) 2차년도 연구결과는 2020년 10월 25일,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953회와 2020년 11월 21일 ‘희망 TV’ 172회에 내용이 방영됨.

[그림 I-3-2]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차년도 연구 추진 개요



나. 3차년도 연구 추진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 온라인 검색 등의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아버지의 육아참여,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 육아문화 개선 사업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 및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였다. 언론에 나타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관련 문화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온라인 검색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연구

가) 심층면담조사

(1) 심층면담조사 개요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와 모를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 지역사회에서 체감한 육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요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참여자는 영아기와 유아기,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며, 가능한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사회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육아문화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찾고, 긍정적인 문화는 더욱 활성화하고, 부정적인 문화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역할분담과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향적인 인식의 근원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의 발견과 더불어 아동과 부모를 모두 존중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추진하였다.

면담참여자 4인이 한 집단이 되어 면담에 참여하였고, 면담은 주 진행자 1인과 부 진행자 1~2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각 집단별로 1차례씩 면담이 이루어졌고, 집단 당 약 2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모든 면담은 화상 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모든 면담은 녹화하여 전사 후 분석되었다.

〈표 I-3-1〉 초점집단면담 개요

구분	내용
연구참여자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 48명 (첫째 자녀 기준)
조사 시기	1차: 2021년 3월~5월/ 2차: 2021년 8월~9월
참여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 - 성별(남, 여) 및 연령대(고령출산) - 자녀의 발달 시기(영아 자녀, 유아 자녀, 초등 자녀) 및 형제자매 유무(외동아, 쌍생아, 다자녀)
면담 내용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자녀와 함께하는 하루 일상의 모습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의 주말 모습 가정 내 육아분담 육아에 대한 가정 내 인식
	지역사회에서의 육아경험 지역사회에서 '육아에 대해 존중받는다, 혹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경험 육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및 인식
	지역사회의 의미 확장: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육문화와 공동체 인식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사람/집단 육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가족 이외의 사람/집단
	부모의 자기 이해 및 육아의 의미와 성찰 부모와 자녀의 양방향적 관계의 특성 육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발견 및 이해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정책 및 서비스의 이상과 현실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제안 육아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활성화에 대한 제안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안
조사 방법	초점집단면담을 통한 심층면담

(2) 심층면담조사 대상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른 가정과 지역사회의 육아문화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1차 초점집단 면담은 발달 시기별로 구분하고, 어머니 집단, 아버지 집단, 부부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이 소요되었다. 이후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거주 부모와 무자녀 부부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2차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2021년 8월과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초점집단 면담 연구참여자의 구성은 <표 I-3-2>와 같다.

<표 I-3-2> 초점집단면담 연구참여자 구성

집단 특성		집단 명	인원	면담 날짜
1차 초점집단 면담	영아기 자녀 부모	영아기 모 1	4명	2021.4.28.
		영아기 모 2	4명	2021.5.2.
		영아기 부	4명	2021.5.26.
		영아기 부모	2쌍 (총4명)	2021.4.17.
	유아기 자녀 부모	유아기 모 1	4명	2021.5.13.
		유아기 모 2	4명	2021.5.22.
		유아기 부	4명	2021.4.18.
		유아기 부모	2쌍 (총4명)	2021.5.29.
	초등학교 자녀 부모	학령기 모 1	4명	2021.4.12.
		학령기 모 2	4명	2021.5.27.
		학령기 부	4명	2021.5.30.
		학령기 부모	2쌍 (총4명)	2021.6.6.
2차 초점집단 면담	지방거주 부모	모 1	4명	2021.9.2.
		모 2	3명	2021.9.9.
		모 3	3명	2021.9.10.
		부 1	3명	2021.9.3.
	무자녀부부	무자녀 부부	2쌍(4명)	2021.8.22.

(3) 심층면담조사 응답자 특성⁷⁾

연구참여자는 전체 65명으로, 1차 면담은 총 48명, 2차 면담은 총 17명이 참여하였고, 연구참여자 특성은 <표 I-3-3>에 제시하였다.

연령대로는 30대가 6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30.7%, 20대가 3.1%로 대부분 30~40대임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7) 초점집단 면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사항은 부록 3 참조.

반반으로 표집하였고, 육아휴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32.3%, 육아휴직 미 경험자가 67.7%로 면담자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경험이 없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 29.2%, 경기와 인천이 33.9%로, 수도권 거주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대구, 충청, 세종이 12.3%, 부산이 9.2%, 광주, 전남이 6.2%, 대구와 강원이 3.1%, 울산과 제주가 1.5% 순이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400-500만원 미만인 26.2%로 가장 많았고, 500-700만원 미만인 18.5%, 200-300만원 미만인 13.8%, 1,000만원 이상이 12.3%이다. 연령대는 20~40대까지 분포되어있고, 맞벌이 가정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 분포가 2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 I-3-3〉 초점집단면담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65)			
부모			맞벌이 여부		
아버지	35.4	(23)	맞벌이	49.2	(32)
어머니	64.6	(42)	맞벌이 아님	51.8	(33)
연령대			육아휴직 경험 여부		
20대	3.1	(2)	경험 있음	32.3	(21)
30대	66.2	(43)	경험 없음	67.7	(44)
40대	30.7	(20)			
자녀 수			가구 소득		
무자녀	6.2	(4)	무응답	1.5	(1)
1명	29.2	(19)	소득 없음	1.5	(1)
2명	49.2	(32)	200만원 미만	6.2	(4)
3명	12.3	(8)	200-300만원 미만	13.8	(9)
4명	3.1	(2)	300-400만원 미만	7.7	(5)
거주 지역			400-500만원 미만	26.2	(17)
서울	29.2	(19)	500-700만원 미만	18.5	(12)
경기/인천	33.9	(22)	700-800만원 미만	6.2	(4)
부산	9.2	(6)	800-900만원 미만	4.6	(3)
대구	3.1	(2)	900-1000만원 미만	1.5	(1)
대전/충청/세종	12.3	(8)	1000만원 이상	12.3	(8)
광주/전남	6.2	(4)			
강원	3.1	(2)			
울산	1.5	(1)			
제주	1.5	(1)			

나)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전국에서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 1,228명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과 그 배경이 되는 영향 요인,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육아문화(가정 내 양육 평등 정도, 방해요인 포함), 육아지원정책의 활용, 제도 이용의 어려움,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요구와 개선방안, 육아지원제도에의 체감과 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선행연구 분석, 심층면담, 문항개발의 과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표 I-3-4〉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 1,228명 (첫째 자녀 기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父), 모(母))
조사 시기	2021년 5월
표본 선정 기준	-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농어촌지역) - 성별(남, 여) - 자녀(영아 자녀 있음, 유아 자녀 있음, 초등 저학년 자녀 있음)
조사 내용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자녀와 육아에의 인식 부부 간 양육 부담/ 자녀에 대한 기대/ 아버지 양육 참여 향상 방안 가정 내 육아문화 조성 정도 진단,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개선요구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정도,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개선요구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최근 10년간의 육아문화 변화 체감과 그 이유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2) 설문조사 표본 구성

표본은 자녀 연령별 부(父)와 모(母)의 육아 실태와 육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부와 모를 같은 비율로 임의할당 하되, 지역규모별 비례 할당하여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설계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별과 부모별로 임의 할당하였다.

(가) 자녀 연령별, 부모별 임의 할당

〈표 I-3-5〉 조사대상 자녀 연령별, 부모별 임의 할당

구분	설문조사 표본					
대상	영아 자녀(0~2세)		유아 자녀(3~5세)		초등 저학년 자녀(6~8세)	
표본수	부	모	부	모	부	모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나) 지역규모별 비례 할당

2021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기초하여 비례 배분하였고, 지역규모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I-3-6〉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 (2021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규모	영아(0~2세)	유아(3~5세)	초저(6~8세)	전체
대도시	334,462	452,428	519,256	1,306,146
중소도시	389,025	530,457	610,430	1,529,912
읍면지역	150,339	198,419	228,771	577,529
전체	873,826	1,181,304	1,358,457	3,413,587

(다) 비례할당 결과

지역규모별, 자녀연령별, 부모별 비례할당을 고려한 조사대상 표본의 결과는 다음 〈표 I-3-7〉과 같다.

〈표 I-3-7〉 조사대상 비례할당 결과

	영아		유아		초저		합계
	모(母)	부(父)	모(母)	부(父)	모(母)	부(父)	
대도시	77	77	77	77	76	76	460
중소도시	89	89	90	90	90	90	538
읍면지역	34	34	33	33	34	34	202
합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3-8>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9.1%와 50.9%로 성비가 비율이 거의 같았으며 20~30대가 57%, 40~50대가 43%로 20~30대 부모가 다소 많았다.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인 경우가 41.5%, 3명 이상인 경우가 9.4%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영아가 33.6%, 유아가 33.4%, 초등학교 저학년이 33.0%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40.3%, 농어촌 거주자가 15.4%였다. 응답자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의 52.4%이며, 외벌이인 경우가 47.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월 300~4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 600만원 이상이 22.4%, 월 400~500만원이 20.0%, 월 300만원 미만이 18.4%, 월 500~600만원이 13.8% 순이었다.

<표 I-3-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단위: %(명)	
	계(수)	
전체	100.0	(1,228)
연령		
20~30대	57.0	(700)
40~50대	43.0	(528)
자녀 수		
1명	49.1	(603)
2명	41.5	(510)
3명 이상	9.4	(115)
자녀 연령		
영아	33.6	(413)
유아	33.4	(410)
초등 저학년	33.0	(405)
여성	49.1	(603)
남성	50.9	(625)
대도시	40.3	(495)
중소도시	44.3	(544)
농어촌지역	15.4	(189)
맞벌이	52.3	(635)
맞벌이 아님	47.7	(580)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8.4	(226)
300~400만원 미만	25.4	(312)

구분	계(수)	
400~500만원 미만	20.0	(245)
500~600만원 미만	13.8	(170)
600만원 이상	22.4	(275)

3)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구성 및 추진 내용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는 육아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 정책과 제도, 사회적 합의, 시민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육아문화와 육아환경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권미경 외, 2020, p.35).

2019년 1차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35명의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모집하였고 총 2회의 숙의 토론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의 공유와 더불어 긍정적 육아문화 캠페인도 함께 하였다.

1차년도 구성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연구를 추진하는 3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며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연구와 관련된 SBS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2020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와 더불어 중소기업에서 30명의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추가로 구성하여 참여형 심층 토의를 통해 직장의 육아문화 양상과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나) 2021년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3차년도에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와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육아문화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마지막 년도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이 참여형 토론으로 육아문화 양상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안에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또는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SBS와 협력하여 특집 프로그램에도 반영하였다.

□ 목적: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고 육아존중문화를 만

들어가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로 활동함.

- 구성 방법: 기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주었고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에 홍보하여 추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을 모집함.

□ 숙의토론 개최

- 4차 숙의토론은 2021년 4월 24일(토) 개최함.
부모대상 심층면담 결과 공유,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문화 양상,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요소 찾기,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와 활동 가능한 육아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브레인스토밍 후 실천을 계획함.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활동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4월 말 1차 숙의 토론 이후 계획한 육아문화 조성 활동을 5월부터 9월까지 실천하고 그 내용을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함.
구체적 활동의 유형 및 방법은 1차 참여형 토론회를 통해 발굴하고 계획함.
- 활동 예시: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 관련 차별적 요소 또는 긍정적 요소 발굴 시 크리에이터즈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며, 이때 ‘육아존중문화’ 키워드를 첨부함.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활동 결과분석

- 연구진은 매월 수합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활동 내용을 활동유형, 빈도, 파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결과분석을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예의 시사점을 도출함.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I-3-9〉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자문회의	2.24	아동가족학 교수 1인	- 연구 방향성 및 추진방법 자문 - 협력 가능성 타진
자문회의	4.5	아동가족학 교수 1인	- 협동연구기관 업무 분장 논의 - 설문조사 내용 논의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자문회의	4.6	숙의토론 업체	- 숙의토론 프로그램 방향 논의 및 일정 조율
협동연구진회의	4.8	SBS 국장 1인 외 작가	- 방송 프로그램 방향 논의
협동연구진회의	4.2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및 SBS 연구진 전체	- 1차 숙의토론회 이후 회의 내용 연구 반영 과 향후 협동 추진 방안 논의
정책실무협의회	4.2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홍보 담당관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향후 활용방안 제안
자문회의	5.4	조사업체 관계자 2인	- 조사 내용, 표집 관련 논의
자문회의	5.4	아동가족학 교수 1인	- FGI 진행 중간 과정 공유
협동연구진회의	5.26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진 3인	- 과제 추진 현황 공유
협동연구진회의	6.8	SBS PD 1인 외 작가	- 방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방영 날짜 조율
협동연구진회의	6.25	SBS PD 1인 외 작가	- 방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내용 및 프로그램 자문진 논의
협동연구진 회의	7.9	SBS 희망 TV 제작진	- 희망 TV 제작진 대상 육아문화 강의
자문회의	9.10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외 1인	- 울산 남구 지역사회 육아문화, 육아지원사업 사례조사
자문회의	9.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외 1인	- 가족친화사업 사례조사
자문회의	9.16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인	- 서울시 지역사회 육아문화, 육아지원사업 사례조사
협동연구진 회의	10.7	SBS 희망 TV 제작진	- 프로그램 개요 논의
협동연구진 회의	10.26	SBS 희망 TV 제작진	- 연구진 희망 TV 녹화 참여
협동연구진 회의	11.19	SBS 희망 TV 제작진	- 연구진 희망 TV 생방송 참여

5)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성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중파 방송인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며, 협력하여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방영하였다.

1차년도에는 연구 결과를 담아 'SBS 희망TV' 55회로 방영되었다. 2차년도인 2020년에는 직장에서의 육아문화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결과를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953편(10월 25일)에 방영되었다. 또한 11월 21일 'SBS 희망TV 172회-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에도 재방영되었다.

3차년도에는 SBS 기획 프로그램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 연구의 결과,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워크숍과 활동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3개년 본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SBS는 기획 프로그램방송을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로 13시간 연속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21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방영되었다. 본 연구는 SBS와 협력하여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내

용을 프로그램('SBS 희망TV' 특집 방송)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직접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이러한 미디어 활용을 통해 육아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긍정적인 육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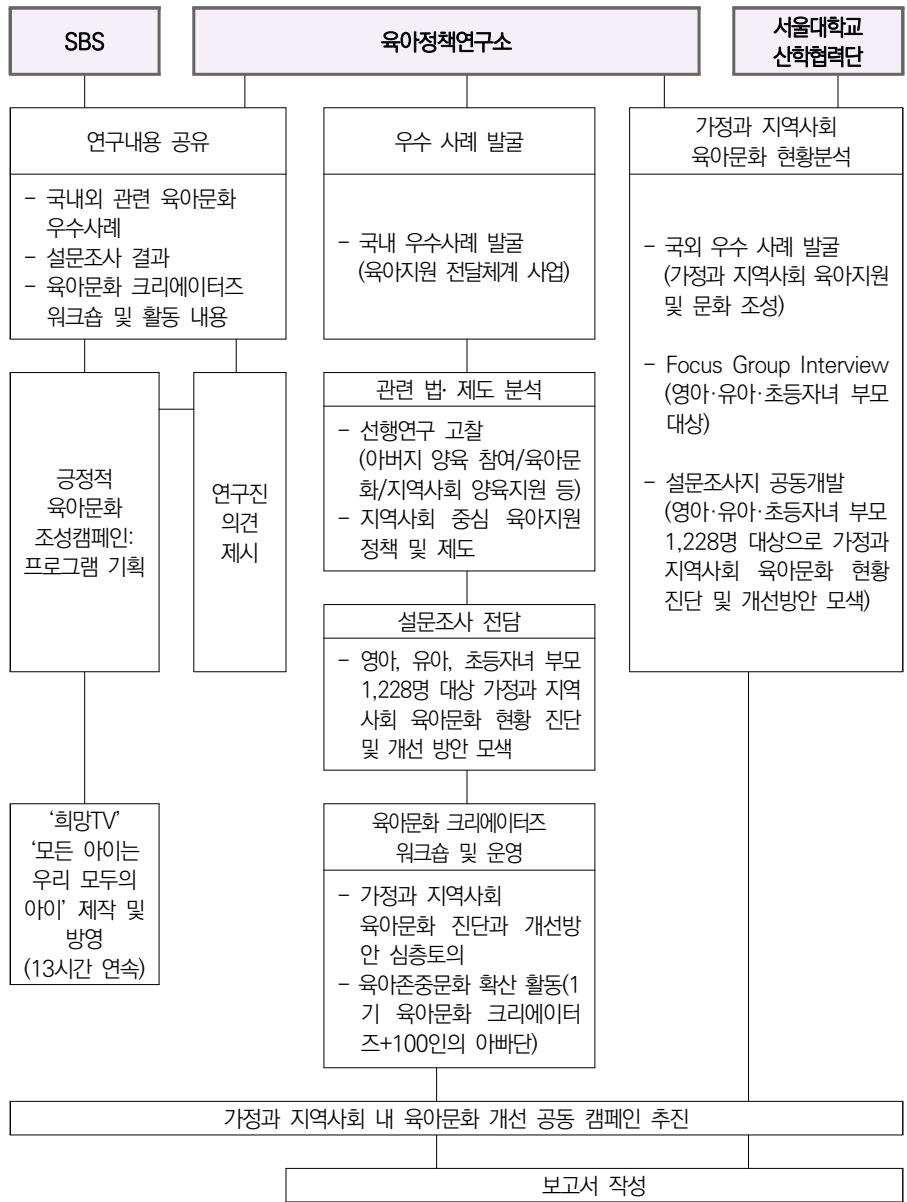
다. 협동기관 간 연구 추진 방법

3차년도 연구의 협동기관 간 역할 분담은 [그림 I-3-3]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지원 관련 제도 분석, 선행연구 검토, 국내 사례 발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및 운영 등을 전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의 협력하여 설문 구성, 초점 집단 심층면담, 국외 사례 발굴 등을 진행하였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SBS 희망TV' 특집 방송)을 통해 긍정적 육아 인식을 선도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본 연구는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여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과정에서 참여하는 제작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 연구의 지향점을 안내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처럼 협동주체들은 각각의 주 분담연구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와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소통하며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협력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I-3-3]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차년도 협동 추진 체계



II

연구 배경

- 01 육아문화 관련 용어 정의
- 02 육아문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03 육아문화 관련 동향
- 04 육아 관련 지원체계 및 활동
- 05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II.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육아문화’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육아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3차년도 연구 수행의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추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육아존중문화 조성 및 성평등한 육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 동향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육 가정을 위한 정부의 주요 육아지원 전달 체계인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양육 참여 독려와 육아문화 변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살펴보았다.

1. 육아문화 관련 용어 정의⁸⁾

가. 육아문화(育兒文化)

‘육아(育兒)’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으로 ‘양육(養育)’과 유사한 개념이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전이되거나 구성되는 덩어리로, 이는 관습, 생각, 도식, 상징, 가치, 규범, 제도, 목표, 입법규칙, 인공물, 수정된 물리적 환경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Fiske, 2002, p. 85).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육아문화’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육아(育兒)’는 육아를 경험하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정, 제도,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육아문화를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1)에 준하여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범주화 가능하다. 미시체계는 아동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환경으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8) 본 연구는 3개년 연구로 용어의 정의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것임.

권미경 외(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Ⅰ). pp.37-38 내용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 내 환경과 가정 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의 직장, 미디어,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이나 규범이 이에 포함된다.

나.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 안에는 육아의 대상과 육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육아의 대상인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이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발되었고, 그 배경이 되는 가치는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를 넘어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육아존중문화’는 육아하는 행위와 육아의 대상인 아동과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다. 긍정적 육아문화(肯定的 育兒文化)

문화 안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긍정적 육아문화’는 ‘부정적 육아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긍정적 육아문화’는 본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우리사회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와 문화 안의 긍정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확산하고,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여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2. 육아문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양육자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육아문화 진단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선행연구로 가정에서의 균형 잡힌 육아분담이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 지역사회에서 육아지원과 관련된 연구, 육아문화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양육참여, 양육관 인식의 차이)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육아문화는 한 가족의 단위에서 만들어가는 문화로 양육자 간의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실행 등에 기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양육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여, 태도 등에 따라 각 가정의 양육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 내에서의 양육문화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10년에는 1.96% 정도였으나, 10년 후 2020년 기준 24.5%로 1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⁹⁾. 이렇듯 아버지가 육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4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2010년 이후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는데(김순란, 김용미, 2019, p. 133, 정우영, 김희영, 2018, p. 83), 이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의 아빠육아 참여관련 프로그램 편성 및 남성육아휴직을 지지하는 정책마련 등의 분위기도 남성의 양육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아버지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인센티브 확대, 공공·대기업 선도 등의 주요 과제를 내세우면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해왔다(이옥경, 2017, p. 7). 하지만 지역마다 부산지역에 있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육아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99%)하였으나, 양육시간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68.5%).

정우영, 김희영(2018)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통해 발표된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연구 155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하였다. 아버지 일반적 양육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영재’, ‘특수’ 키워드와 함께 연구된 연구물은 제외하고, ‘아버지’, ‘부(父)’, ‘양육’, ‘유아’ 키워드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정우영, 김희영, 2018, p. 80). 출현빈도로 산출된 상위 20개 키

9) 고용노동부(202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sessionId=eKbbxaIwebyueXCEe5OhvO9FWCL1a84zaQHkeeJgLTgvLElGJWGjr6TDNQm9hURM.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10200878 (2021. 6. 6. 인출)

워드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1>과 같다. 이를 보면 ‘양육참여’라는 키워드가 81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는데, 아버지 양육 관련하여 ‘양육참여’라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주 역할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우영, 김희영, 2018, p. 92).

<표 II-2-1> 1993~2018년까지 아버지의 양육태도관련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양육참여	81	부부갈등	11
양육행동	23	유아 문제행동	9
양육스트레스	20	유아사회적능력	8
양육태도	20	어머니우울	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9	유아 친사회적행동	7
양육 효능감	14	자아존중감	7
우울	13	직업만족도	7
결혼만족도	12	양육방식	6
유아기질	12	어머니효능감	6
인구사회학적배경	12	유아또래놀이	6

자료: 정우영·김희영(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 연구, 17(3), 75-101. p. 84. 표 중 일부

또한, 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김연재·최은실, 2020),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미경, 2020; 최화자, 이하원, 2019) 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조은주와 이소연(2021)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있을 경우 아버지의 우울 증상과, 자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함에 있어, 갈등요소가 적은 것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도 가정과 자녀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지연(2019)은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유형을 1) 협력적 공동양육 참여, 2) 갈등적 공동양육 참여, 3) 무관심 공동양육 참여, 4) 의무적 공동양육 참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자녀를 애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와 유아를 지지하는 협력적 공동양육 참여 집단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유지연, 2019).

〈표 II-2-2〉 아버지 참여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자녀 연령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용
김연재·최은실(2020)	3-5세 유아	아동의 외현화 문제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 조절에 도움을 줌
최미경(2020)	3-5세 유아	유아의 자기조절력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침
최화자·이하원(2019)	만3-5세 유아	유아의 자기조절력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도,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짐.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나, 놀이참여도 보다는 양육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침
조은주·이소연(2021)	유아기 자녀	자녀의 문제행동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맞벌이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자녀 문제행동에 주는 영향 측면에서 아버지의 우울 증상과 자녀를 향한 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유지연(2019)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아버지 공동양육 참여 군집	아버지가 애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와 유아를 지지할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
최지은·김현경(2019)	만7세 (초등1)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제도이행	아버지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여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이 증가함.

자료: 1) 김연재·최은실(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4(2), 19-33.
 2) 최미경(2020).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8(3), 299-313.
 3) 최화자·이하원(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2), 77-94.
 4) 조은주·이소연(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증상과 자녀에 대한 분노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27-144.
 5) 유지연(2019).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특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115-138.
 6)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뿐 아니라 아버지를 둘러싼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고정국, 이정화, 오영은(2020)은 아버지 관련 여러 변인들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가구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 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늦은 퇴근을 하는 아버지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고정국, 이정화, 오영은, 2020, p.35),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정국, 이정화, 오영은, 2020, p. 36).

〈표 II-2-3〉 아버지의 인식 및 특성이 부모 양육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자녀 연령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용
김연하·장 욱·서홍우 (2019)	만7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	아버지가 일-가정 양립의 장점에 중점을 둘수록 결혼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태도 가 양호함
나경애· 민경석 (2020)	1-3세 영아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 결혼만족도, 아버지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주요 요소 간 관계를 상호적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중 단적 모형(자기 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 해 규명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 니의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인과 관계를 맺는지를 확인함
고정국·이 정화·오영 은(2020)	만 3-6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 관련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적 특성, 양육참여)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없었고, 양육참여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줌.

자료: 1) 김연하·장욱·서홍우(2019).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 13(3), 81-98. p.93.

2) 나경애·민경석(2020). 아버지의 행복감,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과 자존감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26(1), 41-59.

3) 고정국·이정화·오영은(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1), 25-50, p.41.

김연하, 장욱, 서홍우(2019)는 아버지가 경험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을 토대로 1)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이점 우세 집단’, 2) 갈등과 이점 지각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 3) 갈등과 이점 지각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 4) 갈등이 높고 이점이 낮은 ‘갈등우세 집단’으로 아버지를 유형화하였다. 그 중 일-가정의 양립의 이점이 높고 갈등이 낮은 이점 우세 집단의 경우, 결혼 및 양육관련 이슈에 대해서 심리적 태도가 양호하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부부갈등,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연구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육아지원은 육아를 하는 가정이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지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책연구를 통해 많이 이루어져 왔고, 크게 지역사회 육아인프라에 대한 연구, 아동친화도시, 육아친화도시 등의 육아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이윤진, 조혜주(2015)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과 연계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정리하였다(이윤진, 조혜주, 2015).

강은진, 유해미, 윤지연(2016)은 친양육적 지역맞춤형 육아지원환경 요소를 개념화하고 지역별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요소를 산출하여 지역별 육아지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강은진 외(2016, p. 118)은 육아지원환경 평가 요소를 크게 교육보육 지원, 육아지원서비스 영역, 돌봄지원 영역, 문화인프라 영역,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 영유아 안전관리 보호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세부적인 평가 영역과 요소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에서 중요시 하는 영역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영역들을 <표 II-2-4>에 답았다.

이미화, 이윤진, 박상신(2018)은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연구에서 육아를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표 II-2-4>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평가영역	평가 요소
교육보육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급수준, 유치원 정교사 및 보육교사 1급 비율 등
육아지원서비스 영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돌봄지원 영역	시간제보육, 시간제 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온종일돌봄 공급 및 인력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사업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문화인프라 영역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공급수준, 보건소 인력규모
영유아 안전관리 보호 영역	보행자전용 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안전체험 교육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및 부상자율, 아동보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등

자료: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18.의 표를 참고하여 의 변경 후 평가 요소를 요약함.

특히 아동과 함께 방문 가능한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의 마련과, 교육환경, 놀이 및 여가환경,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하였다(이미화 외, 2018). 또한,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장 등의 서설 설립도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문화 경험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제안되었다(이미화 외, 2018).

〈표 Ⅱ-2-5〉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연구

저자	제목	내용
이윤진 외(2015)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및 육아지원 센터 현황 정리 -국내외 육아지원 네트워크 사례 -부모의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
강은진 외(2016)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친양육적 지역맞춤형 육아지원환경 요소를 개념화함.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영역과 요소를 산출함. -육아지원 환경의 평가요소에 따라 지역별 육아지원 현황을 평가함.
이미화 외(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방안	-아동친화도시 관련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아동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함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 개선요구 파악

자료: 1) 이윤진·조혜주(2015).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유아정책연구소.
3) 이미화·이윤진·박상진(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다. 육아문화 관련 연구

전통적으로 육아는 여성들이 주로 맡아왔으며, 여성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는 어머니의 몫이라는 공식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이후 차츰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육아를 둘러싼 남성의 인식 기업의 제도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여성들이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고 국가나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생겨났다(서동희, 2008). 그 후 육아를 하는 일에 대한 공감, 배려, 힘듦에 대한 이해 등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육아하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이라는 연구(권미경, 최은영, 김나영, 김혜진, 임준범, 2016)를 시작으로 육아문화에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왔다. 권미경 외(2016)에서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캐치프레이

스로 육아문화를 공감하고 지원하는 육아콘서트를 함께 개최하였으며,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또한, 육아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 특히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하였고(권미경, 이정원, 최효미, 김혜진, 2016), 육아를 하면서 소비되는 많은 육아용품 및 육아소비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육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권미경, 최효미, 김지현, 김혜진, 2017)등을 통해서도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정보를 얻고,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육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표 II-2-6〉 육아문화 관련 연구

대표 선행연구	제목	내용
권미경 외(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영유아기 육아정책 내용 파악함. -정책수요자 인식 및 만족도 정도, 육아지원 요구를 수렴함. -정책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의 접근성 향상 도모함.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방안을 제시함
권미경 외(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육아문화 구성자들의 육아인식과 육아현황 고찰함. -육아문화 형성과정에 영향 미치는 육아정보현황을 파악함. -‘작은육아’, ‘행복한 육아’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정리함.
권미경 외(2017)	행복을 키우는 작은 육아: 실속육아 실천 가이드북	-육아와 함께 자리잡은 불필요한 과소비 문화들에 반해 알뜰하게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논의함 -작은육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연령별로 제시함

자료: 1)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3) 권미경·최효미·김지현·김혜진(2017). 행복을 키우는 작은 육아: 실속육아 실천 가이드북. 육아정책연구소.

이렇게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육아문화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지역사회에서 인프라를 통해 또 지역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또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전반적인 인식과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함께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육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육아문화 관련 동향

우리사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경험되는 육아문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신문기사 중 가정의 육아문화, 지역사회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검색하였다.

가. 가정의 육아문화

아버지 육아휴직의 증가

엄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참여율이 낮은 아빠들의 육아참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빠 육아’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사(세계일보, 2018. 1. 25; 경향신문, 2018. 7. 23)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지 22년만에 민간부문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2017년 처음 1만 명을 넘기며, 전체 휴직자의 10%를 돌파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8년 중반까지 이어져 육아휴직 6명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를 석 달간 받을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한 사람도 2017년에 비해 40%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늘 엄마만 찾던 딸에게 좀 더 편한 아빠가 된 것 같아요.” 대구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초등학교 딸아이가 방학 동안 혼자 집에 있는 걸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엄마만 부르던 딸은 아빠를 찾게 됐다. 그는 “복직해도 술자리를 줄이고 딸과 더 많이 놀아주려 한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8. 7. 23).

2020년 기사를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 민간부문 전체 휴직자 중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세계일보, 2020. 8. 13). 증가추세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전년 대비 5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도 177.6% 증가했다. 여전히 대기업과 공무원이 많이 사용하나, 중소기업 근무자 사용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국민일보, 2021. 2. 11).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도 증가했다(세계일보, 2021. 3. 11.).

육아지원제도 사용의 격차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라 사용의 차이가 보였는데, 300인 이상 기업규모에서의 사용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300인 이하의 규모인 것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세계일보, 2018. 1. 25; 경향신문, 2018. 7. 23). 중소기업 외에 정부부처 남성근무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8. 7. 19). 2017년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22.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부처는 10% 미만의 사용률을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사용률은 4.6%와 3.9%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정부부처 내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확대

2019년도에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등으로 출산·육아기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원 확대에 힘입어 전년도에 이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였다(조선일보, 2019. 7. 29). 특히 중소기업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급증하여 전년도에 비해 51%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한국일보, 2019. 5. 17). 개인의 인식과 사회전반의 인식인 상충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희망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 남성은 62%였으나 실제 직장 내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60%로 이상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9. 10. 19). 한편으로, 육아휴직 사용률과 별개로 실제로 집에서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엄마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조선일보, 2019. 7. 29).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사용률 증가와 같은 정성적인 측면 외에 육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례도 기사에 소개되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인사평가나 승진보다 육

아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소중함을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조선일보, 2020. 8. 14; 한겨레, 2020. 1. 9).

대기업 대리 조승현(31)씨는 올해 둘째가 태어나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썼다. 2년 전 첫아 이 때는 한 달을 쓰고 복귀했다. 조씨는 "1~2년 후 승진을 앞두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할 시 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이 엄마만큼 나를 따를 때 기쁨을 느낀다"고 했 다. 쌍둥이 아빠가 된 직장인 조모(31)씨는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10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팀장이 먼저 "왜 육아휴직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원에게 은근히 눈치 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샌 배려받는 기분이야"라고 했다.(조선일보, 2020. 8. 14)

"아기를 보면서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휴직 전엔 지쳐 있으니까 아이가 실수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죠. 영화나 광고에서 아이가 색연필로 난장판을 해놓아도 (아빠가) 행복하게 보는 건 영화라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휴직하고는) 내가 그런 걸 느 낀 거예요. 아이가 실수해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복함을 느꼈어요." (건설업체 근무 37살 ㄱ씨)(한겨레, 2020. 1. 9)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 확산 도모

함께하는 육아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정부차원에서 2017년부터 꾸준히 이루어 졌다(연합뉴스, 2017. 5. 12; 국제일보 2018. 10. 31).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 화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 '아빠 육아 응원', '가나다' 캠페인, '짝꿍파파' 캠페인 등을 통해 육아와 가사분담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그림 II-3-1] 육아문화 개선 캠페인 안내

낡은 가족문화	새로운 가족문화
주변의 환경,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 사람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	주변의 환경과 눈치보다는 용인과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육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남성의 육아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은 지자체의 여러 사업이나 캠페 인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100인의 아 빠단'이다. 중앙부처에서 처음 추진했던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로 확대에서 현재 서

울, 경기, 인천, 충북, 전남, 울산, 대구,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매일일보, 2020. 4. 26; 세계일보, 2019. 6. 14; 조선일보, 2020. 6. 3; 한겨레, 2019. 5. 31, 2020. 5. 19).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도 다양하다. 경북 김천, 경기도 오산, 부산 금정은 아빠들의 육아사진 전시회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했다(매일일보, 2020. 5. 22; 2020. 9. 8; 한국일보, 2020. 6. 25). 이외에도,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빠 수첩 배포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8. 9. 6; 매일일보, 2019. 7. 29; 서울신문, 2018. 11. 14; 한겨레, 2019. 5. 18.)

나. 지역사회의 육아문화 관련

이웃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 육아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 ‘육아’로 검색할 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일례로 가족이 함께 모여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뉴스1, 2020. 9. 15; 서울경제, 2017. 9. 15). 더불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비영리 여성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부모들을 위한 여성 자조모임,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고(한겨레, 2017. 8. 25), 이러한 사례에 착안하여 자치구 지원으로 마더센터가 구에 설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베이비뉴스, 2019. 8. 22; 여성신문, 2021. 1. 27; 뉴시스, 2021. 5. 24).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에서 양육하는 가족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식당 등이 등장하며 아이를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시아경제, 2017. 12. 3; 서울&, 2019. 9. 14; 파이낸스뉴스, 2020. 12. 29), 여전히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이 만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친구들의 아이들을 보니 파인다이닝 식당을 자주 다녀본 애들은 본 것이 있고 학습이 돼서 조용히 밥 먹는 것도 잘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아이한테 가르칠 환경과 기회를 못 주는 것인가?" (외식업체 대표 C씨)(연합뉴스, 2019. 4. 21)

노키즈존 논란

‘노키즈’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예스키즈’나 ‘아이 환영’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노키즈’로 검색되는 기사량이 더 많았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도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하므로 노키즈존이 아동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한겨레, 2017. 11. 24),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아동의 식당의 출입을 제한하거나(YTN, 2019. 5. 5), 아이들의 소음으로 영화관에서 어른만 관람 할 수 있는 별도 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SBS, 2019. 11. 27)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객의 권리, 영업의 자유,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맞물리며 ‘노키즈존’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9. 12. 30; 노컷뉴스, 2017. 9. 1; 연합뉴스, 2019. 4. 21; 이데일리, 2017. 10. 10; CBC뉴스, 2020. 12. 1)

“노키즈존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가게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B씨) (CBC뉴스, 2020. 12. 1)

노키즈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여성조선, 2019. 5. 13; MBC, 2021. 5. 21). 2019년에 국회의원과 총리, 국무위원 등만 출입 가능한 현행 국회법에 의해 본회의장에 아이 동반 출입을 요청했다가 거부된 사례가 있었고, 관련 법 개정이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이에 최근에 아이를 기르는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는 동반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재추진 중이다. 국회는 지역사회 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나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4. 육아 관련 지원체계 및 활동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가족정책과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 건강가정지원센터¹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센터는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 통합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조부모를 위한 돌봄교육이 있으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대상 돌봄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가족 내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간 관계 향상, 의사소통 방법 교육 및 역할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으로 이미 가족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센터의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정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행사 등을 기획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돌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¹¹⁾.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10)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요 사업란을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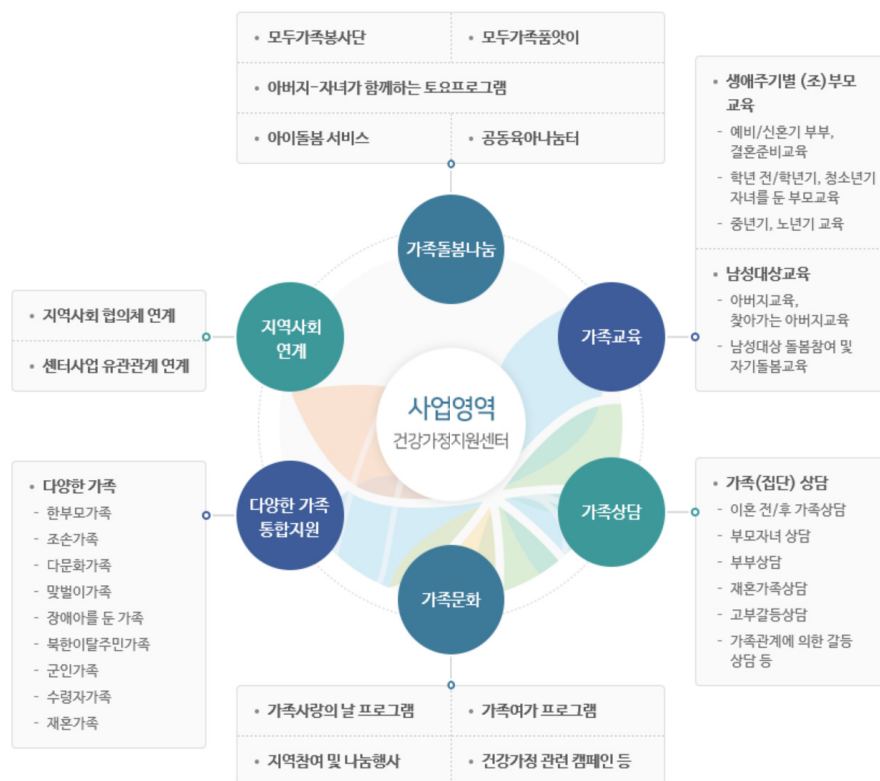
<https://familynet.or.kr/web/lay1/S1T296C297/contents.do> (2021.5.30. 인출)

1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란을 참고하여 작성함.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1&L_MENU_CD=020201&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1.5.30. 인출)

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필요한 돌봄 종류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정의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사유를 충족하고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한 보호를 제공 받고, 취업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II-4-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 (2021. 6. 6. 인출)

지역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¹²⁾.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양육자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모 모임이나 돌봄품앗이 활동, 가족 참여 프로그램, 교육 등이 운영된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기관 위주의 돌봄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틈새돌봄을 보완하고자 2020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그림 II-4-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공동체 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Tel. 063) 231-0182-0185

가족교육사업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 실시
☎ 063) 231-0182

- 예비부부/신혼기부부교육
- 예비부모교육
- 찾아가는 부모교육
- 건강가정 식생활교육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중년기/노년기)
- 아버지교육
- 이혼·이혼교과
- 부모-자녀관계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 학습교재

가족상담사업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족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인 및 가족상담 진행
☎ 063) 231-0183

- 이혼 전후 가족상담
- 부모-자녀관계 상담
- 가족관계 집단상담
- 가족상담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 위족상담사 보수교육

가족돌봄 문화지원사업
전원하고 올바른 가족생활문화 조성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진행
☎ 063) 231-0184

- 가족사랑의 날
- 건강가정캠페인
-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 모두가족봉사단
- 지역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 가정의 날 행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 063) 231-0185

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온가족놀이터' 운영 및 자녀돌봄과 양육을 위한 모두가족품앗이 운영 등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6:00
- 이용대상: 부모(보호자)와 만 5세미만 자녀
- 이용내용: 실내놀이 및 장난감 이용,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장난감대여서비스)
- 가족품앗이 그룹운영
- 가족체험활동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 상시프로그램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공동체 구축을 추구합니다.

아 아직도 자녀를 돌볼 줄 곳이 필요하세요?
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아직 모르세요?
사 사실... 저만 아는 곳인데, 그 곳은 바로 돌봄공동체!!입니다.
돌봄공동체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배우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줍니다.
랑 낭랑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행복한 우리마을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 돌봄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나눠드림
전주시 덕진구 북43길 29
104동 104호
대상: 만6세~12세

학습
프로그래밍

다양한 체험
전주시 완산구 사목2길 19-4
201호
대상: 초등학교1학년~3학년

호크마
전주시 완산구 매곡4길 40-30 1층
대상: 초등학교1학년~4학년

돌봄

놀이

동글동글 통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대상: 영유아~초등학교 3학년

동네 이모
갑작스런 긴급 돌봄 발생 시 '동네이모'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동네이모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주는 돌봄활동입니다.

자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jeonju.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435C436/A/18/view.do?article_seq=60006&cpage=1&rows=10&condition=&keyword= (2021. 6. 6. 인출)

12)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지원란을 참고하여 작성함.

<https://familynet.or.kr/web/lay1/S1T431C432/contents.do>(2021. 6. 6. 인출)

공동체 유형에 따라 지역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육아품앗이를 하는 품앗이 형과 북카페, 쉼터 등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형,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경제조직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첫 해인 2020년에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서울 구로구·마포구, 광주 동구·서구·남구, 강원 원주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10개의 지역이 선정되었고 총 33개의 주민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¹³⁾.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돌봄공동체를 통해 긴급 돌봄 발생시 ‘동네이모’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틈새돌봄,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방과후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¹⁴⁾.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놀이 및 돌봄활동비, 교육, 전문인력이 지원되며 돌봄대상은 각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 다양하고 운영시간도 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라 주중과 주말 동안 자유롭게 운영된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¹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고 가정양육을 하는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이다. 가정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부모교육과 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놀잇감 대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육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교육과 상담이 있다. 시도,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부모교육은 보호자의 역할, 아동학대, 아동발달, 놀이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법 등에 대해 배우며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동발달, 양육방법,

13) 베이비뉴스(2020. 8. 14). 여가부, 내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모집 시작.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81> (2021. 6. 6. 인출)

14)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jeonju.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435C436/A/18/view.do?article_seq=60006&cpage=1&rows=10&condition=&keyword= (2021. 6. 6. 인출)

15) 중앙 및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600221.jsp (2021.5.30. 인출)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별 및 집단으로 부모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장난감도서관 같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서적, 놀잇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영유아들이 방문하여 놀이할 수 있는 놀이실을 제공하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237개소가 있다. 센터가 미설치된 일부 지역의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공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여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균형 있는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위의 서비스 외에 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지역사회 수요와 특성에 맞춰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특화 사업으로 ‘아빠육아 통합지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운영 중이다¹⁶⁾. ‘아빠육아 통합지원’ 사업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돌봄정보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육아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선배 양육자를 보육반장으로 선발하고 자치구별로 4~10명을 배치하여 육아 자원을 수집·관리, 육아상담,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가구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부모 자조 모임 지원, 보육반상회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에는 총 144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각 구별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책자’로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서울시는 SNS 활용을 선호하는 부모세대의 특징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자치구 특성화 사업을 [그림 II-4-3]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물적 자원 내용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부모 자조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자치구 사업으로 ‘함께키움 공동육아’¹⁷⁾를, 중랑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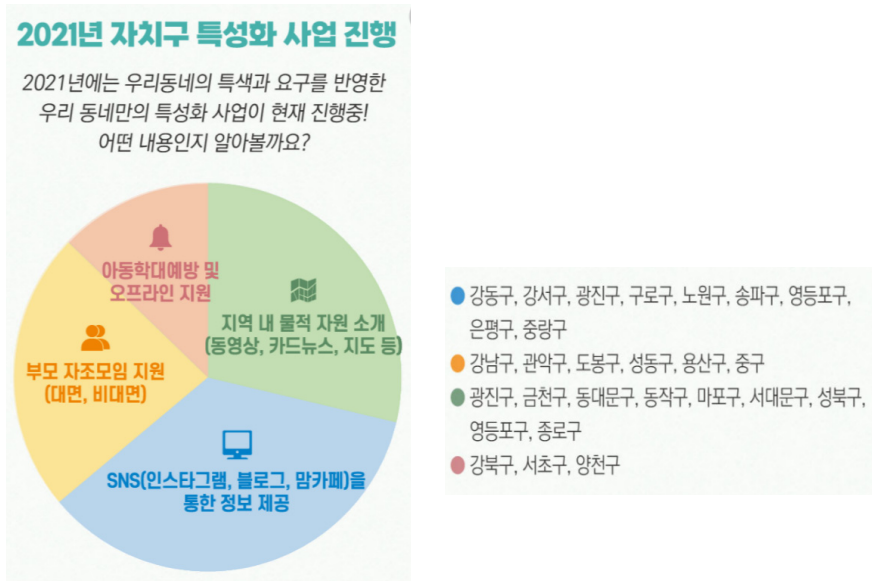
16)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 (2021.5.30. 인출)

17)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youngua.seocho.go.kr/yua/> (2021.5.30. 인출)

‘등하원 도우미서비스’¹⁸⁾를 운영한다. ‘함께키움 공동육아’에서는 품앗이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 계획을 제출하여 선발되면 공동육아 활동비 지원, 도서 및 돌봄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는 구에서 인증한 도우미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등하원 도우미를 양성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하원 도우미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4-3]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특성화 사업



자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childcare.mnz.co.kr/7748> (2021. 6. 6. 인출)

5.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바단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바단’은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 100명을 선정해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모임”이다¹⁹⁾. 2011년에 창단된 100인의 아바단은 “멘토단이 주는 미션인 야외활동 놀이, 음악활동 놀이, 요

18)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jccic.or.kr/2018/sub37.php> (2021.5.30. 인출)

19) KBS(2017. 3. 29). 육아 대디? 프렌디?...아빠들이 달라졌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3453767> (2021. 6. 6. 인출)

리놀이, 교육놀이, 형제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20).

가. 활동 프로그램 소개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은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11년 시작되었다.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 100명을 선정해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모임이다.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면 아빠단은 멘토단이 주는 미션인 야외활동 놀이, 음악활동 놀이, 요리놀이, 교육놀이, 형제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20).

나. 모집방법

‘100인의 아빠단’은 초보 아빠들로 하여금 육아방법과 육아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아빠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1-2018년에는 매년 100여 명이 참여하여 활동해왔고, 2019년부터는 100인의 아빠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하였고, 시기를 달리하지만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서울, 대전, 충남, 제주 각각 50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각각 100명을 모집하였다. 3-7세 자녀를 둔 초보아빠가 응모 대상이며, 선발된 초보 아빠들은 5개 분야(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를 중심으로 아동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육아 과제를 매주 자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이 주어진다.²⁰⁾

〈표 II-5-1〉 100인의 아빠단 신청과정

구분	주요 내용
모집 시기	매해 5-6월경
모집 지역	전국 17개 시도(2019년 이후)
모집 연령	자녀연령 3세-7세

20) 연합뉴스(2019.05.31.) 초보아빠 육아모임 '100인의 아빠단' 전국 확대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044800017\(2021. 3. 18 인출\)](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044800017(2021. 3. 18 인출))

구분	주요 내용
활동 내용	연령대에 따라 주어지는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과제를 아이와 함께 수행하게 됨

다. 활동내용

100인의 아빠단의 운영은 공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은 2011년에 시작된 100인의 아빠단이 10주년이 되는 해로 ‘100인의 아빠단 10주년, 초보 아빠가 육아 달이니 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빠들의 육아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하는 공동육아와 같은 개념으로 함께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빠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II-5-2〉에는 100인의 아빠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간 미션의 예시를 담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에 관련된 주간 미션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간 미션 이외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토크콘서트’ 등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한 지역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하는 아빠들과 자녀들과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II-5-2〉 100인의 아빠단 주간 미션예시²¹⁾

구분	주요 내용
놀이 미션	- 파스넷 놀이: 그리기, 붙이기와 함께하는 오감 만족 - 신나는 풍선놀이 - 신문지를 이용하여 상상의 나라 펼치기
교육 미션	- 아빠랑 아이랑 모양을 배우는 시간 (칠교판) - 스마트렌즈 활용. 우리아이 똑똑하게 교육하기
건강 미션	- 아빠와 함께 하는 방콕운동회 - 장애품을 넘고 아빠산을 정복하라
일상 미션	- 미니 계란 후라이 만들어 먹기 - 코로나 극복, 일상 힐링 홈 여행가기 - 헤어스타일리스트의 머리손질
관계 미션	- 아빠와 함께 그림일기 그리기 - 사랑한다면 말해요 - 오늘 기분이 어땠어?

자료: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2021. 5. 31. 인출.)

21) 100인의 아빠단 공식 홈페이지 -> 서울/대구 100인의 아빠단 게시판 -> 주간미션 인증 페이지.

[그림 II-5-1]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자료: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2021. 5. 31. 인출.)

[그림 II-5-2] 100인의 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일부



자료: 보건복지부(2021). 100인의 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p.1, p.5.

III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사례

- 01 국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 02 국외 육아문화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동향
- 03 소결

Ⅲ. 가정과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사례

본 장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과 체계가 조성된 국내 및 국외 사례를 담았다. 국내 사례로는 육아지원의 전달체계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육아문화 조성사례를 정리하고, 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외 사례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는 체계와 환경이 잘 마련된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 사례를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성평등 육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국외 출장이 불가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육아 지원 관련 제도, 육아친화적으로 조성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국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례

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²²⁾

1) 육아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현장에서 느끼는 최근 육아지원현장에서 체감하는 육아문화 양상은 이전의 육아양상과는 많이 다르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는 힘든 일이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등의 느낌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현재의 육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육아를 하는 아버지들의 모습,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논의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하였다. 육아가 화제가

22)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00센터장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면담일시 2021.9.16.)

되면서 현재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동학대 등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관심받지 못하던 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 간에 아빠들의 양육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스컴의 역할이 되게 크다. 저희가 ‘안녕 프로젝트’라고 우리 아이 학대로부터 안녕 지키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센터장]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요즘의 어머니들의 경우 인터넷 등을 매체로 하여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양육의 시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와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똑똑한 애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문화들이 생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그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하고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해 보라. 또는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게 무엇이야. 사람의 존중과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양육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동네 보육반장’ 이었다고 생각하고.

2)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소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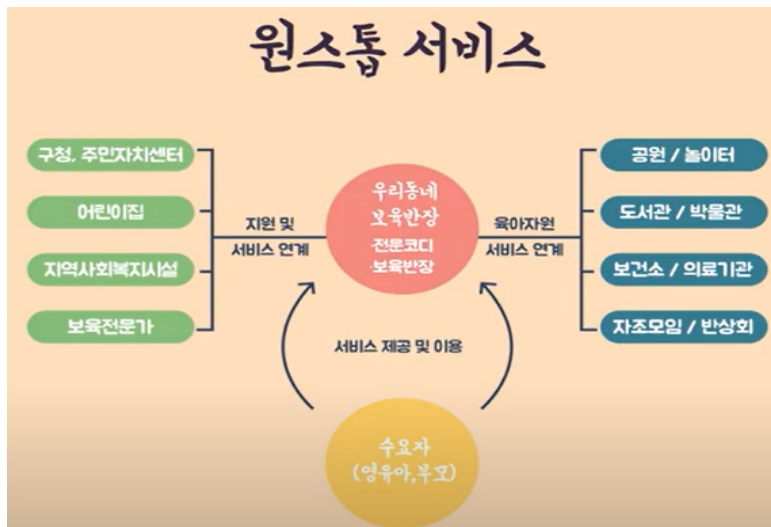
보육에 많은 양적인 제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서비스를 체험하기 어렵고, 순간순간 육아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끼리 만나게 해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p.4).

〈표 III-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부모들에게 맞춤형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사업 내용	- 육아지원 수입 및 체계적 관리 - 맞춤형 육아 정보 및 상담 제공 - 부모 자조모임 및 보육반상회 실시	
사업 주체별 역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운영 계획수립, 총괄 및 관리 - 사업 운영매뉴얼 개정 및 보급 - 전문보육코디네이터 교육 및 회의 - 보육반장 양성 전문 교육 및 사업홍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운영 계획수립 - 보육반장 모집 및 채용 - 보육반장 업무 및 복무관리 - 사업운영 및 사업운영 보고 - 회의 및 교육 참석 및 사업 홍보
	보육반장	- 육아 자원 수집 및 관리 -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 현장 활동 및 기타(정기 모임 및 교육 참여 등)

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3

〔그림 III-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모형



주: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안내.
http://seoul.childcare.go.kr/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 (2021.10.10. 인출)

부모들끼리 서로 이제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너만 힘든 게 아니구나. 뭐 같이 힘들다'고 공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자조 모임처럼 자주 모임으로 서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주선하는 역할을 보육반장이 했었거든요.

대면활동 제한으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활동이 저조한 상태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등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보육반장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직접 어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보육반장의 활동이 조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의 대체방법을 찾고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서울시 전체에 현재 1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교육이나 매뉴얼 배포 등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 및 채용을 제공하는데, 구마다 약 4~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 전역에 14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예산 배정을 좀 더 해주면 좋는데 그게 안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주 1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정말 기본 시급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50몇 만원 정도 받으세요. 용돈 하는 정도로만.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만 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한 번 써보면 계속 쓰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연말에 성과 보고 할 때 사례를 하다 보면 진짜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서비스는 출생 등록할 때 동의를 받아, Push Services로 발달 시기에 맞추어 육아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각 주민센터 전입/출생신청서에 동의를 받고 동의한 부모의 연락처를 동사무소에서 보육반장한테 보내주게 된다. 이를 위해 보육반장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홍보를 하고, 공무원의 협조에 따라 동의정도가 달라져 주민센터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다.

3) 아이조아 아빠교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변의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아빠 교실을 운영을 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부모교육 강좌를 진행하였고, ‘부모교육’에 잘 참석하지 않던 아버지들이 ‘아버지 교육’이라고 하니 참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아버지 대상의 교육 강좌를 개설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파악하여 기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처음에 아빠교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인사팀에, 가족친화기업 인정에 도움 되는 점 등을 홍보하고, 빌딩마다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그러한 노력

으로 점심시간에 한번 강좌에 80-90명 정도 참석하는 큰 규모로 발전하였다.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직장에서 육아얘기를 하는 것이 낯설던 시절이었으나, 현재는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거나 부모교육을 듣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아빠 어디가’ 막 시작할 때예요 거의. 이럴 때 봄이 일어날 때 아버지 교육 같은 걸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빠들이 그때만 해도 ‘누구 좀 직장에 동료들 같이 모시고 오세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던 때예요. 아빠들의 생각이 진짜 급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메스컴의 영향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들이 아이 보는 게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문화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점심 강좌가 원래 있었어요. 부모 점심 강좌보다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데 아빠들이 부모에서는 안 오는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 한 번 할 때마다 막 80명 90명 이렇게 왔어요.

그 후로는 부모교육을 온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대상의 자조 모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00명 정도 모인 부모교육 강의에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아버지들끼리 그룹을 결성하여 자조모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교육 및 자조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을 즈음에 중단이 되었고, 점심시간에 아버지 대상의 교육 및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한 6명이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 얘기 서로 이렇게 잘 꺼낼 수 있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면서...나중에는 자기네끼리 모임을 스스로 모이고 퇴근 후에 공간을 써도 되냐 점심시간에 써도 되냐 이렇게 되게 운영이 잘 돼서 막 엄청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표 III-1-2〉 아이조아 아빠교실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 제공 및 육아소통의 장을 마련 -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으로 육아효능감 강화		
아빠교실 구분	아이좋아 아빠교실	-유형: 강의형 교육 -운영방법: 월 1회, 점심시간 중 실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빠랑 노는게 제일조아	-유형: 소그룹 워크숍 및 자조모임 -운영방법: 격주 및 매주 점심시간 중 실시	
	아이좋아 놀이교실	-유형: 참여형 교육 -운영방법: 센터별 상이하나 센터별 3-5회 실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3개소

주: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4) 공동육아방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또 다른 가족과도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전화 자체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문자로. 또 열린 육아방, 공동육아방이라고 동네 좀 쉽게 얘기하면 국립 키즈 카페 같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육아중에 있는 그 체험실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비어 있는 관공서에 지금 15평 이상 요거 이상만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조그마한 놀잇감들이렇게 갖춰놓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장소,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육아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고 있다. 부모가 전전공공하면서 독박육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상황의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동육아방이 설치되고 있다.

〈표 Ⅲ-1-3〉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구분	내용
목적	‘공동육아방’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장소,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자녀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내 돌봄공동체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고자 함.
사업배경	‘17년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으로 ‘열린 유아방’ 설치 지원.
대상	신규 확충 및 기존 공동육아방 (열린육아방)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양육자 (부모 포함)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육아정보 제공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공동육아 활동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이용시간	월~금 9: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기타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배치 - 공동 육아방 운영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 참여형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격요건)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 (중립 가능한 경력만 인정)

주: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서초구, 중랑구, 노원구 등에서 대표적인데, 서초구에서는 놀 수도 있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도 있는 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노원구는 아파트 1층을 임대하여 공동육아방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공동육아방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로 관리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민 단체 등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21년 4월 시점으로 중랑구 10개소, 노원구 8개소, 동작구 7개소 등 총 6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육아방 전담인력도 배치하여, 관리와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

5)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가정 내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할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지원을 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별 양육 상담이 인기가 많은 편이며, 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이를 상담소로 데리고 가거나 하여, 아이에 대한 발달 정도도 알려주고 지금 자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등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맞아 부모들은 정말 맞춤형을 원해요. '지금 우리 애가 몇 개월인데 우리는 이런 특수성이 있고. 근데 내가 이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맞춤형의 육아 정보 맞춤형의 육아 지원 또는 상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아요.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 자녀에 대한 지적 발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부분 및 육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인식 등에 대해서, 개별상담과 서울시 보육반장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및 부담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및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 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아버지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인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짧은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바꿔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 몇 년 간에 아빠들의 양육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빠 어디가가 엄청난 큰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가 바뀐 게 보이더라고요. 프로그램이 000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군요. 처음에는 아들에 대해서 권위적인 아버지였는데.. 여러 번 진행하면서 딴 사람의 육아를 보잖아요. 거기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녕 프로젝트- 우리아이 학대로부터 안녕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더 이상 한 가정의 일로 덮여지지 않고,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인식을 바꾸어 행동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차원이다.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점차 인식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양육 문화나 아이들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²³⁾

1)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가정 내 육아문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육아를 하는 가족이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세심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퍼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주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파악한 정보를 웹진이나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 개선이 계속 진행되어야 가정 내 문화 조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 내 육아에 변화를 주기 위한 문화 조성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계속 주지 않는 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져요.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친화인증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족친화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 대상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도록 모듈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제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을 위한 지표에서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몇 퍼센트가 휴직을 갔는지, 휴직 이후의 복귀 등을 체크하는 등을 포함하였고, 올

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00본부장과 000부장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면담일시 2021.9.14.)

해 발표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해 중시되었던 요소가 예전에는 ‘유연근무제’ 실시를 장려하는 위주였다면, 이제는 돌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녀돌봄’, ‘육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규정을 확대시키는 부분과 함께 이러한 규정을 실천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전환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저희도 사례 관리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해보면 정말 규정으로 되어져 있지만 차별받는 상황이 참 많다는 걸 실제적으로 많이 봐서...

2) 마을이 키우는 아이, 함께 자라는 돌봄공동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 간 교류로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돌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민간주도형 돌봄 공동체로 시작되어, 작년(2020년)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3년 동안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와 별개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는 전액지원을 했으며, 올해(2021)년부터는 중앙비:지방비 매칭으로 50:5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 공동체 사업에는 중간조직, 즉 지역의 센터가 있는데, 센터마다 돌봄 공동체를 관리할 사람 전담 인력(코디네이터)이 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돌봄공동체 컨설팅트를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고, 매뉴얼이나 기타 관련 교육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간한 돌봄 공동체 사례집은 공동체마다 돌봄공동체를 누가 돌보는지, 모임장소, 코로나 시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으로 돌봄 공동체마다의 특색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표 III-1-4〉참조).

〈표 III-1-4〉 돌봄 공동체 사례집 소개

	내용	돌봄 공동체
1. 누가 돌볼까? 누구나 돌본다!	①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전주시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
	② 엄마의 경력 잇기, 경력 쌓기	전주시 나뉘드림
	③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 보안관	세종시 새샘마을6단지 경로당
	④ 이주 여성들의 직장은 마을 사랑방	광주시 서구 한누리꽃담
	⑤ 아빠랑 놀자	구로구 개개맘
2. 오늘은 어디서 놀다 갈까?	① 아이들의 두꺼비집, 공동육아나눔터	전주시 동글동글통통
	② 콘크리트에서 자란 작은 책의 숲	광주시 남구 숲속작은 도서관
	③ 책방은 우리 가족 놀이터	마포구 개똥이네 문화놀이터

내용		돌봄 공동체
3. 코로나시대 건너가기	④ 아파트는 우리 학교	세종시 새샘마을 공동체 채움
	⑤ 새싹처럼 농촌에서 자라는 아이들	완주군 손가락 공동체
	① 코로나19를 이기는 주문, 신비금비단비!	대전시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② 지구도 생각하는 마을 학교	대전시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③ 도서관이 있어 다행이야	광주시 남구 방젓골장난감도서관
	④ 같이와 가치	광주시 동구 동구엔딩아스
	⑤ 특별한 배움, 든든한 일상	마포구 토끼똥 공부방

주: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마을이 키우는 아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목차

3)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

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업 방향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족친화적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도움을 주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인증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많은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안착되며, 기업문화 개선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CEO나 조직 안에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자리는 잡혔어요. 잡혔는데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하는지는 아직도...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니깐 그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하고 또 중소기업, 중소 안에서도 또 소상공인들도 또 다르고 이 편차가 있어서 저희도 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걸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려고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제도 도입을 해주는 위주의 컨설팅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내용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하여, 올해 육아친화적 기업문화, 성평등한 기업문화 등에 대해서도 모듈을 만들어 ‘가족친화’의 내용 중심의 접근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규모에 맞춘 제안도 필요하여,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족친화 내용 등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도 대부분 다 기업주 위주인 거고 그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해주는 인센티브였다면. (중략) 역시 이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근로자가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한, 가족친화기업을 진행 중이고 기업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바가 없는 것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 내에 있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끼리 협약을 하여, 서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인증기업을 다니면 제품을 10%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인증 기업에 근무하고 싶지 비인증 기업을 찾아가지 않겠다...느끼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커피숍하고 제과. 다 엮어서 인증기업의 사원증을 들고 가면 그 커피숍에 가서 10% 할인을 받는 거예요. 또 충남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지자체 안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 안에서 움직여야 조금 더 밀착된 체감이 와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하여 인센티브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에 있는 인증 기업끼리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부분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협의체가 분기마다 광역 회의에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벤치마킹을 하여 여러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관기관 사례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에서 발전하여, 인증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참여로 그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사례들이 보인다. 각 지역마다 가족의 특성이 다르고,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취지로 지역에 있는 가족친화기업과도 협력하여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2020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사업’에 제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에는 한부모 가족이 많은 편인데, 한부모는 대부분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모두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방학 때 계속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돌봄공백이 지역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역사회에서 여러 자원을 연계한 사례이다. 먼저,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시 대학생의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학습도움 및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또한 인천의 가족친화 기업 중 어떤 기업에

서는 물품을 제공, 또는 식사 제공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천 사례 외에도 기업과 지자체의 자원과 요구에 맞추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 및 가족친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을 진행하였는데, 전남의 사례로는 자연 재해가 생겨 가족친화기업의 물품기부 등으로 수재민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곳은 가족친화기업의 CEO가 물품을 기부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지역 기업들이 사회공헌 하듯이 모아 지역사회의 가족친화를 위해 제공하기도 하였다.

4)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위에서 언급한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은 지역사회의 특색, 자원, 요구에 맞는 사업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 지역에 돌봄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각 지역에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를 결성하여, 전국에 14개를 운영 중이다. <표 III-1-5>에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운영현황을 설명하였다. 보통은 여성가족재단, 일자리진흥원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MOU를 맺는다고 하였다. 지역별로 지역의 적극성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충남이 추가가 됐어요.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직 직군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사업증도 없고 명함도 없다 그래서 앱 개발을 했대요.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면 자기 가 사원증이나 이런 게 없어도 앱에서 연동되게 해서 나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의 근로자다. 라고 뜨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체감하는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지자체가 대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기관별로 밀접하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표 III-1-5> 2021년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운영

구분	내용
추진 배경	○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실증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 자발적 협력체계 필요
추진 방법	○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한가원) - 지역 유관기관 협약(MOU)
활동내용	○ 정기회의를 통한 지역 별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사업소식 공유 ○ 포럼, 홍보, 교육 등 기관 간 협업사업 전개

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끊임없이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지자체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사례나 방법을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에서 알려주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가족친화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CEO의 인터뷰 등이나, 일가족 양립이나 가족친화 제도적인 것들의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등으로 우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인식을 바꾸어 가는 방식이다.

인식이 바뀌어서 하지 않는 한.. 이게 다 인식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게끔 해주는 걸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에서 탑 다운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위로 올리는 거죠.

5)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가정 내에서의 육아를 위해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 시간을 허락받고 이해 받는 부분도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기업에서의 가족친화 문화가 가정 내 육아문화와 별개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육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는 환대받고 이해받아야 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미혼, 기혼, 유자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고, 각자 생애주기 및 세대가 다르면서 일어나는 이해정도 등에 따라 그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유자녀 중심으로 가족친화 제도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체감이 안 되는 직원들은 또 사실 적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누구는 육아휴직제랑 막 계속 갔다 와요. 자기는 기혼이기는 한데 유자녀가 없고 한 번도 없고 흔적이 없어. '여기서 열심히 진짜 일했는데 왜 나는 뭔가 더 플러스가 없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함께 그들의 인식까지도 아울러야 되는 게 있죠.

하지만, 같은 직장, 같은 제도 안에 있는 직장에서의 차이는 그 갈등을 더욱 느끼게 될 수도 있기에, 최근에는 '가족친화적'이라는 표현 안에 '육아'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일·가정양립 차원에서 1인 가구여도, 자녀가 없어도 가족으로서의 삶을 인정하는 포괄적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족

의 다양성 측면에서, 미혼모 가정, 재혼 가정, 한부모 중에서도 이혼가정, 사별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접근하고, 혼자 1인 가구까지도 가족친화제도를 어떻게 컨설팅할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아이돌봄 자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은 만족도가 높으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의 입장에서도 시스템과 맞물려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의 고도화, 정교화로 인해 부모가 육아 및 돌봄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게 된다면, 육아존중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를 논할 때, 지역 간의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친화사업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에서의 가족 친화에 대한 개념과 지방의 그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 제도 등의 가족친화제도도 일부 지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친화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자신이 가족친화기업에 속해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고안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많은 영역에서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족 친화 확산협의회에 점점 비중을 두어 각 지역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제도, 혜택, 사업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육아문화를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돌봄공동체 사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도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가족이 만나 함께 돌봄을 하고 그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²⁴⁾

1)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실제로 부모들을 만나보면 아이를 잘 키우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고 다양한 육아서적과 미디어를 참고하여 양육하지만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육아지식을 선별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체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부모들이 정확하고 전문적인 육아정보의 제공 받고, 부모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상담, 공통 부모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부부의 양육 참여에 관해서는 과거 세대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며 아빠의 역할이 확장되었고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변화한 역할에 맞춰 아빠들에게 필요한 육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빠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과거에 가부장적 태도를 취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정서적으로 아쉬움을 느낀 세대가 부모가 되며 아버지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기대하고 권유하고 있고, 아버지 교육에 참여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순히 아빠가 엄마를 돕는,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이 아니라 아빠가 주도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안내하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해요. 저희 센터에서는 '아빠 놀이창작소', '아빠가 선생님이 되는 독서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더불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이 많아졌고 양육방식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는 등 가족 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실제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아 센터에서는 일반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에 조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조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체감했다.

조부모의 경우, 조부모 교육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넓은 시각으로 조

24)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000센터장과 000보육전문요원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면담일시 2021.9.10.)

부모 역시도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의 운영방침이 수정되고 안내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부모 교육을 부모교육의 유형 중 하나의 교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키즈존(no kids zone)의 등장이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단적인 예이며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번져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고조되는 것 같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육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육아하는 가정이 응원 받고 격려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 ‘행복가족 사진콘테스트’, ‘가족 운동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육아 공동체로서의 소속감, 육아공동체의 응집력이 높아지고 육아 공동체로서 존중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동시에 육아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생긴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소수 부모들의 잘못 형성된 양육태도에 있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양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일례로 센터의 ‘놀이체험실’을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부모들이 놀이 방법에 대해 알아가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센터의 역할을 가정 양육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함께 육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센터를 포함한 지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지를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연구는 2019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해온 연구로, 육아친화마을의 지표를 1) 철학과 가치, 2) 물리적 환경, 3) 서비스 인프라, 4) 인적참여 네트워크로 나누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남구에 거주하는 부모 207명과 전문가 집단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남구의 육아친화 현황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부모 조사

결과, 육아공동체를 위한 공간 부족,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불편한 보행도로, 주변의 유해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아버지 교육이나 취학 아동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도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센터에서 아버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학 전 아동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던 그림책도서관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부모와 전문가 집단의 공통 지적 사항인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유아차나 자전거가 다니는 센터 주변 보행도로의 턱을 없애 육아친화적인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자(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센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시설을 정비하는 등 부모들이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나왔던 개선 필요 사항을 남구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센터가 지자체의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지방선거를 올해 실시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친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혼자만의 힘은 절대 안 되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부터 하자 해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캠프에 전략 짜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고... 꼭 남구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울산시 전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광역시 의원님께도 전달했어요. 9월에 지역사회 보장 대표위원장 회의가 있는데. 이 날 가서 보고서 가지고 지금 좀 안내는 또 할 생각이구요.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 공통 사업뿐만 아니라 <표 III-1-6>과 같이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 울산 남구 센터의 특화 사업이나 부모 만족도가 높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II-1-6>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구분	사업별 내용 소개
1	부모키움 인문학교실(자체 부모교육) -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표현하여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함. 또한 인문학교육을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의·식·주 분야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인문학적 성장을 돕고, 가정 내에서의 생활과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제공함
2	얼씨구! 절씨구! 가족 전래놀이(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특강) -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 교육을 제공함

구분	사업별 내용 소개
3	가족상담 -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가정 내 어려운 점, 고민거리 등을 상담
4	아빠놀이 창작소 - 우리 아이와 어떻게 놀이해야 할지 고민인 아빠들에게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1~2회기]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아빠와 아이의 자아존중감 [3~4회기] 영역별 놀이: 실내놀이, 실외놀이 [5~6회기] 영역별 놀이: 전통놀이/규칙이 있는 게임, 양육유형 검사와 해석/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계획 세우기
5	아빠가 선생님이 되는 독서교육 - 독서치유이론, 독서기능, 연령에 맞는 상황별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독서지도 방법을 습득하는 독서상담사 과정을 진행함.
6	영유아 도서 바로알기(가족참여교육) - 연령별 도서, 선정된 도서와 활동으로 연계하여 영유아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7	도담도담 책놀이터(6~7세 영유아) -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본 센터 이용자 어머니가 강사가 되어 진행함.
8	그녀들의 품격(엄마 힐링 글쓰기) - 글쓰는 활동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고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9	초등 저학년 그림책도서관 이용(시범사업)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도서관 이용(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10	기후 환경 교육 - 기후변화의 정의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제공

주: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부모(가족)상담

부모상담은 센터에서 부모의 수요가 가장 많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최초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모상담이 자녀의 발달상황을 진단해주는 검사에 초점 맞춰졌다면, 가족상담은 가족 간의 관계 형성, 의사소통 형태를 확인하고 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육이 주양육자뿐 아니라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전제아래 가족 문제를 가족 공동체 단위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러 가정에게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가족 당 5회기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가 높아 가족상담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상담이 영유아 발달 체크에만 초점 맞춰져서 ‘우리 아이가 조금 높은 아인가?’ 이것만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는 데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한 가족에게 주 5회기 상담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만 발달 검사하고 상담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이 변하면 아이들은 3회기만 해도 아이는 행동이 변화해요.

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뿐 아니라, 교육·보육 기관과 연계하여 부모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아이들 발달상의 문제를 부모에게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감안하여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부모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진단받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원에서 ‘당신 아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가 기관 연계 상담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추천을 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원에 와서 상담하면 어머님들이 편안해 하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하기 불편한 거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객관화해서 말씀드리니 어머님들이 거부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기관 연계 상담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취약 보육 지원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 아이들 발달상황을 진단하고, 부모들에게 전문 상담 제공하며, 교사나 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부모교육

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 부모-자녀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특정 요일에는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편성 하는 등 다양한 가족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코로나로 직접 기관에서 대면으로 공통 부모교육을 하기 어려워지자 현재는 비대면으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빠놀이창작소’와 ‘아빠가 선생님이 되는 독서교육’은 아버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빠놀이창작소’의 경우, 아빠의 양육유형에 대해 검사하고,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와 놀이하는 방법, 아빠와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대해 배우며, 영역별로 실내외놀이의 종류와 방법, 규칙이 있는 게임 놀이 방법, 아이와 놀이 계획 세우기 등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아빠 상상놀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빠들이 직접 자녀와 상상놀이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빠들에게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빠가 선생님이 되는 독서교육’은 앞서 언급했던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이 독서교육의 효과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독서지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회기까지 참석 시 독서상당교육 3급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어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4)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

가) 가정 내 육아문화

변화하는 양육문화에 필요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에서의 아빠 역할이 확대되면서 센터 차원에서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 참여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보편화되면서 조부모도 함께 부모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부모 교육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조부모의 참여까지 배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유관 기관에서 조부모교육 관련된 운영 방침이 수정된다면 조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아버지 교육의 경우 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남성들이 한정적이므로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아버지의 육아 역량을 기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책이나 미디어로 배우는 양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양육관이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차원에서 쌍방향 소통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육아하는 가정이 육아공동체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지역사회 내 작은도서관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센터가 속한 지자체나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좋은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울산 남구 센터는 구청의 육아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구청에서도 센터 운영과 사업의 예산 편성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시 장소를 센터 회의실에 국한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울산 건강가정센터 분소를 사용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관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외 육아문화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관련 동향²⁵⁾

본 절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는 체계와 환경이 잘 마련된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 사례를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과 성평등 육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문헌 조사를 통해 네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육아 지원 제도, 육아 친화적으로 조성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가. 독일

OECD에 속한 35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 행복, 비용, 건강, 교육, 시간이라는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가정 중심 순위를 매긴 결과, 독일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국가 7위로 올랐다(Asher&Lyrics 홈페이지, 2020). 독일 정부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염려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할 만큼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왔다(이진숙, 2004; 김영미, 2016). 또한, 독일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우려로 복지 및 가족 지원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이진숙, 2004). 이에 독일을 가정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25) 본 절은 협동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박혜준, 서혜민, 강향미, 송지언)과의 협업으로 구성하였음.

1)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제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2.37명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94년 1.24명을 저점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60명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하였다(The World Bank, n.d.).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3~1.4명 사이를 횡보하던 출산율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출산율 증가의 일등공신은 2007년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본다(이진숙, 김태원, 2014; 정재훈, 2010). 과거의 독일의 가족정책은 돌봄에서의 사회의 역할보다는 가족, 특히 여성 역할을 중요시하는 ‘명백한 가족중심주의(explicit familialism)’ 경향이 두드러져왔다(정재훈, 박은정, 2012; Leitner, 2003; 정재훈, 2013, p.49에서 재인용). 독일은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정책을 실천해왔으며, 노동시장제도, 공공정책, 사회규범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해왔다(헤럴드경제, 2017. 3. 27). 그러나 2007년 부모수당(Elterngeld)을 도입하면서 가족정책을 남성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남성 돌봄 노동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이진숙, 김태원, 2014, p.14).

독일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사회정책을 개혁하며 취업가족을 지원하고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일·가정 균형을 제고하는 등 가족정책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켰고, 출산율 증가 및 아버지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였다(헤럴드경제, 2017. 3. 27). 독일은 1986년부터 유급 육아휴가를 시행하였으나 남성 사용율이 저조하고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자 2001년 연방육아수당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가를 ‘부모시간’으로, 육아휴가급여는 ‘부모수당’으로 변경하였다(남현주, 2020, p.876). 이와 같은 명칭 변경은 “육아가 ‘휴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기여’라는 점과 아버지의 육아참여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남현주, 2020, p.876). 같은 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할당제도인 ‘파트너달’도 도입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2개월 이상 부모시간을 사용할 경우 2개월의 추가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BMFSFJ, 2020).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모시간을 사용한 남성 비율이 2006년에는 3.5%였다가 2011년 말에는 27.3%로 확대되었다(정재훈, 2013, p.49).

또한, 2015년에는 ‘부모수당플러스’와 ‘파트너십보너스’를 시행하여 부모수당을 보완하고, 기존의 부모수당은 ‘기초부모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BMFSFJ,

2016; 남현주, 2020, p.876에서 재인용). 부모수당은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조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조건, 생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거나 주 30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하는 조건, 독일에 거주해야하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BMFSFJ, 2019; 남현주, 2020, p.877에서 재인용). 부모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시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독일 거주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부모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BMFSFJ, 2019; 남현주, 2020, p.877에서 재인용). 독일의 부모수당의 경우, 제도 도입 이전 남성의 양육수당 지급률은 3%대에 그쳤으나, 수당 도입 후 2007년 15%에서 2016년 37%로 상승하여 부모수당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남현주, 2020, p.878).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모수당플러스를 이용한 남성의 비율은 6%에서 12%로 상승하였으나, 부모수당플러스를 이용하면서 4개월의 추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십보너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Samtleben, Schaper, & Wrohlich, 2019; 남현주, 2020, p.878 재인용). 최근 독일에서는 자녀 유년기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다가 자녀 성장하면서 근로시간을 점차 풀타임으로 늘려가는 가족근로시간(family working-time)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7. 3. 27).

2)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와 육아문화

지역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²⁶⁾’이다. 따라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공간과 시설이 얼마나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지역사회의 환경이 얼마만큼 아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의 건축물들은 아동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을 방문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해놓기도 한다.²⁷⁾ 독일의 많은 도시는

26) 두산백과 사전에서 인용.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7924 (2021. 7. 5. 인출)

Kindercafes(아동을 위한 카페)와 MutterZentrum(어머니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는 부모와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놀이 시설이 갖추어진 교류 공간이다. 독일의 또 다른 아동친화적인 환경은 독일 전 지역에 걸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는 버스, 트램, 기차의 이용이 어렵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III-2-1] 독일의 육아친화적 놀이터



자료: Expatica 홈페이지.

<https://www.expatica.com/de/living/family/growing-up-german-raising-kids-as-an-expat-in-germany-100897/> (2021. 7. 3. 인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와 세대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06년 독일은 ‘모두 한 지붕 아래’라는 취지하에 ‘다세대교류센터(Mehrgenerationenhaus)’를 설립하였다(박혜선, 남윤옥, 2016, p.157). 다세대교류센터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내 유대감 형성, 다세대교류센터 안팎의 종사자, 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현재 독일 전역에 약 535개의 다세대교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BMFSEJ, n.d.). 센터는 연간 정부로부터 4만 유로, 지역사회로부터 1만 유로를 지원받아 운영된다(박혜선, 남윤옥, 2016, p.158).

27) 해당 단락의 내용은 Expatic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expatica.com/de/living/family/growing-up-german-raising-kids-as-an-expat-in-germany-100897/>

[그림 III-2-2] 독일 내 지역별 다세대교류센터 분포



자료: BMFSFJ (n.d.). Hauser in Ihrer Nahe.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mehrgenerationenhaeuser/haeuser-in-ihre-naehe> (2021. 6. 20. 인출)

다세대교류센터는 주민들에게 돌봄 문제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개방된 놀이실 등을 아동과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BMFSFJ, n.d.). 또한 ‘다세대 교류’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인과 어린이가 교류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사회 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요리, 미술 등을 하며 돌봄을 받는다(CNA, 2018. 10. 14). 다세대교류센터 외에도 독일 내에는 양로원과 어린이집이 교류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가족센터’의 운영으로 아동이 지역사회 내 여러 이웃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The PR News, 2017. 3. 9).

[그림 III-2-3] 다세대교류센터 내 요리 수업



자료: CNA (2018. 10. 14). 'It's like I'm part of life again': The magic when seniors and kids do daycare together. <https://www.channelnewsasia.com/cnainsider/elderly-childcare-salzgitter-mother-centre-multigenerational-790886> (2021. 10. 20. 인출)

3) 독일 사례에 대한 시사점

과거 여성 및 어머니 중심이었던 돌봄의 형태가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됨을 보여준 앞선 독일의 사례들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나라 가정은 핵가족화 되었고, 개인주의로 인해 작은 가족 단위로 살아간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와 그 가족 더불어 이웃 주민들이 함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는 주변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라 하겠다(이윤진, 2015). 따라서 조부모 세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육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독일의 ‘다세대교류센터(Mehrgenerationenhaus)’의 운영 사례를 우리 사회에도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독일 사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사점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던 가족중심주의 정책이 2007년 부모수당(Elterngeld)의 도입을 기점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 일·가정 균형을 제고하는 가족정책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육아존중문화의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돌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 육아만이 아니라 일·가정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노르웨이

202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성 격차지수는 0.849(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나타났다(World Economic Forum, 2021, p.6). 성 격차 지수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적 임파워먼트와 같이 네 개 분야 지표의 합으로 구성되어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1, p.5). 노르웨이의 0.849라는 수치는 156개국 중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의 뒤를 이어 3위에 이르는 수준으로(그림 III-2-4), 그만큼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1, p.6). 이는 직장 내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 시행, 공직 임명, 정당 직원의 채용,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등 다양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정원, 이세원, 2013). 또한, 2015년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발표한 ‘어머니 보고서(Mothers Report)’에서도 세계 179개국 중 어머니가 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된 바 있다(Save the Children 홈페이지, 2015, p.9). 게다가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Family gap’ 수치의 크기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igle-Rushton & Waldfogel, 2006; 허수연, 2010, p.284에서 재인용)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노르웨이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넘어서서, 여성일지라도 아이를 낳은 후에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리함도 적은 문화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르웨이를 포함한 노르딕 국가들은 ‘아동중심’적인 보육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박언하, 2017, p.514). 이에 더해 보육을 위한 다양한 수당과 환경,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들을 통해 노르웨이 부모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박언하, 2017, p.514). 즉, 양성평등적이고 아동중심적인 노르웨이의 정책 및 제도, 철학들은 가정 내, 지역사회 내의 육아친화적이고 긍정적인 육아문화를 조성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1. 5. 3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p. 307 (2021. 7. 2. 인출)

1)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 제도

노르웨이 가정의 아버지 가사노동 시간은 1일 평균 168분이며, 2021년 기준으로 주요국 33개국 중 4위로 상위권에 속한다(OECD, n.d.) 가사노동은 아이돌봄, 쇼핑, 일상적 가사노동 등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노르웨이 아버지들이 가정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이유로 ‘아버지할당제(daddy quota)’를 꼽을 수 있다(최숙희, 2016, p.46-47). 아버지 할당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21년에는 15주 간 할당제(소득대체율 100%, 19주일 경우 80%)를 실시하고 있다(NAV, n.d.). 아버지할당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Use or Less’ 제도로 자녀 돌봄에 대한 남성의 권리적 측면보다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최숙희, 2016, p.47), 소득대체율 또한 매우 높아 남성의 휴가 사용을 더욱 촉진한다.

노르웨이에는 아버지할당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최대 14일의 유급 결근을 허용하는 ‘Sick child days’ 제도 또한 존재한다(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n.d.). 이렇게 국가와 직장에서 보장하는 제도들 덕분에 노르웨이의 부모는 가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며 육아하기 좋은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있다.

2)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와 육아문화

노르웨이 내의 지역사회 시설이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쉽게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열린유치원’과 ‘어린이공원’을 들 수 있다. 먼저 노르웨이에는 일반 유치원 외에 각 지자체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열린 유치원이 3~5곳씩 설치되어 있다²⁸⁾. 이곳은 각 지자체와 공립유치원이 연계해 관리감독하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어 취학 전 아동과 부모들이라면 여행객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열린 유치원 내에 놀잇감, 책 외에 간단한 스낵과 음료들이 마련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며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열린 유치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부모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다.

Kaiser et al.(2020)이 노르웨이 11개 지자체에서 열린 유치원을 이용한 부모

28) 해당 단락의 내용은 이데일리(2018. 1. 12) 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

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물리적 환경, 직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에 있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린 유치원은 여러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한 예로 노르웨이 트론헤임시에 위치한 Baluba open music kindergarten(Baluba 열린 음악 유치원)²⁹⁾은 0-6세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롭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곳이다(그림 III-2-5). 문화, 종교, 언어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절차도 필요 없다. 특히나 음악에 집중된 열린유치원으로, 시간표에 따라 ‘music collection’을 함께 즐기기도 한다. 언어, 신체활동, 예술과 문화, 자연과 환경, 수와 모양, 인종과 종교,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노래와 음악에 연결시켜 수업이 진행된다.

[그림 III-2-5] Baluba 열린 음악유치원 포스터와 스케줄



Baluba open music kindergarten

Daily schedule

- 9:00 - The doors open for play and togetherness
- 10:30 - Music collection
- 11:00 - Packed lunch
- 11:30 - Play and get-together
- 13:00 - Music collection
- 13:30 - Play and get-together
- 2:30 pm - Cleaning time
- 15:00 - Thank you for today!

자료: Baluba åpen musikkbarnehage 홈페이지. <https://www.balubabarn.com/>,
<https://www.facebook.com/balubaapenmusikkbarnehage/photos/2527534544212454> (2021. 7. 2. 인출)

열린유치원 외에 노르웨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Barnepark)’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 노는 ‘데이케어 놀이터’ 같은 곳이다(Relocation 홈페이지, n.d.). 이곳은 놀잇감이나 가정용품들이 비치되어 있고 아이들을 봐주는 어른들이 있어 부모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며 유치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Relocation 홈페이지, n.d.).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29) Baluba 열린 음악 유치원 관련 내용은 Baluba apen musikkbarnehag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balubabarn.com/>, <https://www.facebook.com/balubaapenmusikkbarnehage>
 (2021. 7. 2. 인출)

Kløverveien Barnepark(Kløverveien 어린이공원)는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³⁰⁾(그림 III-2-6).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근에는 오슬로 지자체의 운영 지원도 받고 있다. 오두막과 작은 놀이기구들도 비치되어 있는 이 공원을 통해 아이들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평일 10시에서 14시 사이에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 시간 정도는 실내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사전등록 절차도 필요 없고 부모들 간의 육아정보 교류도 활발한 열린 유치원과, 아동중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의 예시를 통해 노르웨이의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육아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6] Kløverveien 어린이공원



자료: Kløverveien Barnepark 홈페이지. <https://kloverveienbarnepark.no/om-oss/> (2021. 7. 2. 인출)

한편 노르웨이는 직장 내에서도 육아존중문화가 자리잡혀있다. 김혜정(2018, p.4)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회사의 유휴 공간을 자녀의 방학 기간 동안 놀이 공간으로 제공하여 부모들이 직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

30) Kløverveien Barnepark에 대한 내용은 Kløverveien Barnepark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kloverveienbarnepark.no/om-oss/> <https://kloverveienbarnepark.no/apningstider/>
(2021. 7. 2. 인출)

원한다. 이는 노르웨이가 육아와 직장을 구분 짓지 않고, 육아는 부모 모두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김혜정, 2018, p.4). 또한, 유연한 직장 분위기와 수평적인 문화 덕분에 2013년 익스피디아 국제비교 설문조사에서는 노르웨이의 상사 중 88%가 직원의 유급휴가 사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5). 또한, 평균 출근시간이 오전 8~9시고, 퇴근 시간은 오후 4~5시 사이로 야근이 거의 없어 출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퇴근길에 하원 시킬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5). 즉 회사 내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육아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노르웨이 사례에 대한 시사점

노르웨이 사례를 분석하며, 연구자들은 0.849라는 세계 3위의 성 격차 지수로 나타난 노르웨이의 높은 양성평등의 수준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은 육아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하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한다. 노르웨이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에서 노르웨이 수준의 아버지할당제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가 아플 때 최대 14일의 유급 결근을 허용하는 'Sick Child Days'와 같은 제도는 어느 정도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돌봄을 담당하던 여성,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시장에 뛰어드는 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역할이 강조되는 형태로 가정이 변화하였다(Bianchi, Robinson & Milke, 2006, p.9-13).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정화된 성역할 관념이 깨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이혼율 증가, 재혼가정 증가 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형성되었다(Bianchi, 2011, p.16-19).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육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약 3억 3천 만명의 인구, 51개의 주로 이루어진 국가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는 각 주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어(네이버 지식백과, n.d.) 여러 형태의 육아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미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과 일부 주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 제도

미국은 2021년 3월 2,2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RP: American Rescue Plan)’을 통과시켰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21. 4. 15). 이 안의 주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의 확대이며 이를 통한 근로가구의 아동양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김태근, 2021, p.60). 아동세액공제(CTC)는 아동수당에 준하는 조세제도로 1997년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동일 가구 내 아동 1인에게 매년 500달러의 크레딧을 ‘비환급형’으로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동일 가구 내 17세 이하 아동 1인당 매년 2000달러의 크레딧을 ‘부분 환급형’으로 지급하여 최대 1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김태근, 2021, p.60-62). 지난 3월 통과된 ARP Act의 CTC 확대 조항은 현재의 크레딧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증액(3000~3600달러)하고, 완전 환급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김태근, 2021, p.62). 컬럼비아대학 빈곤·사회정책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ARP Act의 CTC 확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동 빈곤율이 13.5%에서 5.8%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Rolling Stone, 2021. 3. 11).

ARP Act은 아동세액공제 외에도 보육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한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21. 4. 15). 코로나19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감소하고 운영 비용은 증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21. 4. 15). 보육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40억 달러, 보육발전기금으로 15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21. 4. 15). 더불어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이 가족 및 아동의 복지와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미국의 가족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특징

기관 및 프로그램명	특징
Casey Family Programs	아동, 가족, 지역사회의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무료 상담, 빈곤 가정에 서비스제공, 정책제언, 연구 등의 일을 함
Family Support and Well-Being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Early Childhood Learning and Knowledge Center 와 연계하여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 교육의 기회를 지원함

기관 및 프로그램명	특징
Integrated Approaches to Supporting Child Development and Improving Family Economic Security	Mathematica Policy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가 연계하여 아동의 발달과 웰빙을 위해 가족의 경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임. 부모가 일자리를 얻거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지원을 함
Zero To Three	신생아와 영아기 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임산부와 초보 부모를 위해 자녀의 건강과 발달, 교육, 학교 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료: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Family Support Policy and Program Approache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upporting/support-services/policy/> (2021.7.21. 인출)

2)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와 육아문화

미국은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각 주와 지역마다 다양하다. 비영리 국가기관인 Generations United³¹⁾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이들은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 간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Generation United의 2016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Saint Ann's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Care는 Wisconsin 주 Milwaukee 시에 있는 세대 간 통합센터이며, 1983년 St. Ann Adult Day Care로 시작하여 1999년 St. Ann's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Care로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³²⁾.

St. Ann's Center는 모든 연령대에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로써, 아동과 성인이 같은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부센터와 남부센터로 나누어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t. Ann's Center의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

31) 미국 정부의 비영리 국가기관인 Generations United는 지역센터, 학교, 복지관 등의 공간을 통해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Generations United 홈페이지, 2021). Generations United는 세대 간 연결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노인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편성하는 등의 프로젝트 활동 지원하고, 미국 전역과 전세계의 지역 프로그램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중앙센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32) St. Ann's Center 내용은 St. Ann's Center 홈페이지를 참고함.
<https://stanncenter.org/about/>, <https://stanncenter.org/about/history/>,
<https://stanncenter.org/children/> (2021.7.1. 인출)

으며, 대상 연령은 생후 6주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다. 각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 지원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와 차량운행을 제공하는 등교 전 프로그램과 간식 및 차량을 제공하고 방과후 숙제를 지도하는 등교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그림 Ⅲ-2-7] 미국 St. Ann's Center



자료: 미국 St. Ann's Center 홈페이지. <https://stanncenter.org/children/four-year-olds/> (2021.7.1. 인출)

3) 미국 사례에 대한 시사점

51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의 정책과 제도는 각 주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미국의 다양한 사례 중 일부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사점은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의 확대라는 조세 제도를 통한 근로가구의 자녀양육지원과 2년제 대학의 등록금 무료화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현재 우리 사회 초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아동세액공제 제도가 지닌 보편성과 확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일본

일본은 현재 사망률이 출생률을 초과함에 따라 인구 구조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Nomura & Koizumi, 2016, p.477).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본 여성은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만 낳는다고 한다(Nomura & Koizumi,

2016, p.477). 또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어있고 가족 외의 돌봄인력이나 가사보조 서비스를 쓰는 것이 흔하지 않다(Kobayashi et al., 2016, p.1). 이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많은 일본 여성들 대부분이 적은 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Abe, 2011; Kobayashi et al., 2016, p.2에서 재인용). 더불어 남성이 가사를 돕지 않는 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기 꺼려하고 결혼을 하고 집에 머무르기 보다는 가능한 오랫동안 독신으로 남아 있는 것을 선호한다(Holloway & Nagase, 2014).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양성 평등, 가정과 일의 균형,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³³⁾.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을 세 가지 영역(보육 서비스, 육아휴직 제도, 아동 수당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개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조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를 바꾸는 등 일터를 보다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여성과 부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사회 전반의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1) 육아를 위한 가족 지원 제도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본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용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득이 제한된 부모들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장애아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특별 육아수당도 있다³⁴⁾. 어머니와 자녀는 1965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지자체는 임신 23주부터 임신부와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임 부부를 위한 재정 지원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 최대 5년 동안 체외수정 운영비를 연 2회 15만엔 지원하고 있다.

33) 해당 단락 내용은 UN, East-West Center(2015). Government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Japan. 을 참고하여 작성함.

34) 해당 단락 내용은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n.d.). Social Security in Japan 2014.을 참고하여 작성함.

가정 내 육아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일본은 아직까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장 잘 돌보고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통념을 토대로 어머니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한다(Yu & Kuo, 2018, p.223). 이렇게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므로 육아부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Ryo-sei kenbo (good wife, wise mother)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가 여성의 궁극적인 열망이라는 전통적 이념과 함께 더욱 정당화된다(Yu & Kuo, 2018, p.223). 이에 일본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 내 성 불평등도 예외적으로 높고 여성이 육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Yu & Kuo, 2018, p.223).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돕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가정지원 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버지의 육아참여 독려 캠페인, 아버지의 휴가를 장려하는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Osaka Family Support Center 홈페이지, 2021; Brüning, 2020). 특히 일본 정부는 일중독 아버지에 대한 지원과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의 탈피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육아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I-2-8] Ikumen Project 포스터



자료: Ikumen Project 홈페이지. <https://ikumen-project.mhlw.go.jp/project/design/> (2021.6.25. 인출)

일례로 미디어에서 육아하는 아버지를 'Ikumen'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의 일본어인 'Ikujī'와 남성을 지칭하는 'men'를 결합한 용어이다(Ikumen Project 홈페이지, n.d.). 2010년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시작한 Ikumen 프로젝트는 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세미나 개최, 지역 기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Ikumen Project 홈페이지, n.d.). 이 프로젝트는 일본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 육아하는 아버지를 소재로 한 TV 방송과 만화가 등장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이쿠멘'이 되는 방법',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에 관한 가이드북이 출판되는 등 새로운 아버지상을 지지하는 콘텐츠가 활발하게 생산되었다(Brüning, 2020, p.17).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육아 지원의 확대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육아가정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원도 벌이고 있다(이하정, 2010, p.377-378). 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육아 관련 상담을 받는 등의 다양한 만남의 광장이 제공되고 있다(이하정, 2020, p.379).

2)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와 육아문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부모들은 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족지원센터는 가입된 회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Osaka Family Support Center 홈페이지, n.d.). 센터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0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하원서비스, 이동서비스, 방과후돌봄,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이용자는 돌봄형태에 따라 시간 당 800~900엔(한화 약 8~9천원)정도를 지불하며 돌봄은 저녁 8시까지 제공된다(Osaka Family Support Center 홈페이지, n.d.). 또한, 지방정부는 육아에 대한 지식, 편리한 정보(기저귀 같이 가능한 곳, 수유할 수 있는 곳, 가까운 공원 등)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기도 한다(Setagaya City 홈페이지, n.d.).

3) 일본 사례에 대한 시사점

일본은 우리나라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출이라는 동일한 인구학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캠페인과 육아하는 아버지를 Ikumen이라는 우리말로 ‘육아맨’이라는 친근하고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여, 육아하는 아버지를 일컫는 표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준 점은 육아문화 개서에 대한 사회적 홍보의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육아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육아 친화적 지역사회와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국내 사례

먼저, 국내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는 주체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육아문화에 변화를 주기 위한 요소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실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의 예를 들면 아버지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는 역할들을 강조하고 자녀와 육아를 하는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육아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육아를 부담으로 느끼고 경쟁적으로 자녀의 지적 교육에만 치중하는 등의 문화를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소중한 감정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와 책임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의 즐거움을 느끼는 육아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가정 내에 자녀가 많지 않고, 핵가족화된 사회 속에서 양육의 어려움과 장점을 나누고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 있기 위해 그 공간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공동육아방은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사업은 가정과 가정이 한 주제로 모여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족 운동회’ 등은 육아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가족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를 함께 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아존중문화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에 확산은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나, 직장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거나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과거에서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 등이 일반화되었던 것처럼 가정 내 양육에 변화를 주거나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 육아를 위해 휴직을 다녀오는 모습 등 지속되고 반복되는 모습을 접하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언론을 통하여 육아문화의 달라진 모습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육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맞춤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사용된 ‘육아친화마을 인식조사’ 지표를 이용해 울산 남구의 육아의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했던 것처럼, 각 지역에서의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관련 사업을 지역의 어떤 공간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파악하여 지원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함께 지원하는 육아문화를 발달시킴과 동시에 개개인의 가정의 돌봄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외 사례

국외사례로는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고, 사례 국가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례로 선정된 국가들은 가정 내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부모가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때 가족복지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아동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석원, 이대균, 2014;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향준, 2014).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방해순, 이현주, 2021), 평등한 육아 시간 배분을 통해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고(최지은, 이지원, 김현경, 2021), 장기간 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사회참여가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도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끔 한다(이희정, 1995; 손수민, 2012). 이러한 국외 사례들은 가정의 성평등 육아문화 조성과 일터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사용이 병행되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육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녀 돌봄은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부모들은 부모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부모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그들이 거주하고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부모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가정,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육아커뮤니티 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살펴본 김효정과 박경옥(2021)의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육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간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였다. 가장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아동 놀이 프로그램이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발달에 대한 상담, 부모교육과 아버지 교육, 반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육아 정보 공유 및 제공, 부모들과의 교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하는 부모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육아하는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체계가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부모들의 육아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IV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Ⅰ): 질적조사

- 01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 02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 03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 04 소결

IV.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 질적조사

본 장³⁵⁾에서는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대상으로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육아문화 개선요구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면담 결과를 담았다. 초점집단면담은 연구참여자가 공유하는 가정 내에서의 구체적인 양육경험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육아지원에 대한 인식의 토대는 부모이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에서는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자녀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상호존중의 태도로 면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양육방식과 태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일방향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 연구의 지향점인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1. 가정 내 육아문화 현황

가. 부모의 일과에 따른 육아분담

부모의 직장 출퇴근 여부와 근무시간에 맞춰 자녀들의 기관 이용 유무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이 정해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상대가 자녀를 돌보았으며, 배우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녀 돌봄 및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 역할에 대한 평등한 인식이 가정 내에 자리 잡으면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눈에 띄었다. 맞벌이 부부

35) 본 장은 협동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박혜준, 강향미, 서혜민, 송지연)과의 협업으로 구성하였음.

는 육아 분담이 가장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서로의 일정과 자녀의 일정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육아에 균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희는 상당히 상의형이에요. 누가 이걸 더 잘 할 수 있느냐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했지만 태어나고 나서 육아의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걸 더 잘하면 네가 이걸 도와주고 내가 이거를 더 잘하면 내가 이걸 할게. (유아기 어머니2 C)

애기랑 엄마가 이제 육아에 관한 일을 한다면 저는 반대로 집안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 많이 하려는 편이고, 뭐 제가 애기를 볼 때는 제 아내가 뭐 집안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고 있고, (유아기 아버지 D)

제가 퇴근 후에는 육아를 같이 하고 잠은 제가 재우려 들어가면 남편이 집안정리나 설거지 도와주고 있고요, (유아기 어머니2 B)

집에 오면 아빠가 애기 잠깐 손발 씻기고 케어해주고 저는 집안일을 좀 했다가 쉬고, 저녁 먹고 아빠가 재택근무 끝나는 시간부터 아빠가 애기를 거의 다 봐주고 있어요 집에서. 놀아 주거나 목욕시키거나 이런 건 다 아빠가 해주고 있어요. (유아기 부부 A)

주로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상대가 자녀를 돌보았으나, 대체로 어머니의 경우 직장 근무 유형이 전일제 보다는 반일제가 많아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일을 하는 것과 육아를 하는 것 사이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업주부들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둘 다 맞벌이를 지속하기 힘든 점이 많아서 일단 저희 아내가 파트타임만 하면서 하기로 했고, 제가 아침에는 일찍 출근을 해서 가능한 일찍 퇴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학령기 아버지 B)

사실 반반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내 쪽으로 좀 육아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유아기 부부 A)

육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도와주는 게 거의 전무거든요. 전적으로 지금 와이프가 다 일을 해주고 있고. 그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보통 제 일과가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에 한 2, 3시 정도에 들어와요. (학령기 아버지 F)

이렇게 전업주부에게 육아의 무게가 더 지워지는 듯하나, 부부의 소통과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외벌이 부부 가정에서도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만약 100프로가 있다면 한 30프로? 제가 한 70? 남편이 한 30? 요정도 인 것 같은데. 예 전에는 한 10프로였던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은 저녁에 씻기는 거. 원래는 제가 맨날 씻겼는데 제가 이제는 약간 좀 핑계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씻기고. 새벽에 일어나면 본인이 보는 거. (유아기 어머니1 B)

육아에 있어서 그런 양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엄마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애기가 활동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을 태워주고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이제 다하기 힘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몸으로 맞춰서 에너지를 버닝시키는 걸 제가 좀 해주고 있고. (유아기 부부 C)

1)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육아 분담이 가장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일정과 자녀의 일정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육아에 균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

제가 주도적으로 아빠에게 부탁하고...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분담을 하는데, 대부분은 노는 거, 자는 거 두 가지는 아빠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아이 밥 먹이는 거, 아이 데려다주는 거 그런 큰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어머니2 D)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가사분담은 와이프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육아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요. (학령기 아버지 C)

가정분담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참여를 해요. 아이들을 씻긴다든지 설거지랑 청소랑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은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 퇴근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애들 씻기는 것도 제가 하고, 재우는 것도 제가 하는 편이에요. (학령기 아버지 B)

2) 전업주부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사고의 변화는 육아 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았으나 전업주부의 육아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아 보였다. 전업주부들은 육아로 인해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어렵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좌절감을 경험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

유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엄마가 육아를 해야 한다, 아빠는 돈을 벌어야한다 그런 상황이
구요. (영아기 어머니2 D)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는 도와주는 입장인 거예요
(유아기 어머니1 D)

한 100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나머지 모든
먹이고 씻기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아기 어머니1 A)

이제 집에 오면 항상 아이 자는 모습만 전 볼 수 있고요. 아침에는 이제 애가 어.. 밤에 8시
나 9시에 잠들어서 5시에 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조
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육아는 아내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영아기 아버지 A)

마음으로써는 '아 나도 안 그러고 부탁도 좀 해봐야지.'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다가 그
냥 내가 하고 말지 뭐 하러 괜히 부딪힐까 그냥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중략) 지금도 저도
거의 다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령기 어머니2 C)

나.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의 주말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주말에 도드라졌다. 평일 육아에 참여가 부족한 것을 주말
에 채우려는 노력을 하였고, 특히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어머니에게 혼자만
의 시간을 제공하여 어머니가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었다.

주말은 아이 아빠가 이제 거의 아이들을 올인해서 많이 봐주고 아이들만 데리고 뭐 따로 가
기도 하고 같이 아이 아빠 개인시간 없이 저희 가족한테만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어머니 C)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애기랑 늘 어디를 갈려고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점심 먹기
전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한 한두시 정도때 아니면 오후 네다섯시 정도때까지 둘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요, 요즘은 뭐 비가 주말에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족관이라든지 실
내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뭐 어디 잔디밭 있는 데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런 데 뭐 민속촌
이라든지. (영아기 아버지 C)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격주로 토요일은 출근을 해서 그땐 독박을 하는데 최대한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남편이 있을 때는 저도 코로나지만 밖에 나가서 놀아주는 편이에요 (영아
기 어머니2 A)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쉬니까, 이제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좀 놀려고 많이 해요 오전부터(영아기 아버지 B)

아침 먹고, 토요일에는 주로 집에 있고요. 오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숙제같은 걸 많이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다니는 편이고, 일요일은 거의 집 밖에 많이 있는 편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은 거의 밖에 있어요. (학령기 아버지 C)

주말에는 제가 꼭 아침 식사를 제가 차리고,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애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령기 아버지 B)

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역할분담

가정 내에서 부모는 개인의 특성, 성향, 특기에 따라 자녀 돌봄 및 가사를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돌봄 및 가사가 여성에게 치우쳐 있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부모들은 정해져 있는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제가 요리 잘하는 부분은 제가 요리를 하고 아내가 아이와 같이 놀고, 저녁 먹고 저희는 같이 놀아요. (유아기 아버지 A)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와이프는 설거지 하는걸 더 좋다고 하고 저는 설거지보다는 음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는 주말에 제가 이제 있으면, 제가 음식을 하고 와이프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서 제가 1, 2년 정도는 제가 계속 음식을 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 (학령기 아버지 E)

아내가 힘들면 식당에서도 부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면 설거지는 항상 제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책을 읽어준 다거나 하고 있고, (유아기 아버지 B)

라.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른 육아

자녀와 함께 하는 하루의 일상은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발달 특성상 자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육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와 사회적인 소통을 더 자주하거나 함께 놀이 및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중요시 하였

고,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학원을 등록하여 보내고,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반일제 직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아기는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아주는 게 위주고 아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가장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아기 어머니1 B)

책 읽어주고, 장난감 놀이를 하고, 역할놀이하고 하면서 ... 지금으로선 저희는 학업적인, 교육적인 부분은 아직 교육 시키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 생각해서 지금은 가장 놀이 위주, 최대한 주말에는 이런저런 경험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유아기 아버지 C)

유치원도 늦게까지 애들을 봐줄 수 있어서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사도 하고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초등학생은 일찍 끝나잖아요, 더 봐주지도 않고 하니깐 더 이상 둘 다 맞벌이를 지속하기 힘든 점이 많아서 일단 저희 아내가 파트타임만 하면서 하기로 했고, 제가 아침에는 일찍 출근을 해서 가능한 일찍 퇴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간에 와이프가 애들 등교도 시키고 일을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고 여기까지 와이프가 하고 있고, 저는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까지는 제가 일을 좀 분담해서 하는 편이에요(학령기 아버지B)

마. 육아를 통한 부모의 성장과 육아의 어려움

1) 육아를 통해 성장하는 부모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 삶의 기쁨과 힘을 얻으며 사랑을 깨닫는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얻고 있었으며, 육아를 함으로써 자신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임을 깨달음으로써 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육아는 부모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것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있지만 제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중략) 그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인격적으로 좀 많이 성장한 거랑 사회적인 관점이 좀 넓어진 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2차면담 어머니1 A)

육아는 어쨌든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육아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유아기 어머니1 A)

내가 애랑 놀아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뭐 깎해야 5년? 이 정도 되겠네, 싶으니까 그냥 그때 열심히 많이 놀아주고, 많이 돌봐주고, 사랑 많이 주고 그 이후엔 날 안 찾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지금 좀 즐겨보자 이런 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 B)

애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친구처럼 옆에서 같이, 오히려 제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이 너무 귀엽고 커갈수록 더 예쁘고. 아 그냥 계속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학령기 어머니 E)

좋은 점은 아이들이 그냥 커가는거 보는거 만으로도 좋은 점이 있고 아이들이 엄마 이래서 고마워, 이래서 좋아 그런 말 한 마디만 해주면 그 하루 동안 있었던 게 또 다 피로가 다 풀리고. (유아기 어머니 C)

애를 키우면서 힘든 날도 많지만 저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말 사랑받는 느낌을 제가 주는 사랑보다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아기 어머니 B)

육아를 하며 개인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육아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 개인의 삶도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자녀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아는 부모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늦게 자고 늦게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게 제 일과였는데 아기 낳고는 매일 아침 강제 기상을 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이게 아기 낳고 안 낳고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영아기 어머니1 D)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가 어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유아기 어머니2 B)

내가 아이가 없었으면 과연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아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깨달음도 풍부해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유아기 어머니 D)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요, 저는 “아빠”라는 말 한마디의 책임감이 기쁘고 좋고, 귀찮긴 하지만. (학령기 아버지 D)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갖는 거? 엄마로서의 그런 마음들? 제가 애기를 갖지 않았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희생라든가 사랑? 그런 거를 이 아이를 통해서 처음 느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구나. 내리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E를 보면은 없던 사랑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엄마의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구나. 한없이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준 게 육아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이고. 또 감사하는 맘도 되게 커졌고요 아이를 통해서(학령기 어머니 E)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좀 즐거워지는 면도 있고... 제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어쨌든 같이 잘살고자 하는 그 이제 목표 의식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학령기 아버지 F)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며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결속력이 생기며 한 가족으로써 성장해가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중략)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다 보면은 어쨌든 목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이고, 그리고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정말 정말 많아졌다는 거 (영아기 아버지 C)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우고 저희도 또 약간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서, 둘만 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서로 보고, 둘만 알콩달콩 이런 건 있었지만. 이제 가족이 되면서 이제 저희끼리 사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하고도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그냥 저희 둘에 어른들만 이렇게 보는 것 보다, 아이가 있으니까 훨씬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어른들도 더 기쁨이 커지고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유아기 부부 D)

2) 육아의 어려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다양했는데, 특히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육아에 대한 어려움에서 차이를 보였다.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돌봄 특성상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어린 자녀와의 소통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학교와 학업의 문제, 자녀의 교우 관계에 대한 문제, 방과 후 돌봄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혼자만의 싸움? 대화도 안 되지, 하루 종일 말 못하는 아이와 씨름하는 거예요. 울면 왜 우는지 모르겠고, 웃으면 웃는대로 아 오늘 하루 재밌구나 이라고...(영아기 어머니2 D)

제가 긴장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면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쯤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제가 어디 아프게 되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똑같은 일상을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과부하가 걸리고 제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런 거 때문에 힘든 거 하나랑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또 밤새 케어를 해야 하고, 또 피로누적이 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두 면이 제일 힘들 때는 그 면이 제일 힘들구요. (유아기 어머니 C)

육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학원이나 숙제나 애들 관계 친구 문제, 이런 것들 저는 너무 다, 먹고 재우는 게 뭐 육아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런 게 되게 어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학령기 어머니2 B)

육아를 몇 년간 지속하다보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가 우선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어려운 건 나로 사는 삶이 엄마로서의 삶보다 크지 않다는 것. 제가 경력단절이 6년차거든요. 제 안에 엄마로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던 일 하고 싶어, 일하면서 느꼈던 만족감 행복감도 누리고 싶어. 아이가 주는 행복이 크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것 없으면 이제 삶이 영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내가 나로서 살면서 가졌던 커리어로서의 행복감이 완전히 멈춰지고 도태되고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저하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죠. (유아기 어머니2 C)

저도 일 하다가 아기 낳으면서 그만뒀다가 둘째 낳기 전에 또 일하다가 둘째 낳으면서 또 그만뒀다가 하니까 경력들이 짧고 짧고 하니까 원서를 넣어도 거의 서류에서 탈락이 되더라 고요. 그런 좌절감이랄까요. (유아기 어머니2 B)

2. 지역사회 육아문화 현황

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다양한 서비스

1) 긍정적 경험

부모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 경험을 소개하였다. 민간기업, 교회, 아동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녀 교육을 위한 강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장난감 대여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가)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작년까지는 인공 수정까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고, 올해부터는 시험관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시험관도, 이전에 비해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혜택을 많이 본 것 같고 (영아기 아버지 A)

의료비 지원 60만 원 해주잖아요, 처음에 그거 혜택받아서 부담 없이 병원을 잘, 자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돈 드는 것들이 없이 바로 검사를 받고, 또 진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걸 계속 볼 수 있게 되니까, 또 초기에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거 같고. (영아기 아버지 B)

기저귀 바우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자녀는 기저귀를 거의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기저귀값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니까, 물론 이제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저귀를 사서 아이들을 갈아줬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영아기 아버지 B)

정부 출산 도우미 한 달을 제가 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신생아 봐주시고 식사, 청소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게 음식해주시는 것. ... 도우미 썼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한 달 동안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괜찮았지만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2 A)

나) 영유아기

지역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며 아기마사지 프로그램, 동화책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접할 수 있어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었구요. (유아기 어머니2 C)

지역별로 아이들 센터가 있어서 문화센터가 아니라 공적으로 시에서 만든 센터들이 있어서 장난감을 빌려준다든지 장난감도 다 새것이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중략) oo시는 굉장히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영아기 어머니1 B)

oo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연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습자료를 PDF파일로 보내주고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동요를 같이 부르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영역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신청한 자에 한해서 로그인하고 자료를 받고 엄마랑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뭔가를 줬어요.(중략) 출력만 해서 시키는 대로 놀아주면 시간이 가고 아이도 뭔가 배우는 것 같으니까 그 도움이 되게 컸어요. (유아기 어머니2 C)

그리고 또 솔직히 애들을 계속 집에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잠시라도 저희가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영아기 부부 D)

다) 학령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러니까 식비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애가 둘인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가 세 끼를 차려 먹잖아요. 급식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 좀 덜 한데 (중략) 급식 꾸러미라고, 식자재를 한 번 집에 배달을 시켜줘서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줬는데, (학령기 어머니 F)

내가 어떻게 해야될 지 육아서를 보고도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센터에 가서 일회성으로 상담을 받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상담사분께 2만 원 내고 (웃음) 한 시간의 상담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학령기 어머니2 A)

2) 부정적 경험

면담을 통해 부모들이 지역 사회의 육아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역마다, 센터 및 기관마다 서비스의 편차가 심한 점,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자녀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아쉬운 측면이 많았다. 또한 자녀를 외부로 데리고 나갔을 때 수유실과 가족화장실이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의료시설과 교육 인프라 부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저는 의아했거든요. 인천은 100인데 여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왜 다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쨌든 아이를 낳은 건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과 육아나눔터 이외에 장난감 같은 거도 (영아기 어머니2 A)

어린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있긴 하지만 도보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 D)

아이를 키우면서 수유실과 가족화장실이 부족하고, 나갈 때 제일 걱정 되는 건 아이 기저귀 어디서 갈지?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 밥은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조금 어릴 땐 이유식 데워야하는 상황인데 전자레인지 찾으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영아기 어머니2 D)

유모차 끌고 서울 나가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거의 제 기억엔 승강기를 이용 못했어요. 승강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멀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있는 채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에 정말 불편하구나,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인 배려가 전혀 돼있지 않다. 저 혼자 투

덜거리면서 아내와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2차 면담 유아기 아버지 A)

병원이 소아과같은 경우는 oo군 전체에 2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차로 20-30분은 가야되고요, 그 병원에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처치를 못한다고 하면 oo까지 나가야돼요. 근데 oo까지 나가려면 1시간 정도. 저희 애도 지금 응급실을 2번 정도 갔는데, 둘 다 지역병원에서 처치를 못해가지고 oo로. 그런 위급할 때는 지방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라 아이가 더 크면 교육 인프라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2차 면담 유아기 어머니1 A)

안전적인 부분에서 저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도 신호등이 없어요. 30키로 미만 그거만 있고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제가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봐요, 민원을 넣으려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애들도 손을 들고 주춤주춤 하다가 갈까말까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도심이 아닌 부분은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면담 유아기 어머니 3C)

나.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이웃과의 관계

1) 긍정적 경험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층간소음이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웃의 따뜻한 말과 배려로 인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예쁘게 바라봐주고 긍정적으로 소통해주는 지역사회 주민을 통해 동네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탈 때가 어유 이쁘다, 어른들이 저희 애들이 어리니까, 둘이 다. 손잡고 다니고 하면 이쁘다고 해, (유아기 어머니1 C)

특성상 청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 그런지 아이를 예뻐해주시고 아이가 끼치는 불편한 부분 층간소음, 야간소음 등도 많이 양해해주셨어요. 지나가다 전혀 모르는분이 이 아이가 첫째냐고 물으시더니 둘째 꼭 낳으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유아기 어머니2 C)

사실 오히려 요즘 저는 어딜 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아져 있는 것 같고, 유아 휴게실이나 요런 것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좀 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놓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아기 아버지 D)

저희도 아파트 자체가 노부부거나 아니면 저희같이 신혼부부의 애들, 아이들이 많은 편인 곳이어 가지고, 사실은 크게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따로 없었고, 오히려 저희는 윗집이 조금 시끄러운데, 뭐 우리 애도 시끄럽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요즘 저는 어딜 가도 시설을 보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아져 있는 것 같고, 유아 휴게실이나 요런 것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디를 가도 아이들 이랑 좀 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놓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아기 아버지 D)

그 밑의 집에 가서 제가 선물을 사다 준비했었어요 크리스마스날. 어떻게 해야 할까 해 가지고 편지를 좀 써서 정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조용히 시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애들은 뛰기 마련인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올라오지 않으시고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가지고 손편지를 써서 제가 딸기랑 해 가지고 드렸는데. 너무나 놀라시더니 그 다음날 애기를 선물을 막 이만큼은 사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더 막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유아기 부부 B)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이제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애 키우는 집들이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층간 소음은 다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공감대가 되어 있거든요. (유아기 부부 C)

2) 부정적 인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웃과의 경험은 육아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고, 유모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이웃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한 경험을 한 부모도 있었다.

제일 실생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층간소음이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 시기에, 그러질 못하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의 층이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자그마한 발자국 소리도 이해를 못하고, 이사 오고 나서, 둘째 날부터 항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조금만 뛰어도 조용히 해 주세요, 저희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영아기 아버지 B)

유모차가 되게 환영받지 못해요. 유모차가 생각보다 크고, 휴대용인데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 유모차가 크니까 눈살이 찌푸리는 그런 것들이 많고. 생각보다 유모차가 갈 수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유아기 어머니1 B)

학교에 모임이 막 많아지면서 애를 부득이하게 아기 띠를 안고 가게 되고, 유모차를 몰고 가게 됐을 때 거기서 받는 눈초리가 또 좀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다 아이를 키우셨는데도 아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학교 안의 분위기도 있고. (유아기 어머니1 A)

노키즈존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막혀본 적이, 금지당해본 적이 있고, 써 붙여 놓은 곳은 있지만 안 써놓은 데도 있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대놓고 노키즈존은 아니더라도 유모차 들어오면, 식당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유모차는 안됩니다, 이러면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애기는 어떡하라는...(학령기 어머니2 B)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고 약간 소란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배려 없이? 따뜻한 마음 없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됐고. 어디 여행을 가다가 저희가 노키즈존 식당에 가게 돼서. 그러면 그 포장이라도 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어보고... 좀 그런 점이 애를 돌 키우는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속상하고 하더라고요. (유아기 부부 B)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젊은 세대의 경우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며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눈치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고 자녀를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받았다고 한다.

저는 항상 남한테 피해 안주려고 하루 종일 애를 쓰는 편인데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맘충이 나타났다고 할까봐. 유모차 끌고 카페 문을 여는 것부터가 피해를 주는 것의 시작인 것 같은, 문을 누군가 잡아줘야 하고 아니면 문을 연 다음에 유모차를 넣고 또 다시 문을 닫고 해야 하니까 카페 다닐 때 저는 테이크아웃만 했어도 제일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 A)

젊은이들이 핫하다고 하는 곳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도 이야기하다보면 떠드는 건 마한가지지만 아이들 레벨로 목소리로 한마디만 딱 해도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상으로 아까 말씀드 하셨지만 맘충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들이 세대 차이이기보다는 경험의 유무인거죠. (유아기 어머니 C)

막상 애기를 키워봤다고 해서 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애기가 어리고 엄마가 봐주시다보니 퇴근시간이 되면 마음이 조금해져요. 빨리 퇴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시간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건데도, 야근을 많이 안하다 보면, 애는 일을 많이 안하고 있는 하는 인식이 있고, 애기가 없거나 솔로이신 분들은 애가 있는 걸 유난 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영아기 어머니2 B)

저희 아기가 지금 18개월인데 제가 지금 기관을 안 보내고 가정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주변 엄마들한테 유난스럽고 모성애가 엄청난 엄마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기를 안 보내? 돌 지났는데 왜 아기를 집에서 보고 있냐, 아기 보내고 나면 진짜 편해, 너는 진짜 모성애가 강한가보다 이런. 돌 지나면 무조건 어린이집 보내야 한다는 인식. 내 주변에 어린이집 안 보내는 사람 너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너무 유난스러운 엄마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 같은 시선들...(영아기 어머니1 D)

다. 육아를 통해 확장된 지역사회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함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동네 이웃이지만, 오늘날의 지역사회의 의미는 공간 및 장소를 뛰어넘어 다른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사회를 벗어나 온라인 카페, 조리원, 문화센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과 친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하고 정신적 지원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또 다른 기대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물리적인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적 공동체로 지역사회(social community)로 확대하는 것이다.

1) 자녀를 통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 만난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회사동료, 친구, 조리원 동기, 유치원 엄마 등 오프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듣고, 서로 힘을 얻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육아동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의 가정과 가정이 만나 휴가가면 물론 일 년에 몇 번 보진 못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아내들끼리도 뭐가 좋더라, 안 좋더라 정보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소위 육아를 하며 겪는 아픔이나 힘든 점들을 위로받고 격려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긴 하는데, (유아기 아버지 A)

맘카페에서, 요즘은 동기를 만들기 어렵고 하니까 비슷한 때에 출산하신 분들 오픈카톡방 링크를 만들어서 모르는 분들끼리도 단톡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비슷한 개월 수 애기를 둔 엄마들끼리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처음에 애기를 키우다보면 애기가 돌 때까지 애가 이렇게 크는 게 정상적인가, 애기가 안자는데 이게 맞냐 물어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영아기 어머니2 B)

같은 유치원 엄마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 아이를 봐달라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2 A)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이 더 마음을 터놓고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인간이 많이 됐는데, 그 시기에 저희끼리 고군분투하면서 약간 육아동지, 동지

애가 생겼어요, 학습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활발하게 더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기 어머니 C)

요새 진짜 거의 친구들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리원 동기들이랑 제일 많이 연락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비슷하니까 할 이야기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그래서 거의 조리원 동기들이랑만 연락하는 것 같아요.(영아기 어머니1 A)

2) SNS : 온라인 속 크고 작은 사회들

부모들은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은 맘카페였고, 맘카페에서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였고, 그밖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물품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서로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맘카페를 제가 가입합니다. 그 지역마다 맘카페가 있으면 아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보니까, 거기 아바들도 많이 와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제일 빠른 정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날씨가 이런 데 아이들과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일 빠르고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해서, (유아기 아버지 B)

정보는 맘카페에서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핫딜. 이런 거 되게 많이 받고 되게 저렴하게 사는 것들? 혹은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저희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그런 것들. 어디 병원이 좋은지 이런 것들? 그런 정보를 얻기도 되게 빠르고 좋고 (유아기 어머니1 B)

지금도 맘카페에서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요. 열심히 활동은 못 하지만 아이가 다급하게 입소를 앞두고 영유아 검진을 해야 하는데 예약을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당일에 영유아 검진이 가능한 소아과를 찾아야 하는데... 맘카페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디 소아과 돼요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유아기 어머니2 C)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로 많이 보고, 네이버 서비스 중에 교육, 아기 키우는 육아 관련된 서비스 탭을 하나 즐겨찾기 설정해놓고, (중략) 그래서 미리미리 추천해주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가 찾아봐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영아기 아버지 C)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에서, 또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면 그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취해서 얻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맞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운영하는 어떤 사이트나 그분이 올려놓는 뭐 독서 자료, 그분이 가르치는 성향이 담긴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돼요. (학령기 어머니2 B)

첫째 출산일이 같은 연도에 있어서 우연히 커뮤니티 통해서 알게 돼서 단체 카톡방에서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데, 애기들이 다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다보니까 육아 하는데 시기마다 이유식이나 분유 기저귀 시기가 비슷하니까 도움을 거기에서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아기 어머니2 C)

3.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의 육아문화 개선 요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앞선 면담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육아를 하며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실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현 정책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육아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법적으로는 되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쓰기 어려워요. 이걸 내가 과연 갔다 오고 나서 이 회사에 복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유아기 아버지 C)

실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 군대에서 워라벨 정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한 달에 2주, 4주차는 16시에 퇴근을 합니다. 한시간 반 정도 빨리 퇴근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보면 조삼모사일수 있는데... 수, 목, 금요일은 한 시간 30분을 빨리 퇴근하기 위해 아침 출근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아이를 케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원하는지를 바꿔가야지 (유아기 아버지 B)

아무리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그게 쉽사리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쓰는 거에 눈치가 보이고, 출산 지원금이 다른 부분, 왜 지역마다 차별을 두는가? (영아기 어머니2 A)

회사를 다니다보니까 육아 단축근무가 생겼더라고요. 그거도 초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또 그걸 쓰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원이 되면 애기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기 어머니2 B)

어릴 때와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못 써요. 이제야 한 명씩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자기가 1등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꼬리표가 달린대요. 재 육아휴직 1호 그렇게. 그런 것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아기 어머니1 B)

또한 부모는 육아를 하며 경제적으로 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현실적으로 학원의 이용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 수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2학년 지나가면 아동수당이 없어 지거든요. 근데 학원비는 갈수록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커지는 데에 비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원금액도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 아동수당 10만원. 이게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너무 적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나마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맞벌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학령기 아버지 B)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도 있었는데, 자녀를 출산하고 제공 받는 산후도우미의 전문성 확보, 무상보육으로 보편화 된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길 제안하였다.

산후도우미제도를 해서 엄마들이 잘 써라 권장은 하지만 국가에서도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딸 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 신생아인 아이를 맡기기에 조금 무서운 리뷰들이 많았어요. (중략) 그 제도는 너무 좋은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아기 어머니1 B)

중요한 게 어린이집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디로 보내야 될까라는 걱정 없이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든 공공 어린이집이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면, 생기지 않을 걱정들을 그렇게 없애주면,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제도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준다면, 걱정 없이 어디든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영아기 아버지 B)

나.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제안

부모들은 육아 시설과 공간 개선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이 공공장소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자녀와의 이동시 유모차나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 해결, 공공시설 활용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육아나눔공터가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째를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이면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이걸 육아 나눔이라기 보다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드니까 (영아기 어머니2 C)

아파트 층간소음 안 나게 정말 두껍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가 있는 집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매트리스로 짝 깔아주고. 그러니까 물론, 맨날 지원만 해달라는 거 자체도 최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뛰놀 수 있고 저희도 좀 편하게 아이들이 노는 걸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영아기 아버지 B)

애기들 기저귀 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남자 화장실에 없는 게 되게 불편한 거 같아요. 그거 진짜 불편해요. (영아기 아버지 C)

차들이 다니는 도로만 공사하지 말고 보도블럭 공사도 잘 되었으면... 유모차가 진짜 퍽퍽퍽 이러면서 다닐 때가 있거든요. 맨날 차도는 일 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고 (중략) 보도블럭은 이미 여기는 오래전부터 바뀌가 다니기에 힘든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영아기 어머니1 B)

공공시설에 유아 세면대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기가 특히 손 빠는 아기여서 유아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들쳐 업고 손 씻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아 세면대나 발거치대 이런 게 널리널리 잘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영아기 어머니1 D)

아파트나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뭐 여성 전용이라기보다도 애 둘 이상 주차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말 애기들 둘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애기들 안고 업고 그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아기 부부 B)

학교 건물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려지지 않고 학교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건물이 밤에는 뭐 쉬잖아요. 그러니까 6시 이후, 7시까지도 충분히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에 다녀야 부모님 마음도 편하고, 찾길도 건너치지 않고, 애들이 보호받는 느낌도 있고, 부모님도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학교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학령기 어머니 E)

다. 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제안

부모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육아 길잡이, 놀이 방법 등 실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학교에서도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교육, 부모 및 가족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육아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의 길잡이 같은 걸 해주는 방법들이 있으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영아기 어머니2 B)

서로 의지하며 도와줄 수 있는 문화의 콘텐츠나 협동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많이 개선시키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아버지 D)

모유수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의를 해주신다던지, 육아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신다던지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아기 어머니2 A)

어린이집이 대기가 다 막혀있어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경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아기 어머니2 B)

부모가 된 것도, 그리고 애기를 키워가는 것도.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코칭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올 시기에 맞게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코칭의 정도도 우리 집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저란 사람의 성향, 그리고 와이프의 성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적합할지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애기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가 그냥 잘 알아서 찾을 수 있는 거? 저희 상황에 맞게 저랑 와이프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유아기 아버지 C)

교과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해요. 그런 게 교과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래서 18개월짜리는 저렇게 누워서 뒤집어서 우는구나, 이런 것들. 엄마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고 그냥 발달상으로 재가 지금 때를 부리는 시기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유아기 어머니1 B)

라.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제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다. 학교에서의 요구하는 부모 참여는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어머니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업 주부의 삶을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이제 남동생이 하는 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그 육아 수당을 받을 때조차 아빠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까, 굉장히 엄마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할 때도 신청란에 누구 누구의 모, 이렇게만 되어 있다든지, 부라는 말도 안 썼고... 수당을 받을 때 뭐 엄마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육아가 엄마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합리성 얘기를 했어요. 남동생이 되게 억울해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도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아빠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학령기 어머니1 A)

엄마 중심의 육아를 학교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공지 사항 같은 거 카톡으로 요즘은 오니까.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빠한테도 그냥 다 같이 보내줬음 좋겠다 (중략) 이런 이런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엄마만 안내를 받고 엄마만 알고 있고...(학령기 어머니2 A)

4. 소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준중문화 조성을 위해 현재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경험을 파악하고,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부모들은 면담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양육방식과 태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성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이 부모의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에 기반한 일임을 인식하고, 부모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정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을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가정 내 육아문화: 함께 하는 육아

영유아기와 학령기 부모들이 공유해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 가정 내 육아 분담은 부모의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로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육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한 부부의 소통과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육아는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 역할 분담은 부모 개인의 특성, 성향, 특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춰 직장 및 개인의 일과를 조율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주말에 도드라졌는데, 평일 육아 참여가 부족한 아버지의 경우 주말에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배우자가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육아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임을 깨달음으로써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다양했는데, 자녀발달시기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의 요소가 달랐으며,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2) 지역사회 육아문화: 육아를 통해 확장되는 지역사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임신준비부터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부모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육아 중인 부모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경험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 출산 전부터 실제 육아를 하는 시기까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재정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도 장난감 대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 도서관 이용 등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점,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자녀를 외부로 데리고 나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이웃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들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고,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환대를 받는 느

킴을 얻었다. 부모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녀와 함께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의 아이다움을 이해하지 못하여 눈치를 주는 현상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난 경우가 많았으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종종 아이의 아이다움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부모에게 부정적인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부모들은 육아를 할 때 지역사회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지역사회 내 육아현황에서 도출한 마지막 시사점은 자녀 양육을 통해 확장된 지역사회의 의미이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지역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넘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형성하게 된 네트워크는 주로 회사 동료, 친구, 조리원 동기, 자녀가 속한 기관의 학부모들로 구성되었고, 온라인으로 형성하게 된 네트워크는 맘카페, 온라인 거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안에서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함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동네 이웃이지만, 오늘날의 지역사회의 의미는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육아를 통해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사회를 확장하고 있었다. 자녀를 통해 만난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다.

3)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제안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부모들의 요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육아를 하며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부모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현 정책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육아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지역사회 내 공간과 장소가 육아

친화적으로 개선되길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린 자녀들과의 외출 시 쉽게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 및 기저귀를 갈 때 다른 자녀를 앉혀놓을 수 있는 시트 설치 등) 확장,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었으면 하였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채울 수 있길 제안하였다.

또한 여전히 육아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 대해 아쉬워하며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II): 양적조사

- 01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 0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평가
- 03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04 소결

V.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 요구(Ⅱ): 양적조사

본 장에서는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부모들이 지닌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인식과 가정 내 형성된 육아 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체감하는 육아문화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양육자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본 조사는 양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에 부모의 차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부와 모의 비율을 유사하게 표집하였고, 육아문화의 변화를 보기 위해 일부 문항에 대해 한국아동패널 문항³⁶⁾과 동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10여년 사이 부모의 육아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³⁷⁾

1.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육아, 부부역할과 관련한 인식, 자녀양육 부담 및 아버지 양육 참여, 자녀양육관련 갈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가. 자녀, 육아, 부부역할 관련 인식

1) 자녀,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와 인식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가치와 자녀가 주는 의미에 대한 진술문에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가 <표 V-1-1>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4.5점)’,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4.3점)’, ‘자녀를

36)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종단연구로,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연구임. 본 연구에서는 자녀,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와 인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의 문항에 대해 패널 아동이 3세(만2세)이던 2010년 조사자료와 비교하였음.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37) 본 장에서는 조사표의 분량이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인만 남기고 제시하였음.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4.3점)',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4.2점)'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2.4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2.5점)',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2.6점)' 등 자녀의 도구적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았다. 응답 결과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지니는 도구적 개념보다는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1〉 자녀,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와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5 (0.7)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4.3 (0.8)
3.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4.2 (0.9)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6 (1.0)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2.9 (1.2)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4 (1.2)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5 (1.2)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4.3 (0.7)

주: 1)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2) 아동패널 3자 조사에서는 1)-7)문항만 조사되었으며, 어머니, 아버지 대상으로 각각 조사됨.

자녀,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와 인식에 대한 각 개별 문항들에 대해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에는 〈표 V-1-2〉와 같이 아버지의 동의 정도(4.6점)가 어머니(4.4점)보다 높아 '부모됨의 가치'를 아버지가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조사된 아동패널 데이터와의 비교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현재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1-2〉 자녀의 의미와 인식_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1.1	6.4	34.5	57.8	100.0 (1,228)	4.5 (0.7)
부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0.3	1.0	7.1	41.1	50.4	100.0 (603)	4.4 (0.7)
아버지	0.2	1.1	5.6	28.2	65.0	100.0 (625)	4.6 (0.7)
t							-4.2***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0.1	0.5	5.0	36.3	58.1	100.0 (1,772)	4.5 (0.6)
2010년 아버지	0.5	0.5	2.4	26.6	69.9	100.0 (1,689)	4.6 (0.6)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문항에서는 <표 V-1-3>과
같이 40~50대의 연령대(4.3점)에서 20~30대(4.2점)에 비해, 아버지들(4.4점)이
어머니들(4.2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조사된 아동
패널 데이터에서도 아버지의 응답이 어머니의 응답보다 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
에서 유사성을 보였으며, 수치상에서도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현
재의 부모들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1-3>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2.3	12.5	37.2	47.3	100.0 (1,228)	4.3 (0.8)
연령							
20~30대	1.0	2.9	13.9	36.6	45.7	100.0 (700)	4.2 (0.9)
40~50대	0.4	1.5	10.6	38.1	49.4	100.0 (528)	4.3 (0.8)
t							-2.5*
부모							
어머니	1.0	3.0	13.6	40.1	42.3	100.0 (603)	4.2 (0.9)
아버지	0.5	1.6	11.4	34.4	52.2	100.0 (625)	4.4 (0.8)
t							-3.5***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0.1	0.4	8.4	44.9	45.3	100.0 (1,770)	4.3 (0.7)
2010년 아버지	0.4	0.7	4.3	37.6	57.1	100.0 (1,686)	4.5 (0.7)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 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
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라는 문항에서도 <표 V-1-4>에서와 같이, 40~50대의 연령대(4.3점)에서 20~30대(4.1점)에 비해, 아버지들(4.3점)이 어머니들(4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조사된 아동패널 자료의 경우에도 아버지(4.2)와 어머니(4.0)간의 차이가 보였지만, 현재의 부모에 비해서 ‘매우 그렇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V-1-4>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3.8	13.8	37.4	44.1	100.0 (1,228)	4.2 (0.9)
연령							
20~30대	1.3	4.7	15.3	37.3	41.4	100.0 (700)	4.1 (0.9)
40~50대	0.6	2.7	11.7	37.5	47.5	100.0 (528)	4.3 (0.8)
t							-3.1**
부모							
어머니	1.3	5.3	17.7	38.8	36.8	100.0 (603)	4.0 (0.9)
아버지	0.6	2.4	9.9	36.0	51.0	100.0 (625)	4.3 (0.8)
t							-6.0***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0.3	5.6	17.5	46.1	30.5	100.0 (1,770)	4.0 (0.9)
2010년 아버지	0.9	3.1	13.4	43.0	39.6	100.0 (1,685)	4.2 (0.8)

** p < .01,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 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도 <표 V-1-5>와 같이, 40~50대의 연령대(2.7점)에서 20~30대(2.6점)에 비해, 아버지들(2.7점)이 어머니들(2.6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조사된 아동패널 자료에서도 아버지(2.8)와 어머니(2.6)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특히 아버지의 ‘매우 그렇다’ 및 ‘대체로 그렇다’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5〉 자녀의 의미와 인식-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7	31.4	42.0	11.2	3.7	100.0 (1,228)	2.6 (1.0)
연령							
20~30대	12.4	35.6	37.0	11.0	4.0	100.0 (700)	2.6 (1.0)
40~50대	10.8	25.8	48.7	11.6	3.2	100.0 (528)	2.7 (0.9)
t							-2.2*
부모							
어머니	12.3	35.3	38.3	10.6	3.5	100.0 (603)	2.6 (1.0)
아버지	11.2	27.5	45.6	11.8	3.8	100.0 (625)	2.7 (1.0)
t							-2.2*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7.8	37.5	41.9	10.2	2.5	100.0 (1,769)	2.6 (0.9)
2010년 아버지	5.8	27.9	46.6	15.3	4.5	100.0 (1,684)	2.8 (0.9)

* $p < .05$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도 〈표 V-1-6〉과 같이 40~50대의 연령대(3.2점)에서 20~30대(2.7점)에 비해, 유아와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 영아자녀를 둔 경우보다, 아버지들(3.2점)이 어머니들(2.6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조사된 아동패널 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재에 비해, 대부분 ‘대체로 그렇다’(어머니 38%, 아버지 41%)와 ‘매우 그렇다’(어머니 22%, 아버지 32%)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생각에서 10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6〉 자녀의 의미와 인식_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6	24.8	22.8	26.4	10.4	100.0 (1,228)	2.9 (1.2)
연령							
20~30대	21.1	26.7	22.3	20.7	9.1	100.0 (700)	2.7 (1.3)
40~50대	8.3	22.2	23.5	33.9	12.1	100.0 (528)	3.2 (1.2)
t							-7.1***
자녀 연령							
영아	19.9	26.9	20.3	24.9	8.0	100.0 (413)	2.7 (1.3)
유아	12.9	26.1	23.9	26.6	10.5	100.0 (410)	3.0 (1.2)
초등 저학년	14.1	21.2	24.2	27.7	12.8	100.0 (405)	3.0 (1.3)
F							6.2**
부모							
어머니	21.4	29.5	21.1	20.7	7.3	100.0 (603)	2.6 (1.2)
아버지	10.1	20.2	24.5	31.8	13.4	100.0 (625)	3.2 (1.2)
t							-8.0***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3.0	15.0	21.7	38.1	22.2	100 (1,772)	3.6 (0.9)
2010년 아버지	1.8	7.7	17.6	40.9	32.1	100.0 (1,685)	3.9 (1.0)

** p < .01,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항에서도 〈표 V-1-7〉과 같이, 40~50대의 연령대(2.6점)에서 20~30대(2.2점)에 비해,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 아버지들(2.7점)이 어머니들(2.1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조사된 패널데이터의 경우 어머니는 2.5점, 아버지는 3.3점으로 나타나, 현재 부모의 응답에 비해서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1-7〉 자녀의 의미와 인식_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2.5준편차)
전체	27.2	29.9	24.4	13.1	5.4	100.0 (1,228)	2.4 (1.2)
연령							
20~30대	33.1	30.6	20.0	11.7	4.6	100.0 (700)	2.2 (1.2)
40~50대	19.3	29.0	30.3	15.0	6.4	100.0 (528)	2.6 (1.1)
t							-5.4***
자녀 연령							
영아	32.7	28.6	21.5	13.3	3.9	100.0 (413)	2.3 (1.2)
유아	26.1	33.9	23.2	10.7	6.1	100.0 (410)	2.4 (1.2)
초등 저학년	22.7	27.2	28.6	15.3	6.2	100.0 (405)	2.6 (1.2)
F							6.1**
부모							
어머니	36.5	33.2	19.6	7.3	3.5	100.0 (603)	2.1 (1.1)
아버지	18.2	26.7	29.1	18.7	7.2	100.0 (625)	2.7 (1.2)
t							-9.6***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17.9	34.5	28.1	15.1	4.4	100.0 (1,770)	2.5 (1.1)
2010년 아버지	6.6	19.1	32.9	25.0	16.4	100.0 (1,686)	3.3 (1.1)

** p < .01,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저출산 사회 안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문항에서도 〈표 V-1-8〉과 같이, 40~50대의 연령대(2.8점)에서 20~30대(2.3점)에 비해,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2.7점)에 자녀를 하나 둔 경우(2.4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영아자녀(2.4점), 유아자녀(2.6점)를 둔 경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2.7점)에, 아버지들(2.8점)이 어머니들(2.3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이하인 경우보다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010년에 수집된 아동패널의 자료에서도 어머니(2.9점), 아버지(3.3점)의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10년 전에 비해 확연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8〉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8	26.3	27.7	16.0	6.2	100.0 (1,228)	2.5 (1.2)
연령							
20~30대	30.7	27.4	24.9	12.0	5.0	100.0 (700)	2.3 (1.2)
40~50대	14.6	24.8	31.4	21.4	7.8	100.0 (528)	2.8 (1.2)
t							-7.4***
자녀 수							
1명	26.4	29.4	25.7	13.6	5.0	100.0 (603)	2.4 (1.2)
2명	20.6	23.7	30.6	18.0	7.1	100.0 (510)	2.7 (1.2)
3명 이상	24.3	21.7	25.2	20.0	8.7	100.0 (115)	2.7 (1.3)
F							7.2***
자녀 연령							
영아	29.5	28.6	23.5	14.0	4.4	100.0 (413)	2.4 (1.2)
유아	22.0	27.1	31.5	12.9	6.6	100.0 (410)	2.6 (1.2)
초등 저학년	19.8	23.2	28.1	21.2	7.7	100.0 (405)	2.7 (1.2)
F							11.0***
부모							
어머니	31.8	28.9	25.0	10.4	3.8	100.0 (603)	2.3 (1.1)
아버지	16.0	23.8	30.2	21.4	8.5	100.0 (625)	2.8 (1.2)
t							-8.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1.4	23.5	24.8	14.6	5.8	100.0 (226)	2.4 (1.2)
300~400만원 미만	22.1	29.2	30.1	13.1	5.4	100.0 (312)	2.5 (1.1)
400~500만원 미만	27.3	25.7	25.3	16.3	5.3	100.0 (245)	2.5 (1.2)
500~600만원 미만	17.1	27.1	27.1	20.6	8.2	100.0 (170)	2.8 (1.2)
600만원 이상	20.4	25.5	29.8	17.5	6.9	100.0 (275)	2.7 (1.2)
F							3.2*
아동패널 (3차조사)							
2010년 어머니	10.9	26.4	35.0	21.1	6.6	100.0 (1,771)	2.9 (1.1)
2010년 아버지	6.9	17.1	33.5	28.1	14.6	100.0 (1,683)	3.3 (1.1)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가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는 문항에서는 〈표 V-1-9〉와 같이,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이하인 경우보다 동의정도가 다소
낮았다.

〈표 V-1-9〉 자녀의 의미와 인식_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0.7	11.8	38.4	48.8	100.0 (1,228)	4.3 (0.7)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0	0.0	11.5	37.6	50.9	100.0 (226)	4.4 (0.7)
300~400만원 미만	0.0	1.6	10.6	33.7	54.2	100.0 (312)	4.4 (0.7)
400~500만원 미만	0.0	0.0	10.6	44.1	45.3	100.0 (245)	4.3 (0.7)
500~600만원 미만	0.6	0.6	11.8	34.1	52.9	100.0 (170)	4.4 (0.8)
600만원 이상	1.1	1.1	14.5	41.8	41.5	100.0 (275)	4.2 (0.8)
F							3.0*

* $p < .05$

종합하여 보면 이렇듯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문항들에서는 연령대와 부모간의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 40대와 50대에서 20~30대에 비해 또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라는 문항과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문항을 제시하고 어느 편에 더 동의하는지 응답한 결과가 〈표 V-1-10〉이다.

〈표 V-1-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명)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수)
전체	53.0	47.0	100.0 (1,228)
어머니	45.1	54.9	100.0 (603)
아버지	60.6	39.4	100.0 (625)
$X^2(df)$	29.724(1)***		
아동패널 (3차조사)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수)
2010년 어머니	49.2	50.8	100 (1,755)
2020년 아버지	57.2	42.8	100 (1,654)
X ² (df)	117.5(1)***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분석함.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부모는 자녀를 위해 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정도가 53%로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우 47%보다 다소 높았다. 전체 변인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부분에 동의 정도가 60.6%로 더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54.9%가 동의하였다. 2010년 조사된 아동패널의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비율로는 현재도 10년 전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10년 전보다 그 비율이 줄어든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3) 부부 간 역할에의 인식

부부 간 역할에 대한 다음의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가 <표 V-1-11>이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2.2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은 부부간 역할에 대해 대체로 성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11〉 부부 간 역할에의 인식(전체)

단위: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1.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2.2 (1.1)
2.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4.1 (0.9)
3.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3.1 (1.2)
4. 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이 있다.	2.5 (1.1)
5. 여자는 양육과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	2.6 (1.2)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부부 간 역할에 대한 각 개별 문항들에 대해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문항에는 〈표 V-1-12〉와 같이, 40~50대에서 2.4점의 동의를 보여 20~30대 2.1점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동의 정도(2.4점)가 어머니(2.1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그 동의 정도는 높지 않지만 연령대가 높은 집단과 남성들이 남녀 간 역할 구분을 하는 전통적 성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V-1-12〉 부부 간 역할_가사일, 육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4	33.7	19.1	15.0	1.9	100.0 (1,228)	2.2 (1.1)
연령							
20~30대	36.6	30.7	17.4	13.6	1.7	100.0 (700)	2.1 (1.1)
40~50대	22.2	37.7	21.2	16.9	2.1	100.0 (528)	2.4 (1.1)
t							-4.1***
부모							
어머니	36.5	35.3	15.9	11.1	1.2	100.0 (603)	2.1 (1.0)
아버지	24.5	32.2	22.1	18.7	2.6	100.0 (625)	2.4 (1.1)
t							-6.1***

* $p < .05$, *** $p < .001$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는 〈표 V-1-13〉과 같이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며, 20~30대(4.2점)에서 40~50대(4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고, 어머니의 동의 정도(4.2점)가 아버지(4.1점)보다 높았다.

〈표 V-1-13〉 부부 간 역할_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	2.9	15.0	45.1	35.7	100.0 (1,228)	4.1 (0.9)
연령							
20~30대	1.7	2.4	12.7	43.6	39.6	100.0 (700)	4.2 (0.9)
40~50대	0.8	3.6	18.0	47.2	30.5	100.0 (528)	4.0 (0.8)
t							2.8**
부모							
어머니	2.2	2.7	11.9	43.6	39.6	100.0 (603)	4.2 (0.9)
아버지	0.5	3.2	17.9	46.6	31.8	100.0 (625)	4.1 (0.8)
t							2.0*

* $p < .05$, ** $p < .01$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에는 〈표 V-1-14〉와 같이, 보통 정도의 동의를 보인다. 40~50대(3.3점)에서 20~30대(2.9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고,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집단(3.2점)에서 영유아를 둔 집단(3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아버지의 동의 정도(3.3점)가 어머니(2.8점)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3.2점)에 맞벌이인 경우(3점)보다 높았다.

〈표 V-1-14〉 부부 간 역할_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별로 동의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II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9	19.0	26.0	34.9	8.2	100.0 (1,228)	3.1 (1.2)
연령							
20~30대	15.4	21.6	23.2	34.0	8.5	100.0 (700)	2.9 (1.2)
40~50대	7.2	15.5	28.0	37.1	7.3	100.0 (528)	3.3 (1.1)
t							-5.5***
자녀 연령							
영아	14.5	18.6	24.9	32.7	9.2	100.0 (413)	3.0 (1.2)
유아	13.7	20.0	26.3	33.2	6.8	100.0 (410)	3.0 (1.2)
초등 저학년	7.4	18.3	26.7	39.0	8.6	100.0 (405)	3.2 (1.1)
F							4.9**
부모							
어머니	14.9	24.7	27.5	29.2	3.6	100.0 (603)	2.8 (1.1)
아버지	9.0	13.4	24.5	40.5	12.6	100.0 (625)	3.3 (1.1)
t							-8.2***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별로 동의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9	21.1	27.9	30.1	7.1	100.0 (635)	3.0 (1.2)
맞벌이 아님	9.7	17.1	23.6	40.2	9.5	100.0 (580)	3.2 (1.1)
t							-4.1***

** $p < .01$, *** $p < .001$

‘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다’에는 <표 V-1-15>와 같이 2.5점의 낮은 동의를 보였다. 40~50대(2.6점)에서 20~30대(2.4점) 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2.7점)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2.4점)보였다.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집단(2.7점)에서 영아(2.4점)나 유아(2.5점)를 둔 집단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7점)가 대도시(2.5점)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2.4점)보다 높았다.

<표 V-1-15> 부부 간 역할_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별로 동의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8	30.9	23.0	19.7	3.7	100.0 (1,228)	2.5 (1.1)
연령							
20~30대	28.3	28.3	20.6	19.7	3.1	100.0 (700)	2.4 (1.2)
40~50대	15.5	34.3	26.1	19.7	4.4	100.0 (528)	2.6 (1.1)
t							-3.4***
자녀 수							
1명	26.4	30.3	20.7	19.4	3.2	100.0 (603)	2.4 (1.2)
2명	19.2	33.3	23.9	18.6	4.9	100.0 (510)	2.6 (1.1)
3명 이상	20.0	22.6	30.4	26.1	0.9	100.0 (115)	2.7 (1.1)
F							3.1*
자녀 연령							
영아	26.6	32.9	19.1	18.2	3.1	100.0 (413)	2.4 (1.2)
유아	25.6	28.8	23.4	18.3	3.9	100.0 (410)	2.5 (1.2)
초등 저학년	16.0	30.9	26.4	22.7	4.0	100.0 (405)	2.7 (1.1)
F							7.2***
거주지							
대도시	20.6	32.1	24.0	20.2	3.0	100.0 (495)	2.5 (1.1)
중소도시	25.9	31.8	21.0	17.3	4.0	100.0 (544)	2.4 (1.2)
농어촌지역	19.6	24.9	25.9	25.4	4.2	100.0 (189)	2.7 (1.2)
F							4.4*

* $p < .05$, *** $p < .001$

‘여자는 양육과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한다’는 문항에는 <표 V-1-16>과 같이 2.6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40~50대(2.7점)에서 20~30대(2.5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고,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집단(2.7점)에서 영아(2.4점)를 둔 집단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동의 정도(2.7점)가 어머니(2.4점)보다 높았다.

<표 V-1-16> 부부 간 역할 여자는 양육과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별로 동의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7	28.0	27.9	18.2	5.2	100.0 (1,228)	2.6 (1.2)
연령							
20~30대	25.6	27.3	25.1	16.9	5.1	100.0 (700)	2.5 (1.2)
40~50대	14.2	29.0	31.4	20.1	5.3	100.0 (528)	2.7 (1.1)
t							-3.8***
자녀 연령							
영아	24.0	29.5	24.0	18.2	4.4	100.0 (413)	2.5 (1.2)
유아	22.4	26.6	27.8	17.8	5.4	100.0 (410)	2.6 (1.2)
초등 저학년	15.6	27.9	31.9	18.8	5.9	100.0 (405)	2.7 (1.1)
F							3.9*
부모							
어머니	25.7	30.7	22.4	17.1	4.1	100.0 (603)	2.4 (1.2)
아버지	15.8	25.4	33.1	19.4	6.2	100.0 (625)	2.7 (1.1)
t							-4.8***

* $p < .05$, *** $p < .001$

가정 내 부부 간 역할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구분을 두는 보수적 경향이 여전히 연령대와 부모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 40대와 50대에서 20~30대에 비해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녀양육 분담 및 아버지 양육 참여

가정 내 육아 양상을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부의 양육분담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심층면담과정에서 주말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한다는 경향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분담 정도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표 V-1-17>와 같이 자녀양육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주중에는 어머니의 양육 분담비율이 70.9%, 아버지는 29.1%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이 증가하여 어머니는 57.8%, 아버지는 42.2%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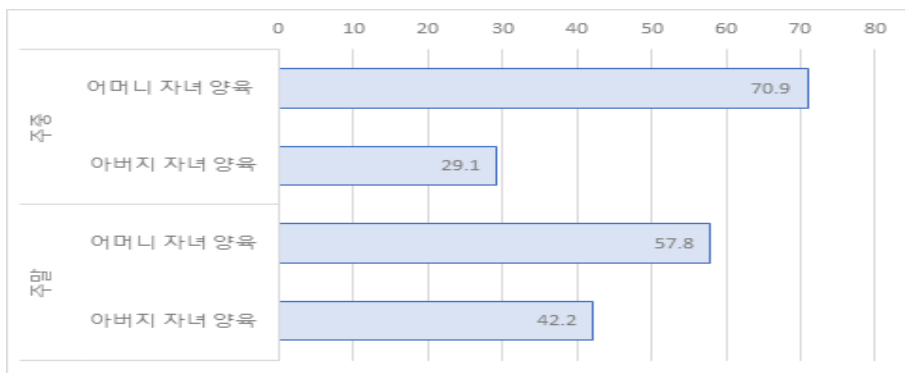
〈표 V-1-17〉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전체)

구분		평균(표준편차)	
주중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	70.9	(17.8)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	29.1	(17.8)
주말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	57.8	(17.9)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	42.2	(17.9)

단위: %

주: 0~100% 사이 값 중 응답함.

[그림 V-1-1]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전체)



주: 본 조사결과인 <표 V-1-17>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부부의 자녀양육 참여 합산이 100%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반복적으로 보기 보다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에 초점을 두므로 집단 간 차이의 확인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먼저 <표 V-1-18>에서 주중 동안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9.1%의 양육 참여를 보이며, 자녀가 하나인 경우 31.3%, 둘인 경우 27.9%, 셋 이상 23.1%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더 낮은 분담비율을 보였다. 자녀연령을 기준

으로 보면, 영아자녀(31.5%), 유아자녀(28.5%), 초등저학년 자녀(27.3%)로 갈수록 그 분담 및 참여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분담정도(24.1%)보다 아버지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분담정도(34%)가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지역차이도 보여서 대도시 거주인 경우(31.1%)에 중소도시(28.1%)나 농어촌 지역 거주하는 경우(26.9%) 그 분담 정도가 높았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34.1%)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23.7%)보다 양육분담의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양육분담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1-18〉 주중 동안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_아버지

단위: %(명)

구분	20% 이하	20%~40%	40%~60%	60%~80%	80% 초과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6	36.8	15.9	2.8	0.9	100.0 (1,215)	29.1 (17.8)
자녀 수							
1명	41.2	34.8	18.6	4.4	1.0	100.0 (597)	31.3 (18.5)
2명	43.7	39.4	14.9	1.4	0.6	100.0 (503)	27.9 (16.6)
3명 이상	55.7	35.7	6.1	0.9	1.7	100.0 (115)	23.1 (17.3)
F							12.6***
자녀 연령							
영아	41.2	34.8	18.6	4.4	1.0	100.0 (597)	31.5 (18.5)
유아	43.7	39.4	14.9	1.4	0.6	100.0 (503)	28.5 (16.6)
초등 저학년	55.7	35.7	6.1	0.9	1.7	100.0 (115)	27.3 (17.3)
F							6.1**
부모							
어머니	57.6	27.1	12.3	2.9	0.2	100.0 (594)	24.1 (17.7)
아버지	30.3	46.1	19.3	2.7	1.6	100.0 (621)	34.0 (16.5)
t							-10.1***
거주지							
대도시	39.5	37.3	18.9	3.3	1.0	100.0 (491)	31.1 (18.1)
중소도시	45.8	36.1	14.7	2.8	0.6	100.0 (537)	28.1 (17.5)
농어촌지역	48.1	37.4	11.2	1.6	1.6	100.0 (187)	26.9 (17.2)
F							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1	41.9	23.6	3.6	0.8	100.0 (635)	34.1 (17.4)
맞벌이 아님	58.4	31.2	7.4	1.9	1.0	100.0 (580)	23.7 (16.6)
t							10.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7.5	37.8	10.6	1.8	2.3	100.0 (217)	27.6 (18.6)
300~400만원	48.4	34.6	13.5	2.6	1.0	100.0 (312)	27.5 (17.6)

구분	20% 이하	20% ~ 40%	40% ~ 60%	60% ~ 80%	80% 초과	계(수)	평균 (표준편차)
400~500만원	47.5	36.9	11.1	4.1	0.4	100.0 (244)	27.4 (17.1)
500~600만원	36.3	39.9	20.8	3.0	0.0	100.0 (168)	31.2 (16.6)
600만원 이상	36.1	36.5	24.1	2.6	0.7	100.0 (274)	32.5 (18.1)
F							4.8***

** p < .01, *** p < .001

주말에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표 V-1-19>에서 살펴보면, 전체 평균 42.2%로 주중의 29.1%보다 그 참여가 월등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 43.7%, 둘인 경우 42.1%, 셋 이상 34.4%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더 낮은 분담비율을 보이며, 어머니가 생각하는 남편의 분담정도(36.6%)보다 아버지 스스로가 평가하는 분담정도(47.5%)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중의 양상과 유사하게 맞벌이인 경우(44.1%)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40.1%)보다 양육분담의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양육분담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1-19〉 주말 동안 부부 자녀 양육 분담정도_아버지

단위: %(명)

구분	20% 이하	20% ~ 40%	40% ~ 60%	60% ~ 80%	80% 초과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0	32.9	40.9	7.8	1.3	100.0 (1,215)	42.2 (17.9)
자녀 수							
1명	15.4	31.8	41.9	8.7	2.2	100.0 (597)	43.7 (18.2)
2명	15.5	33.6	43.1	7.4	0.4	100.0 (503)	42.1 (16.9)
3명 이상	32.2	35.7	26.1	5.2	0.9	100.0 (115)	34.4 (18.8)
F							13.3***
부모							
어머니	28.8	32.0	32.7	5.7	0.8	100.0 (594)	36.6 (19.0)
아버지	5.8	33.8	48.8	9.8	1.8	100.0 (621)	47.5 (15.0)
t							-1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6	30.9	47.2	8.0	1.3	100.0 (635)	44.1 (17.0)
맞벌이 아님	21.9	35.2	34.0	7.6	1.4	100.0 (580)	40.1 (18.7)
t							3.9***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4.0	29.5	37.3	6.5	2.8	100.0 (217)	40.0 (19.6)
300~400만원	16.3	35.6	39.1	8.7	0.3	100.0 (312)	42.2 (17.5)

구분	20% 이하	20% ~ 40%	40% ~ 60%	60% ~ 80%	80% 초과	계(수)	평균 (표준편차)
400~500만원	17.6	36.5	40.2	4.5	1.2	100.0 (244)	40.3 (17.8)
500~600만원	10.1	35.7	42.9	10.7	0.6	100.0 (168)	44.7 (16.2)
600만원 이상	16.1	27.7	45.3	9.1	1.8	100.0 (274)	44.0 (17.9)
F							3.0*

* $p < .05$, *** $p < .001$

2)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부부의 양육 분담에 대해 만족 정도를 <표 V-1-20>과 같이 확인하였다. 응답자 전체 평균은 3.4점이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2%이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3.5점)이나, 2명(3.4점)인 경우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3.1점) 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영아자녀를 둔 경우(3.5점)에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3점)보다 그 만족정도가 높았다. 아버지가 3.7점으로 어머니 3.1점 보다 만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1-20> 부부 간 양육분담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	14.3	25.4	48.2	7.5	100.0 (1,215)	3.4 (1.0)
자녀 수							
1명	3.7	12.7	25.6	49.6	8.4	100.0 (597)	3.5 (0.9)
2명	4.2	14.7	25.2	48.5	7.4	100.0 (503)	3.4 (1.0)
3명 이상	10.4	20.9	25.2	40.0	3.5	100.0 (115)	3.1 (1.1)
F							8.7***
자녀 연령							
영아	3.7	12.0	25.9	48.8	9.8	100.0 (410)	3.5 (1.0)
유아	4.7	14.5	25.6	47.3	7.9	100.0 (406)	3.4 (1.0)
초등 저학년	5.3	16.5	24.8	48.6	4.8	100.0 (399)	3.3 (1.0)
F							3.5*
부모							
어머니	8.8	24.1	24.7	36.2	6.2	100.0 (594)	3.1 (1.1)
아버지	0.5	5.0	26.1	59.7	8.7	100.0 (621)	3.7 (0.7)
t							-12.0***

* $p < .05$, *** $p < .001$

3)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내용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기본생활습관 형성(먹이기, 입히기, 씻기기),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식사준비, 빨래, 청소), 자녀와의 놀이(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 자녀의 훈육(생활지도), 자녀의 학습지원, 자녀의 등하원 등의 영역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V-1-21〉과 같이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놀이(4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3.8점)과 자녀의 훈육과 생활지도(3.7점) 등에 참여가 다른 부분보다 높았다.

〈표 V-1-21〉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내용(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기본생활돌봄(먹이기, 입히기, 씻기기)	3.8 (1.0)
2.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식사준비, 빨래, 청소)	3.5 (1.2)
3. 자녀와의 놀이 (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	4.0 (0.8)
4. 자녀의 훈육 (생활지도)	3.7 (0.9)
5. 자녀의 학습지원	3.3 (1.0)
6. 자녀의 등하원	3.0 (1.3)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

각 참여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해서는 〈표 V-1-22〉와 같이 20~30대(3.9점)의 참여가 40~50대(3.7점)보다, 자녀가 1명(3.9점)이나 2명(3.8점) 경우가 3명(3.4점)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 참여가 높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1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5점) 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3.9점)에서 아닌 경우(3.7점)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1-22〉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기본생활돌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0	8.9	17.3	45.1	25.8	100.0 (1,219)	3.8 (1.0)
연령							
20~30대	3.3	7.3	15.1	44.1	30.2	100.0 (696)	3.9 (1.0)
40~50대	2.5	10.9	20.3	46.5	19.9	100.0 (523)	3.7 (1.0)
t							3.5***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 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수							
1명	3.0	6.7	17.9	42.2	30.2	100.0 (599)	3.9 (1.0)
2명	1.8	10.1	15.0	49.9	23.2	100.0 (505)	3.8 (1.0)
3명 이상 F	7.8	14.8	24.3	39.1	13.9	100.0 (115)	3.4 (1.1)
							13.8***
자녀 연령							
영아	2.2	5.1	14.8	43.2	34.7	100.0 (412)	4.0 (0.9)
유아	2.9	8.6	17.2	45.2	26.0	100.0 (407)	3.8 (1.0)
초등 저학년 F	3.8	13.0	20.0	47.0	16.3	100.0 (400)	3.6 (1.0)
							20.1***
부모							
어머니	6.1	14.1	20.2	39.7	19.9	100.0 (594)	3.5 (1.1)
아버지	0.0	3.8	14.6	50.2	31.4	100.0 (625)	4.1 (0.8)
t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	6.6	16.4	45.5	29.0	100.0 (635)	3.9 (1.0)
맞벌이 아님	3.4	11.4	18.4	44.7	22.1	100.0 (580)	3.7 (1.0)
t							3.7***

*** $p < .001$

식사준비, 빨래, 청소와 같이 자녀 돌봄 시 필요한 가사활동에의 아버지 참여를 살펴보면 <표 V-1-23>과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3.5점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3.2점)와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경우(3.3점)에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참여가 저조하였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3.9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1점) 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3.7점)에서 아닌 경우(3.3점) 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자녀 돌봄 시 필요한 가사활동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1-23>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가사활동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 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4	14.5	21.7	36.5	20.9	100.0 (1,219)	3.5 (1.2)
자녀 수							
1명	6.7	11.9	20.4	37.7	23.4	100.0 (599)	3.6 (1.2)
2명	5.3	16.6	21.8	36.8	19.4	100.0 (505)	3.5 (1.1)
3명 이상 F	9.6	19.1	27.8	28.7	14.8	100.0 (115)	3.2 (1.2)
							5.8**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 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영아	5.8	11.9	18.9	35.9	27.4	100.0 (412)	3.7 (1.2)
유아	6.6	14.3	19.7	39.8	19.7	100.0 (407)	3.5 (1.2)
초등 저학년	6.8	17.5	26.5	33.8	15.5	100.0 (400)	3.3 (1.1)
F							8.6***
부모							
어머니	12.5	20.7	22.1	31.6	13.1	100.0 (594)	3.1 (1.2)
아버지	0.6	8.6	21.3	41.1	28.3	100.0 (625)	3.9 (0.9)
t							-1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	11.3	19.8	40.2	24.1	100.0 (635)	3.7 (1.1)
맞벌이 아님	8.4	18.1	23.8	32.6	17.1	100.0 (580)	3.3 (1.2)
t							5.5***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7.3	14.1	24.5	30.9	23.2	100.0 (220)	3.5 (1.2)
300~400만원 미만	7.1	17.6	24.0	31.4	19.9	100.0 (312)	3.4 (1.2)
400~500만원 미만	8.2	13.9	19.3	44.7	13.9	100.0 (244)	3.4 (1.1)
500~600만원 미만	3.6	13.0	18.9	38.5	26.0	100.0 (169)	3.7 (1.1)
600만원 이상	5.1	12.8	20.4	38.3	23.4	100.0 (274)	3.6 (1.1)
F							3.0*

* p < .05, ** p < .01, *** p < .001

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외출하기 같이 자녀와의 놀이에의 아버지 참여를 살펴보면 <표 V-1-24>와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점으로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는 것이며, 20~30대(4.1점)가 40~50대(3.9점)보다, 자녀가 1명인 경우(4.1점)와 2명인 경우(4점)가 3명 이상인 경우(3.6점)보다 그 참여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경우(3.8점)에 영아(4.2점)나 유아(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참여가 저조하였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2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8점)보다 높았다.

〈표 V-1-24〉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놀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4.1	18.3	46.3	30.6	100.0 (1,219)	4.0 (0.8)
연령							
20~30대	0.4	3.9	16.7	43.8	35.2	100.0 (696)	4.1 (0.8)
40~50대	1.1	4.4	20.5	49.5	24.5	100.0 (523)	3.9 (0.9)
t							3.6***
자녀 수							
1명	0.3	3.3	17.4	44.2	34.7	100.0 (599)	4.1 (0.8)
2명	0.8	3.6	17.4	48.7	29.5	100.0 (505)	4.0 (0.8)
3명 이상	2.6	10.4	27.0	46.1	13.9	100.0 (115)	3.6 (0.9)
F							18.3*** ^(a)
자녀 연령							
영아	0.5	1.7	15.8	42.2	39.8	100.0 (412)	4.2 (0.8)
유아	0.7	4.7	16.0	49.9	28.7	100.0 (407)	4.0 (0.8)
초등 저학년	1.0	6.0	23.3	46.8	23.0	100.0 (400)	3.8 (0.9)
F							17.2*** ^(a)
부모							
어머니	1.5	7.4	23.4	41.6	26.1	100.0 (594)	3.8 (0.9)
아버지	0.0	1.0	13.4	50.7	34.9	100.0 (625)	4.2 (0.7)
t							-7.6***

*** p < .001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자녀 훈육에의 아버지 참여를 살펴보면 〈표 V-1-25〉와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3.7점이며,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3.8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6점) 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3.8점)에서 아닌 경우(3.7점)보다 자녀 훈육에의 아버지의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1-25〉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훈육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6.3	30.8	44.4	17.7	100.0 (1,219)	3.7 (0.9)
부모							
어머니	1.7	8.4	34.7	39.9	15.3	100.0 (594)	3.6 (0.9)
아버지	0.0	4.3	27.0	48.6	20.0	100.0 (625)	3.8 (0.8)
t							-5.3***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6.3	28.7	45.0	19.5	100.0 (635)	3.8 (0.9)
맞벌이 아님	1.2	6.4	33.1	43.8	15.5	100.0 (580)	3.7 (0.9)
t							2.2*

* p < .05, *** p < .001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아버지 참여를 살펴보면 <표 V-1-26>과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3.3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저조한 편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3.5점)와 2명인 경우(3.3점)가 3명 이상인 경우(2.9점)보다 그 참여가 높았다. 자녀가 유아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3.2점)에 영아(3.6점)에 비해 그 참여가 저조하였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3.6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1점)보다 높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인 경우(3.4점)에 농어촌 거주하는 경우(3.1점)보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아닌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참여가 높았다.

〈표 V-1-26〉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학습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	15.8	31.8	34.6	12.8	100.0 (1,219)	3.3 (1.0)
자녀 수							
1명	4.0	12.2	32.6	34.2	17.0	100.0 (599)	3.5 (1.0)
2명	5.3	17.0	30.9	37.4	9.3	100.0 (505)	3.3 (1.0)
3명 이상	8.7	28.7	32.2	24.3	6.1	100.0 (115)	2.9 (1.1)
F							16.5***
자녀 연령							
영아	2.4	10.0	33.3	35.2	19.2	100.0 (412)	3.6 (1.0)
유아	7.4	16.2	32.4	34.2	9.8	100.0 (407)	3.2 (1.1)
초등 저학년	5.3	21.3	29.8	34.5	9.3	100.0 (400)	3.2 (1.0)
F							17.2***
부모							
어머니	9.4	23.7	29.1	27.1	10.6	100.0 (594)	3.1 (1.1)
아버지	0.8	8.2	34.4	41.8	14.9	100.0 (625)	3.6 (0.9)
t							-9.6***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참여하 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지							
대도시	4.9	14.4	30.1	35.4	15.2	100.0 (492)	3.4 (1.1)
중소도시	4.3	16.1	32.4	34.8	12.4	100.0 (540)	3.4 (1.0)
농어촌지역	7.5	18.2	34.8	32.1	7.5	100.0 (187)	3.1 (1.0)
F							4.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4	15.5	34.1	33.6	10.5	100.0 (220)	3.3 (1.0)
300~400만원 미만	6.7	17.0	33.7	31.7	10.9	100.0 (312)	3.2 (1.1)
400~500만원 미만	4.1	17.2	34.4	33.6	10.7	100.0 (244)	3.3 (1.0)
500~600만원 미만	3.6	14.2	24.3	39.1	18.9	100.0 (169)	3.6 (1.1)
600만원 이상	3.6	14.2	30.3	36.9	15.0	100.0 (274)	3.5 (1.0)
F							3.9**

** p < .01, *** p < .001

자녀의 등하원 지도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표 V-1-27>과 같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3점으로 가장 아버지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3.2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2.7점)보다 높았고, 대도시 거주인 경우(3.1점)에 중소도시(2.9점)나 농어촌 거주하는 경우(2.8점)보다, 맞벌이 가구(3.2점)가 아닌 경우(2.7점)보다 상대적으로 그 참여가 높았다.

<표 V-1-27>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정도_등하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 으로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6	22.6	23.8	23.1	14.8	100.0 (1,219)	3.0 (1.3)
어머니	23.4	23.2	21.5	19.5	12.3	100.0 (594)	2.7 (1.3)
아버지	8.2	22.1	25.9	26.6	17.3	100.0 (625)	3.2 (1.2)
t							-6.7***
거주지							
대도시	12.0	22.8	23.0	26.2	16.1	100.0 (492)	3.1 (1.3)
중소도시	17.2	22.2	23.9	22.0	14.6	100.0 (540)	2.9 (1.3)
농어촌지역	20.3	23.5	25.7	18.2	12.3	100.0 (187)	2.8 (1.3)
F							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7	18.1	24.7	27.4	18.1	100.0 (635)	3.2 (1.3)
맞벌이 아님	20.0	27.6	22.9	18.4	11.0	100.0 (580)	2.7 (1.3)
t							6.8***

* p < .05, ** p < .01, *** p < .001

4) 영아기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영아 자녀를 키우는 시기는 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심하게 체감되는 시기로 부부의 양육 분담에의 요구가 높은 때이다. 이에 자녀가 3세 이전 시기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정도를 물품구매, 생활습관지도, 우유 먹이기나 목욕 등 돌봄, 자녀와의 놀이 등으로 구분하여 그 참여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유아나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라면 자녀가 3세까지 육아에 참여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답하였다. <표 V-1-28>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경우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참여 경향을 보였고,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는 경우는 3.7점으로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0년에 조사한 아동패널 데이터(3세 시기)에서는 어머니에게만 질문을 하여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현재 시점의 전체 수치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표 V-1-29~32>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어머니가 응답한 수치에 비해서는 아버지의 참여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10년간 아버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에 대한 참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V-1-28〉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 전체

단위: %

구분	2021년	2010 (아동패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3.7 (1.0)	3.6 (1.2)
2.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8 (0.9)	3.8 (1.0)
3.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3.9 (1.0)	3.7 (1.1)
4.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3.8 (0.9)	3.7 (1.1)

주: 1)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2)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참여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V-1-29>에서와 같이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 자녀가 1명인 경우(3.8점)의 참여가 3명인 경우(3.6점)보다 높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1점)

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4점)보다 높았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3.8점)에 농어촌 거주하는 경우(3.6점)보다 그 참여가 높았다.

〈표 V-1-29〉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이전)_물품구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	9.8	19.9	43.0	23.9	100.0 (1,219)	3.7 (1.0)
자녀 수							
1명	3.7	8.8	17.7	41.9	27.9	100.0 (599)	3.8 (1.1)
2명	3.6	10.5	19.8	45.3	20.8	100.0 (505)	3.7 (1.0)
3명 이상	1.7	12.2	31.3	38.3	16.5	100.0 (115)	3.6 (1.0)
F							3.9*
부모							
어머니	6.9	16.7	22.7	36.5	17.2	100.0 (594)	3.4 (1.2)
아버지	0.2	3.4	17.1	49.1	30.2	100.0 (625)	4.1 (0.8)
t							-11.5***
거주지							
대도시	2.8	10.2	18.5	44.5	24.0	100.0 (492)	3.8 (1.0)
중소도시	3.5	9.1	19.6	41.7	26.1	100.0 (540)	3.8 (1.0)
농어촌지역	4.8	11.2	24.1	42.8	17.1	100.0 (187)	3.6 (1.1)
F							3.3*
아동패널 (3차조사)							
2010 어머니	4.2	17.8	20.4	31.4	26.2	100.0 (1,762)	3.6 (1.2)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참여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표 V-1-30〉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 자녀가 1명인 경우(3.9점)의 참여가 3명인 경우(3.5점)보다 높았고, 영아자녀를 둔 경우(4점), 유아나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7점)보다 참여가 높았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6점) 보다 높았다.

〈표 V-1-30〉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생활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7.1	23.6	46.0	22.2	100.0 (1,219)	3.8 (0.9)
자녀 수							
1명	0.7	4.8	21.2	47.4	25.9	100.0 (599)	3.9 (0.8)
2명	1.6	7.7	25.0	46.7	19.0	100.0 (505)	3.7 (0.9)
3명 이상	0.9	15.7	30.4	35.7	17.4	100.0 (115)	3.5 (1.0)
F							12.8*** ^(a)
자녀 연령							
영아	0.2	3.6	20.4	45.9	29.9	100.0 (412)	4.0 (0.8)
유아	1.7	7.6	27.0	43.7	19.9	100.0 (407)	3.7 (0.9)
초등 저학년	1.3	10.0	23.5	48.5	16.8	100.0 (400)	3.7 (0.9)
F							16.3*** ^(a)
부모							
어머니	2.2	12.8	27.9	38.6	18.5	100.0 (594)	3.6 (1.0)
아버지	0.0	1.6	19.5	53.1	25.8	100.0 (625)	4.0 (0.7)
t							-8.9***
아동패널 (3차조사)							
2010 어머니	1.3	9.4	24.2	41.0	24.1	100.0 (1765)	3.8 (1.0)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참여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 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표 V-1-31〉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에 대한 결과로, 전체 평균 3.9점으로 높은 참여를 보이는 영역이다. 20~30대의 경우 (3.9점)가 40~50대(3.7점)에 비해 참여가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4점)의 참여가 2명인 경우(3.8점), 3명인 경우(3.5점)보다 높았다. 영아자녀를 둔 경우(4.1점), 유아(3.8점)나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6점)보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1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6점)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에서 아닌 경우보다 아버지의 참여가 높았다.

〈표 V-1-31〉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돌봄(목욕 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	8.0	20.1	38.1	30.7	100.0 (1,219)	3.9 (1.0)
연령							
20~30대	2.7	7.3	18.5	35.5	35.9	100.0 (696)	3.9 (1.0)
40~50대	3.6	9.0	22.2	41.5	23.7	100.0 (523)	3.7 (1.0)
t							3.6***
자녀 수							
1명	2.7	6.3	19.0	35.7	36.2	100.0 (599)	4.0 (1.0)
2명	3.2	7.7	21.0	41.6	26.5	100.0 (505)	3.8 (1.0)
3명 이상	5.2	18.3	21.7	34.8	20.0	100.0 (115)	3.5 (1.2)
F							12.3*** ^(a)
자녀 연령							
영아	1.9	5.6	14.3	35.7	42.5	100.0 (412)	4.1 (1.0)
유아	3.2	8.8	20.4	38.8	28.7	100.0 (407)	3.8 (1.0)
초등 저학년	4.3	9.8	25.8	39.8	20.5	100.0 (400)	3.6 (1.0)
F							23.4*** ^(a)
부모							
어머니	6.1	11.8	22.9	33.5	25.8	100.0 (594)	3.6 (1.2)
아버지	0.3	4.5	17.4	42.4	35.4	100.0 (625)	4.1 (0.9)
t							-8.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	6.1	20.2	38.6	32.4	100.0 (635)	3.9 (1.0)
맞벌이 아님	3.6	10.2	20.2	37.6	28.4	100.0 (580)	3.8 (1.1)
t							2.5*
아동패널 (3차조사)							
2010 어머니	2.9	11.5	23.0	31.6	31.0	100.0 (1760)	3.7 (1.1)

* $p < .05$,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참여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표 V-1-32〉는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에 대한 결과로, 전체 평균 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이는 영역이다. 20~30대의 경우(3.9점)가 40~50대(3.7점)에 비해 참여가 높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참여(4점)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버지의 참여(3.6점)보다 높았다.

〈표 V-1-32〉 자녀 양육에 아버지 참여 정도(3세 이전)_놀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7.8	27.2	37.9	26.5	100.0 (1,219)	3.8 (0.9)
연령							
20~30대	0.7	6.6	25.7	35.3	31.6	100.0 (696)	3.9 (0.9)
40~50대	0.6	9.4	29.1	41.3	19.7	100.0 (523)	3.7 (0.9)
t							3.8***
부모							
어머니	1.3	12.6	30.6	31.3	24.1	100.0 (594)	3.6 (1.0)
아버지	0.0	3.2	23.8	44.2	28.8	100.0 (625)	4.0 (0.8)
t							-6.5***
아동패널 (3차조사)							
2010 어머니	1.4	10.1	27.1	34.0	27.5	100.0 (1760)	3.7 (1.0)

*** $p < .001$

주: 한국아동패널 3차조사(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참여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아동패널 아동은 2008년 출생 아동 대상으로 3차조사의 경우 3세 아동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영아, 유아, 초 등저학년 포함)와의 비교에서 주의가 필요함.

이처럼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다른 부분과 유사하게 연령으로는 20~30대에, 자녀를 1명 둔 경우,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 아버지 스스로의 평가가 다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가정 내 양육 환경 및 육아문화

가정 안에 형성된 육아관련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단과 만족정도, 자녀와의 갈등 및 그 원인,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예의 어려움과 변화를 위한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1)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가정 내 양육환경의 평가를 위해 양육에 대한 가치인정, 공평한 양육 분담에 대한 인식,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가족 내 지지,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양육공간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가 〈표 V-1-33〉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4.1점)와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1점)에 대한 동

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에 반해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3.3 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여 인식은 높으나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침을 보여준다.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3.7점)와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3.7점)에 대한 동의도 높은 편이다.

〈표 V-1-33〉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4.1 (1.0)
2.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1 (0.9)
3.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3.3 (1.2)
4.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3.7 (1.0)
5. 우리 부부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3.6 (1.0)
6.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3.7 (1.0)
7.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조부모, 외조부모, 친척 등).	3.5 (1.3)
8. 힘들 때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5 (1.0)
9.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3.6 (0.9)
10. 때로는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3.4 (1.2)
11.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3.6 (0.9)

주: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우리 가정에서는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4〉와 같다. 20~30대(4.1점)에서 40~50대(4점)보다, 자녀가 1명 인 경우(4.2점)에 2명(4점)이나 3명 인 경우(3.9점)보다, 아버지들이(4.3점) 어머니 들(3.8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4.1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9점)보다, 맞벌이 가구(4.1점)에서 아닌 경우(4점) 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표 V-1-34〉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5.1	16.3	41.8	35.8	100.0 (1,215)	4.1 (0.9)
연령							
20~30대	0.7	4.9	14.8	41.2	38.4	100.0 (695)	4.1 (0.9)
40~50대	1.3	5.4	18.3	42.7	32.3	100.0 (520)	4.0 (0.9)
t							2.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수							
1명	0.5	4.5	14.4	40.0	40.5	100.0 (597)	4.2 (0.9)
2명	1.4	4.8	17.3	43.7	32.8	100.0 (503)	4.0 (0.9)
3명 이상	1.7	9.6	21.7	42.6	24.3	100.0 (115)	3.8 (1.0)
F							9.5***
자녀 연령							
영아	0.2	4.4	11.2	37.1	47.1	100.0 (410)	4.3 (0.8)
유아	0.5	6.4	17.0	45.6	30.5	100.0 (406)	4.0 (0.9)
초등 저학년	2.3	4.5	20.8	42.9	29.6	100.0 (399)	3.9 (0.9)
F							16.2***
어머니	1.9	8.9	20.9	40.9	27.4	100.0 (594)	3.8 (1.0)
아버지	0.2	1.4	11.9	42.7	43.8	100.0 (621)	4.3 (0.7)
t							-9.0***
대도시	1.0	3.9	15.9	43.0	36.3	100.0 (491)	4.1 (0.9)
중소도시	0.9	5.8	15.3	39.5	38.5	100.0 (537)	4.1 (0.9)
농어촌지역	1.1	6.4	20.3	45.5	26.7	100.0 (187)	3.9 (0.9)
F							3.5*
맞벌이	0.8	4.3	16.2	39.8	38.9	100.0 (635)	4.1 (0.9)
맞벌이 아님	1.2	6.0	16.4	44.0	32.4	100.0 (580)	4.0 (0.9)
t							2.2*

* $p < .05$, *** $p < .001$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5>와 같다. 20~30대(4.2점)에서 40~50대(4점)보다, 아버지들이(4.3점) 어머니들(3.8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1-35> 가정 내 양육 환경_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	6.3	12.4	40.2	39.4	100.0 (1,215)	4.1 1.0
연령							
20~30대	1.4	5.2	11.1	38.4	43.9	100.0 (695)	4.2 0.9
40~50대	1.7	7.9	14.2	42.7	33.5	100.0 (520)	4.0 1.0
t							3.6***
부모							
어머니	3.0	11.1	15.7	38.9	31.3	100.0 (594)	3.8 1.1
아버지	0.2	1.8	9.3	41.5	47.2	100.0 (621)	4.3 0.7
t							-9.3***

*** $p < .001$

인식이 아닌 실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우리 가정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6>과 같이 동의정도가 3.3점이다. 20~30대(3.4점)에서 40~50대(3.2점)보다, 자녀가 1명인 경우(3.4점)에 2명(3.2점)이나 3명 인 경우(2.8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영아 자녀를 둔 경우(3.5점)가 유아(3.3점),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점)보다 높았고, 아버지들이(3.6점) 어머니들(2.9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대도시(3.4점)와 중소도시(3.3점)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1점)보다, 맞벌이 가구(3.4점)에서 아닌 경우(3.1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아닌 경우보다 높았다.

<표 V-1-36> 가정 내 양육 환경_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	21.5	28.1	27.7	16.9	100.0 (1,215)	3.3 (1.2)
연령							
20~30대	5.2	20.3	27.5	27.2	19.9	100.0 (695)	3.4 (1.2)
40~50대	6.9	23.1	28.8	28.3	12.9	100.0 (520)	3.2 (1.1)
t							2.9**
자녀 수							
1명	4.5	17.8	28.1	28.8	20.8	100.0 (597)	3.4 (1.1)
2명	6.2	22.5	30.2	26.8	14.3	100.0 (503)	3.2 (1.1)
3명 이상	12.2	36.5	18.3	25.2	7.8	100.0 (115)	2.8 (1.2)
F							16.9***
자녀 연령							
영아	3.9	18.5	21.7	32.2	23.7	100.0 (410)	3.5 (1.2)
유아	5.4	19.5	33.7	26.4	15.0	100.0 (406)	3.3 (1.1)
초등 저학년	8.5	26.6	28.8	24.3	11.8	100.0 (399)	3.0 (1.1)
F							18.9***
부모							
어머니	11.1	29.1	27.1	21.0	11.6	100.0 (594)	2.9 (1.2)
아버지	1.0	14.2	29.0	34.0	21.9	100.0 (621)	3.6 (1.0)
t							-10.9***
거주지							
대도시	4.5	19.1	27.5	31.4	17.5	100.0 (491)	3.4 (1.1)
중소도시	6.1	22.2	28.5	25.5	17.7	100.0 (537)	3.3 (1.2)
농어촌지역	9.1	25.7	28.3	24.1	12.8	100.0 (187)	3.1 (1.2)
F							5.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	17.8	28.2	29.1	20.0	100.0 (635)	3.4 (1.1)
맞벌이 아님	7.1	25.5	27.9	26.0	13.4	100.0 (580)	3.1 (1.1)
t							4.3***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7.8	22.6	26.7	25.8	17.1	100.0 (217)	3.2 (1.2)
300~400만원 미만	7.1	23.4	25.3	28.2	16.0	100.0 (312)	3.2 (1.2)
400~500만원 미만	6.1	25.4	32.0	23.0	13.5	100.0 (244)	3.1 (1.1)
500~600만원 미만	1.2	16.1	31.0	29.2	22.6	100.0 (168)	3.6 (1.0)
600만원 이상	5.8	18.2	27.0	31.8	17.2	100.0 (274)	3.4 (1.1)
F							4.3**

** $p < .01$, *** $p < .001$

‘우리 가정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7>과 같다. 그 동의정도는 3.7점이며, 20~30대(3.8점)에서 40~50대(3.6점)보다, 자녀가 1명인 경우(3.8점)에 2명(3.7점)이나 3명인 경우(3.4점)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이(3.9점) 어머니들(3.5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1-37>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	10.0	23.8	42.6	21.2	100.0 (1,215)	3.7 (1.0)
연령							
20~30대	2.2	8.6	23.2	42.3	23.7	100.0 (695)	3.8 (1.0)
40~50대	2.7	11.7	24.6	43.1	17.9	100.0 (520)	3.6 (1.0)
t							2.6**
자녀 수							
1명	2.2	8.0	22.4	42.0	25.3	100.0 (597)	3.8 (1.0)
2명	2.2	11.1	24.5	43.9	18.3	100.0 (503)	3.7 (1.0)
3명 이상	4.3	14.8	27.8	40.0	13.0	100.0 (115)	3.4 (1.0)
F							8.4***
부모							
어머니	4.0	14.5	25.8	39.7	16.0	100.0 (594)	3.5 (1.1)
아버지	0.8	5.6	21.9	45.4	26.2	100.0 (621)	3.9 (0.9)
t							-7.5***

** $p < .01$, *** $p < .001$

‘우리 가정은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8>과 같다. 그 동의정도는 3.6점이며, 20~30대(3.7점)에서 40~50대(3.6점)보다, 아버지들이(3.9점) 어머니들(3.4점)보다, 대도시(3.7점)와 중소도시(3.7점)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5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1-38>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10.3	24.4	40.6	20.9	100.0 (1,215)	3.6 (1.0)
연령							
20~30대	3.6	9.6	24.0	38.8	23.9	100.0 (695)	3.7 (1.0)
40~50대	4.0	11.2	25.0	42.9	16.9	100.0 (520)	3.6 (1.0)
t							2.0*
어머니	6.9	15.5	26.3	34.2	17.2	100.0 (594)	3.4 (1.1)
아버지	0.8	5.3	22.7	46.7	24.5	100.0 (621)	3.9 (0.9)
t							-8.5***
대도시	3.7	8.1	25.1	42.0	21.2	100.0 (491)	3.7 (1.0)
중소도시	3.9	11.0	22.0	41.0	22.2	100.0 (537)	3.7 (1.1)
농어촌지역	3.7	13.9	29.9	35.8	16.6	100.0 (187)	3.5 (1.0)
F							3.0*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가정은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39>와 같다. 그 동의정도는 3.7점이며, 20~30대(3.8점)에서 40~50대(3.6점)보다, 자녀가 1명인 경우(3.8점)에 2명(3.6점)이나 3명 인 경우(3.4점)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이(3.9점) 어머니들(3.5점)보다, 대도시(3.7점)와 중소도시(3.7점)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5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1-39〉 가정 내 양육 환경_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	7.7	25.3	42.5	20.8	100.0 (1,228)	3.7 (1.0)
연령							
20~30대	4.0	6.4	23.3	41.7	24.6	100.0 (700)	3.8 (1.0)
40~50대	3.4	9.3	28.0	43.6	15.7	100.0 (528)	3.6 (1.0)
t							3.0**
자녀 수							
1명	2.2	7.6	22.9	42.0	25.4	100.0 (603)	3.8 (1.0)
2명	4.9	6.9	27.1	43.7	17.5	100.0 (510)	3.6 (1.0)
3명 이상	7.0	11.3	30.4	40.0	11.3	100.0 (115)	3.4 (1.1)
F							11.3***
부모							
어머니	6.8	10.9	25.2	38.5	18.6	100.0 (603)	3.5 (1.1)
아버지	0.8	4.5	25.4	46.4	22.9	100.0 (625)	3.9 (0.8)
t							-6.2***
거주지							
대도시	3.6	6.7	22.6	45.5	21.6	100.0 (495)	3.7 (1.0)
중소도시	3.7	7.7	25.6	40.8	22.2	100.0 (544)	3.7 (1.0)
농어촌지역	4.2	10.1	31.7	39.7	14.3	100.0 (189)	3.5 (1.0)
F							4.4*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가정은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40〉과 같다. 그 동의정도는 3.5점이며, 자녀가 영아인 경우(3.7점)에 유아(3.4점)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3.4점)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이(3.6점) 어머니들(3.4점)보다, 대도시(3.6점)와 중소도시(3.5점)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2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3.6점)에서 아닌 경우(3.3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40〉 가정 내 양육 환경_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4	13.9	19.3	33.8	23.5	100.0 (1,228)	3.5 (1.3)
자녀 연령							
영아	8.7	10.2	15.7	34.6	30.8	100.0 (413)	3.7 (1.2)
유아	9.3	15.4	23.2	32.4	19.8	100.0 (410)	3.4 (1.2)
초등 저학년	10.4	16.3	19.0	34.3	20.0	100.0 (405)	3.4 (1.3)
F							8.4***
부모							
어머니	13.1	14.4	17.4	30.7	24.4	100.0 (603)	3.4 (1.3)
아버지	5.9	13.4	21.1	36.8	22.7	100.0 (625)	3.6 (1.2)
t							-2.5*
거주지							
대도시	8.7	11.9	18.2	36.2	25.1	100.0 (495)	3.6 (1.2)
중소도시	9.0	14.5	18.4	33.3	24.8	100.0 (544)	3.5 (1.3)
농어촌지역	12.7	17.5	24.9	29.1	15.9	100.0 (189)	3.2 (1.3)
F							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8.0	10.6	20.2	32.8	28.5	100.0 (635)	3.6 (1.2)
맞벌이 아님	11.2	17.8	18.1	34.7	18.3	100.0 (580)	3.3 (1.3)
t							4.5***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가정은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41〉과 같다. 그 동의정도는 3.5점이며, 맞벌이 가구(3.6점)에서 아닌 경우(3.4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41〉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	11.2	29.6	39.2	16.0	100.0 (1,228)	3.5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	9.3	31.2	39.2	17.5	100.0 (635)	3.6 (1.0)
맞벌이 아님	5.3	13.1	27.8	39.0	14.8	100.0 (580)	3.4 (1.1)
t							2.5*

* $p < .05$

‘우리 가정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42>와 같다. 그 동의정도는 3.6점이며, 20~30대(3.6점)에서 40~50대(3.5점)보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3.7점)에 유아나 초등 저학년(3.5점)보다 높았다. 대도시(3.6점)와 중소도시(3.6점)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4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3.6점)에서 아님 경우(3.5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42> 가정 내 양육 환경_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	9.5	31.6	40.9	15.4	100.0 (1,228)	3.6 (0.9)
연령							
20~30대	2.9	9.1	29.4	40.7	17.9	100.0 (700)	3.6 (1.0)
40~50대	2.3	10.0	34.5	41.1	12.1	100.0 (528)	3.5 (0.9)
t							2.0*
자녀 연령							
영아	3.4	7.3	26.6	44.3	18.4	100.0 (413)	3.7 (1.0)
유아	1.5	11.2	33.7	39.0	14.6	100.0 (410)	3.5 (0.9)
초등 저학년	3.0	10.1	34.6	39.3	13.1	100.0 (405)	3.5 (0.9)
F							3.8*
거주지							
대도시	1.6	7.7	31.5	42.6	16.6	100.0 (495)	3.6 (0.9)
중소도시	3.1	10.5	29.0	41.9	15.4	100.0 (544)	3.6 (1.0)
농어촌지역	3.7	11.6	39.2	33.3	12.2	100.0 (189)	3.4 (1.0)
F							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	9.1	30.6	41.7	16.9	100.0 (635)	3.6 (0.9)
맞벌이 아님	3.3	9.8	32.8	40.2	14.0	100.0 (580)	3.5 (1.0)
t							2.1*

* $p < .05$, ** $p < .01$

‘우리 가정은 때로는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43>과 같다. 그 동의정도는 3.4점이며, 자녀가 1명(3.4점), 2명(3.4점)인 경우에 3명(3점)보다, 아버지(3.6점)가 어머니(3.3점)보다, 맞벌이 가구(3.5점)에서 아님 경우(3.3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3.5점)에서 500만원 미만인 가구들 보다 그 동의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V-1-43〉 가정 내 양육 환경_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2	16.0	25.7	34.1	17.0	100.0 (1,228)	3.4 (1.2)
자녀 수							
1명	6.3	15.4	24.9	35.2	18.2	100.0 (603)	3.4 (1.1)
2명	6.9	15.7	25.5	35.3	16.7	100.0 (510)	3.4 (1.1)
3명 이상	13.0	20.0	31.3	23.5	12.2	100.0 (115)	3.0 (1.2)
F							6.5**
어머니	11.4	18.7	24.0	29.9	15.9	100.0 (603)	3.2 (1.2)
아버지	3.0	13.3	27.4	38.2	18.1	100.0 (625)	3.6 (1.0)
t							-5.4***
맞벌이	5.4	15.0	26.3	33.9	19.5	100.0 (635)	3.5 (1.1)
맞벌이 아님	9.0	17.1	24.8	34.8	14.3	100.0 (580)	3.3 (1.2)
t							2.9**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1.9	14.6	26.5	31.4	15.5	100.0 (226)	3.2 (1.2)
300~400만원 미만	8.0	15.7	26.9	34.0	15.4	100.0 (312)	3.3 (1.2)
400~500만원 미만	7.8	18.0	24.1	33.5	16.7	100.0 (245)	3.3 (1.2)
500~600만원 미만	4.1	16.5	22.9	34.7	21.8	100.0 (170)	3.5 (1.1)
600만원 이상	3.6	15.3	26.9	36.7	17.5	100.0 (275)	3.5 (1.1)
F							2.5*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V-1-44〉와 같다. 그 동의 정도는 3.6점이며, 20~30대(3.7점)가 40~50대(3.5점)보다, 자녀가 1명(3.7점), 2명(3.6점)인 경우에 3명(3.4점)보다 높았다. 영아(3.7점)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3.7점)에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5점)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3.7점)에서 아님 경우(3.6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44〉 가정 내 양육 환경_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	8.3	29.2	44.4	16.0	100.0 (1,228)	3.6 (0.9)
연령							
20~30대	2.6	7.0	26.0	44.4	20.0	100.0 (700)	3.7 (0.9)
40~50대	1.5	10.0	33.5	44.3	10.6	100.0 (528)	3.5 (0.9)
t							3.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수							
1명	2.3	7.0	26.2	47.3	17.2	100.0 (603)	3.7 (0.9)
2명	1.8	9.0	30.6	43.5	15.1	100.0 (510)	3.6 (0.9)
3명 이상	2.6	12.2	39.1	33.0	13.0	100.0 (115)	3.4 (1.0)
F							5.0**
자녀 연령							
영아	2.4	9.0	22.3	46.2	20.1	100.0 (413)	3.7 (1.0)
유아	2.2	5.9	31.5	45.1	15.4	100.0 (410)	3.7 (0.9)
초등 저학년	1.7	10.1	34.1	41.7	12.3	100.0 (405)	3.5 (0.9)
F							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	6.9	29.4	44.4	17.6	100.0 (635)	3.7 (0.9)
맞벌이 아님	2.8	9.7	28.8	44.3	14.5	100.0 (580)	3.6 (0.9)
t							2.2*

* $p < .05$, ** $p < .01$, *** $p < .001$

2)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현재 가정 내 형성된 육아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V-1-45>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3%이며,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영아자녀를 둔 경우(3.7점)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아버지의 만족도(3.8점)가 어머니(3.4점)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3.7점)에서 아닌 경우(3.5점)보다, 월평균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가정의 육아문화에 만족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45> 가정 내 육아문화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별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 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8.8	27.0	53.0	9.6	100.0 (1,228)	3.6 (0.8)
자녀 연령							
영아	1.0	8.2	24.2	52.8	13.8	100.0 (413)	3.7 (0.8)
유아	1.7	9.0	27.1	54.6	7.6	100.0 (410)	3.6 (0.8)
초등 저학년	2.0	9.1	29.9	51.6	7.4	100.0 (405)	3.5 (0.8)
F							4.6*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별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 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							
어머니	2.8	15.1	30.0	43.6	8.5	100.0 (603)	3.4 (0.9)
아버지	0.3	2.7	24.2	62.1	10.7	100.0 (625)	3.8 (0.7)
t							-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6.6	25.0	56.2	10.9	100.0 (635)	3.7 (0.8)
맞벌이 아님	1.9	11.0	29.1	49.5	8.4	100.0 (580)	3.5 (0.9)
t							3.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4	12.8	31.4	47.8	7.5	100.0 (226)	3.5 (0.8)
300~400만원 미만	2.2	8.7	26.9	53.2	9.0	100.0 (312)	3.6 (0.9)
400~500만원 미만	2.0	9.0	26.9	54.3	7.8	100.0 (245)	3.6 (0.8)
500~600만원 미만	0.6	5.9	22.9	57.1	13.5	100.0 (170)	3.8 (0.8)
600만원 이상	1.8	7.3	26.2	53.5	11.3	100.0 (275)	3.7 (0.8)
F							3.1*

* $p < .05$, *** $p < .001$

3) 자녀양육 관련 갈등 빈도와 원인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빈도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얼마나 자주 갈등을 경험하는 지 확인하였다. <표 V-1-46>과 같이 ‘월 1회 이내로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4회 이내 정도로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는 경우가 40.2%, ‘주당 3~5회 정도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14.2%, 하루 한번 이상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3.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려했던 모든 변인 중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V-1-46〉 자녀 양육 관련 갈등 경험

단위: %(명)

구분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하루 한번 이상)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주당 3~5회)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 (월 4회 이내)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월 1회 이내)	계(수)
전체	3.5	14.2	40.2	42.1	100.0 (1,215)
부모					
어머니	4.7	16.5	40.4	38.4	100.0 (594)
아버지	2.3	12.1	40.1	45.6	100.0 (621)
X ² (df)	13.216(3)**				

* $p < .05$, ** $p < .01$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V-1-47〉과 같다.

자녀 훈육(생활지도)이 주요 갈등이라는 응답이 50%로 절반에 달하였다. 다음은 부부간 양육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응답이 25.2%로 이 두 가지 원인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양육비용 관련 9.5%, 사교육 등 자녀교육 관련 8.6%, 가족 간 양육지원 관련(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의 양육 지원) 4.4%, 거의 없다는 경우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훈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지만 20대~30대에서는 부부간 양육분담(27.9%)과 가족 간 양육지원관련(4.6%) 부분이 40대~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50대에서는 자녀 교육(사교육 포함) 관련(11.3%), 양육 비용관련(10.2%)된 부분이 20대~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30대에는 영유아 자녀, 40대~50대에는 유아나 초등저학년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간 양육 분담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31.7%로 높았고, 3명인 경우에는 자녀 교육(사교육 포함) 관련이라는 응답이 17.4%로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부부간 양육 분담 관련 36.3%, 양육비용 관련 10.2%, 유아 시기에는 자녀의 훈육이 54.2%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자녀 교육(사교육 포함) 관련 15%로 높은

응답을 보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향후 자녀연령별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 간 응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훈육(52.2%)과 부부간 양육 부담(27.6%)과 관련한 부분이 아버지의 경우는 양육비용(11.9%)과 자녀교육 관련(10.3%), 가족 간 양육지원관련(4.7%)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4)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긍정적 육아문화는 자녀를 키우는데 부정적 요소들이 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를 의미한다. 이에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가 <표 V-1-48>이다.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0.1%,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27.2%,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15.6%,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2.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으로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4%,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3.7% 등이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4.6%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어린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돌봄을 위한 시간의 요구가 많고,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부부간 양육 철학 및 양육태도로 인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V-1-47〉 자녀 양육 갈등 원인

단위: %(명)

구분	자녀 훈육 (생활지도) 관련	부부간 양육 분담 관련	양육 비용 관련	자녀 교육 (사교육 포함) 관련	가족 간 양육 지원 관련	기타	거의 없음	계(수)
전체	50.0	25.2	9.5	8.6	4.4	1.0	1.2	100.0 (1,215)
20~30대	49.6	27.9	9.1	6.6	4.6	0.9	1.3	100.0 (695)
40~50대	50.4	21.5	10.2	11.3	4.2	1.2	1.2	100.0 (520)
X ² (df)	13.317(6)*							
자녀 수								
1명	43.7	31.7	10.9	5.4	4.9	1.7	1.8	100.0 (597)
2명	56.5	19.1	8.7	10.5	4.0	0.4	0.8	100.0 (503)
3명 이상	53.9	18.3	6.1	17.4	4.3	0.0	0.0	100.0 (115)
X ² (df)	61.681(12)***							
자녀 연령								
영아	42.0	36.3	10.2	2.9	5.1	2.0	1.5	100.0 (410)
유아	54.2	21.2	9.1	8.1	4.9	0.5	2.0	100.0 (406)
초등 저학년	53.9	17.8	9.3	15.0	3.3	0.5	0.3	100.0 (399)
X ² (df)	87.070(12)***							
부모								
어머니	52.2	27.6	7.1	6.9	4.2	0.7	1.3	100.0 (594)
아버지	47.8	22.9	11.9	10.3	4.7	1.3	1.1	100.0 (621)
X ² (df)	16.830(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51.2	23.0	13.8	7.8	1.4	2.3	0.5	100.0 (217)
300~400만원 미만	49.7	28.5	9.3	6.1	2.9	1.6	1.9	100.0 (312)
400~500만원 미만	54.5	21.3	9.0	10.2	4.1	0.0	0.8	100.0 (244)
500~600만원 미만	49.4	25.6	6.0	10.1	7.1	1.2	0.6	100.0 (168)
600만원 이상	45.6	26.3	9.1	9.9	7.3	0.0	1.8	100.0 (274)
X ² (df)	44.439(24)**							

* $p < .05$, ** $p < .01$, *** $p < .001$

〈표 V-1-48〉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음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수)
전체	30.1	27.2	15.6	15.0	12.1	100.0 (1,215)
20~30대	26.8	28.9	15.4	15.3	13.7	100.0 (695)
40~50대	34.6	25.0	15.8	14.6	10.0	100.0 (520)
X ² (df)	11.184(4)*					
자녀 연령						
영아	23.4	30.5	15.1	14.6	16.3	100.0 (410)
유아	32.0	26.6	16.0	15.3	10.1	100.0 (406)
초등 저학년	35.1	24.6	15.5	15.0	9.8	100.0 (399)
X ² (df)	21.95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0	27.6	13.5	17.3	13.5	100.0 (635)
맞벌이 아님	32.4	26.9	17.8	12.4	10.5	100.0 (580)
X ² (df)	12.615(4)*					

* $p < .05$, ** $p < .01$, *** $p < .001$

5) 육아 현상 관련 인식

심층면담과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나는 ‘아동’과 ‘육아’에 대한 우리사회 일부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표 V-1-49>와 같이 ‘아이의 입장을 환영하는 ‘Yes kids Zone’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8점, ‘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3.2점,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2.5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4점,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2.4점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49> 육아 현상 관련 인식(전체)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3.2 (1.1)
2. 아이의 입장을 환영하는 ‘Yes kids Zone’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0.8)
3.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2.4 (1.1)
4.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4 (1.1)
5.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2.5 (1.1)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임.

‘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0~30대(3.3점)에서 40~50대(3.1점)보다 더 높은 동의를 보였고, 영유아를 기르는 가구(3.3점)에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점)보다, 맞벌이 가구(3.3점)에서 아닌 가구(3.1점)보다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아이의 입장을 환영하는 ‘Yes Kids Zone’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유의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50>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	23.6	23.1	37.5	9.9	100.0 (1,228)	3.2 (1.1)
연령							
20~30대	6.0	19.9	22.1	39.3	12.7	100.0 (700)	3.3 (1.1)
40~50대	5.5	28.6	24.4	35.2	6.3	100.0 (528)	3.1 (1.1)
t							4.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영아	5.6	21.8	22.0	36.6	14.0	100.0 (413)	3.3 (1.1)
유아	5.6	18.3	25.9	40.2	10.0	100.0 (410)	3.3 (1.1)
초등 저학년	6.2	30.9	21.5	35.8	5.7	100.0 (405)	3.0 (1.1)
F							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	21.4	24.1	38.4	11.8	100.0 (635)	3.3 (1.1)
맞벌이 아님	7.6	26.2	21.9	36.4	7.9	100.0 (580)	3.1 (1.1)
t							3.4***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6	23.5	27.0	32.3	10.6	100.0 (226)	3.2 (1.1)
300~400만원 미만	7.4	30.1	22.4	34.0	6.1	100.0 (312)	3.0 (1.1)
400~500만원 미만	4.5	23.7	20.0	40.8	11.0	100.0 (245)	3.3 (1.1)
500~600만원 미만	5.3	20.0	25.3	40.0	9.4	100.0 (170)	3.3 (1.1)
600만원 이상	4.7	18.5	22.2	41.5	13.1	100.0 (275)	3.4 (1.1)
F							5.3***

*** $p < .001$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 V-1-51>과 같이 전체 2.4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고, 40~50대의 동의정도(2.5점)가 20~30대(2.3점)보다 높았다. 또한 이에 대해 아버지들의 동의정도(2.6점)가 어머니들(2.2점)보다 높았다.

<표 V-1-51>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9	36.2	24.8	13.0	3.1	100.0 (1,228)	2.4 1.1
연령							
20~30대	24.1	38.4	23.0	11.3	3.1	100.0 (700)	2.3 1.1
40~50대	21.2	33.3	27.1	15.3	3.0	100.0 (528)	2.5 1.1
t							-2.4*
어머니	27.0	39.1	23.9	8.0	2.0	100.0 (603)	2.2 1.0
아버지	18.9	33.4	25.6	17.9	4.2	100.0 (625)	2.6 1.1
t							-6.1***

* $p < .05$, *** $p < .001$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 V-1-52>와 같이 전체 2.4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40~50대의 동의정도(2.6점)가 20~30대(2.3점)보다 높았고,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2.6점)에 유아(2.4점)나 영아(2.3점)를 둔 경우보다, 아버지의 경우(2.7점)에 어머니(2.1점)보다, 맞벌이인 경우(2.5점)에 아닌 경우(2.3점)보다 그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52>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5	36.0	25.7	13.4	3.5	100.0 (1,228)	2.4 1.1
연령							
20~30대	27.3	37.0	22.3	10.1	3.3	100.0 (700)	2.3 1.1
40~50대	13.8	34.7	30.1	17.6	3.8	100.0 (528)	2.6 1.0
t							-6.2***
자녀 연령							
영아	26.2	37.0	23.5	11.4	1.9	100.0 (413)	2.3 1.0
유아	22.0	35.4	25.9	12.2	4.6	100.0 (410)	2.4 1.1
초등 저학년	16.3	35.6	27.7	16.5	4.0	100.0 (405)	2.6 1.1
F							8.3***
부모							
어머니	30.2	39.3	20.9	8.3	1.3	100.0 (603)	2.1 1.0
아버지	13.1	32.8	30.2	18.2	5.6	100.0 (625)	2.7 1.1
t							-1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7	36.1	27.1	14.5	3.6	100.0 (635)	2.5 1.1
맞벌이 아님	24.7	35.9	23.8	12.2	3.4	100.0 (580)	2.3 1.1
t							2.3*

* $p < .05$, *** $p < .001$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2.5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표 V-1-53>과 같이 40~50대의 동의정도(2.7점)가 20~30대(2.4점)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경우(2.7점)에 어머니(2.3점)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2.6점)에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2.4점)보다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1-53〉 아동과 육아관련 의견_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3	30.6	23.6	19.7	3.7	100.0 (1,228)	2.5	1.1
연령								
20~30대	27.1	30.6	20.9	17.7	3.7	100.0 (700)	2.4	1.2
40~50대	15.9	30.7	27.3	22.3	3.8	100.0 (528)	2.7	1.1
t							-4.1***	
부모								
어머니	27.0	34.2	22.7	13.6	2.5	100.0 (603)	2.3	1.1
아버지	17.8	27.2	24.5	25.6	5.0	100.0 (625)	2.7	1.2
t							-6.6***	
거주지								
대도시	20.4	27.9	25.5	22.0	4.2	100.0 (495)	2.6	1.2
중소도시	24.3	32.2	21.7	18.4	3.5	100.0 (544)	2.4	1.1
농어촌지역	21.7	33.3	24.3	17.5	3.2	100.0 (189)	2.5	1.1
F							3.1*	

* $p < .05$, $p < .001$

6) 육아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내용으로는 목욕이나 수유, 기저귀 같이 등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6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아동 안전교육 52%, 자녀의 생활지도 및 훈육에 대한 교육이 50.3%, 아동학대 예방교육 42.3%, 아버지 교육 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직장에서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교육의 경우 어머니도 남편이 이수한 경우 답한 것으로 응답자 전체 중 28%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하여 다른 부모교육보다 아버지 교육경험이 적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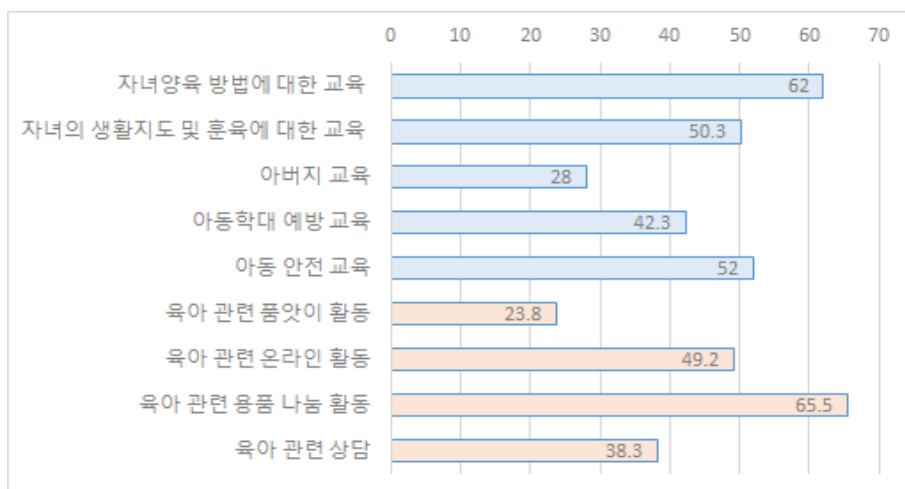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관련 활동으로는 육아관련 용품의 나눔 활동이 65.5%로 가장 많았다. 육아용품의 나눔은 직장동료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나눔,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지역맘 카페, 00마켓)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맘 카페

활동 등 육아 관련 온라인 활동(49.2%)은 거의 응답자의 절반이 참여한 경험을 보였다. 언어발달, 자녀와의 관계 등 육아관련 상담(38.3%)이나 육아 관련 품앗이(돌봄이나 교육) 활동(23.8%)에 대한 참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표 V-1-54〉 자녀양육 관련 교육/활동 경험

구분	단위: % 있다
1.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예시: 기저귀 갈기, 목욕 등)	62.0
2. 자녀의 생활지도 및 훈육에 대한 교육	50.3
3. 아버지 교육	28.0
4. 아동학대 예방 교육	42.3
5. 아동 안전 교육	52.0
6. 육아 관련 품앗이(돌봄이나 교육) 활동	23.8
7. 육아 관련 온라인 활동(지역맘 카페 활동 등)	49.2
8. 육아 관련 용품 나눔 활동	65.5
9. 육아 관련 상담(예: 언어발달, 자녀와의 관계)	38.3

[그림 V-1-2] 자녀양육 관련 교육/활동 경험



주: 본 조사결과인 〈표 V-1-54〉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평가

양육자의 주요한 양육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육아환경을 진단하고 양육과 관련하여 체감되는 양상에 대해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지역사회 육아환경 평가 및 체감

1) 지역사회 육아환경 평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토대로 육아환경에 대해 5점 척도로 그 동의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V-2-1>과 같이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와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등 체감되는 지역사회 가치와 인식에 대한 부분의 동의 높아 3.7점의 응답을 보였다.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부분도 3.7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에 반해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문항에는 가장 낮은 2.9점으로 평가되었고, ‘우리 동네에는 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처럼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 ‘우리 동네에는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에 대해서는 3점 정도로 낮은 평가가 나왔다.

<표 V-2-1> 지역사회 내 육아환경 평가(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3.7 (0.7)
2.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3.7 (0.8)
3. 우리 동네는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 (놀이터의 소음이나 층간 소음 등)	3.5 (0.9)
4.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3.7 (1.0)
5.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3.5 (1.0)
6. 우리 동네에는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 (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	3.0 (1.0)
7. 우리 동네에는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3.0 (1.0)
8. 우리 동네에는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이 있다. (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나눔터 등)	3.3 (0.9)
9. 우리 동네에는 양육지원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3.1 (0.9)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2.9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지역사회 육아환경을 진단하는 문항 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육아 친화적 분위기)’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양육 가치 인정)’에 대해서는 평균 3.7점 정도의 동의를 보이며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놀이터의 소음이나 층간 소음 등을 떠올리며 ‘우리 동네는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라는 문항에는 전체 평균 3.5점의 동의를 보였는데, 아버지들(3.6점)이 어머니들(3.4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2-2〉 지역사회 육아 환경_아이다움 인정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	9.5	33.5	44.9	10.0	100.0 (1,228)	3.5 (0.9)
부모							
어머니	3.0	10.4	36.0	41.0	9.6	100.0 (603)	3.4 (0.9)
아버지	1.3	8.6	31.0	48.6	10.4	100.0 (625)	3.6 (0.8)
t							-2.9**

** $p < .01$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는 문항에는 3.5점 정도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표 V-2-3〉과 같이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3.6점)에서 농어촌 지역(3.4점)에 비해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들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2-3〉 지역사회 육아 환경_안전한 놀이공간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10.8	32.7	39.8	13.4	100.0 (1,228)	3.5 (1.0)
거주지							
대도시	3.4	12.1	30.7	41.0	12.7	100.0 (495)	3.5 (1.0)
중소도시	2.0	9.6	34.6	38.4	15.4	100.0 (544)	3.6 (0.9)
농어촌지역	6.3	11.1	32.3	40.7	9.5	100.0 (189)	3.4 (1.0)
F							3.1*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6.6	14.6	38.5	26.1	14.2	100.0 (226)	3.3 (1.1)
300~400만원 미만	3.5	11.2	33.7	40.1	11.5	100.0 (312)	3.4 (1.0)
400~500만원 미만	2.0	7.8	31.0	42.9	16.3	100.0 (245)	3.6 (0.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500~600만원 미만	2.4	11.8	28.2	42.9	14.7	100.0 (170)	3.6 (1.0)
600만원 이상	1.8	9.5	30.9	46.2	11.6	100.0 (275)	3.6 (0.9)
F							5.3***

* $p < .05$, *** $p < .001$

‘우리 동네에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요청할 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이 있다.’는 문항에는 <표 V-2-4>와 같이 전체 평균 3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고, 이에 대해 어머니들은 2.9점, 아버지는 3.1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과는 대도시(3.1점)보다 농어촌 지역(2.8점)에서 자녀 양육 시 긴급 돌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4> 지역사회 육아 환경_긴급돌봄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1	23.1	38.5	24.6	5.6	100.0 (1,228)	3.0 (1.0)
부모							
어머니	11.6	23.7	35.3	24.4	5.0	100.0 (603)	2.9 (1.1)
아버지	4.8	22.6	41.6	24.8	6.2	100.0 (625)	3.1 (1.0)
t							-3.1**
거주지							
대도시	5.5	20.4	42.4	25.5	6.3	100.0 (495)	3.1 (1.0)
중소도시	9.2	23.3	37.3	24.6	5.5	100.0 (544)	2.9 (1.0)
농어촌지역	12.2	29.6	31.7	22.2	4.2	100.0 (189)	2.8 (1.1)
F							6.3**

** $p < .01$

‘우리 동네에는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는 문항에는 <표 V-2-5>와 같이 전체 평균 3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고, 이에 대해 어머니들은 2.9점, 아버지는 3.1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3.1점)보다 농어촌 지역(2.9점)에서 낮은 동의를 보여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적음을 보여준다.

〈표 V-2-5〉 지역사회 육아 환경_양육정보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1	22.0	41.3	25.3	5.3	100.0 (1,228)	3.0 (1.0)
부모							
어머니	8.5	23.5	40.0	23.2	4.8	100.0 (603)	2.9 (1.0)
아버지	3.8	20.5	42.6	27.4	5.8	100.0 (625)	3.1 (0.9)
t							-3.3***
거주지							
대도시	4.2	19.8	43.6	27.1	5.3	100.0 (495)	3.1 (0.9)
중소도시	6.4	22.4	40.4	25.7	5.0	100.0 (544)	3.0 (1.0)
농어촌지역	10.1	26.5	37.6	19.6	6.3	100.0 (189)	2.9 (1.0)
F							4.2*

* $p < .05$, *** $p < .001$

‘우리 동네에는 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나눔터 등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이 있다.’라는 문항에는 〈표 V-2-6〉과 같이, 전체 평균 3.3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20~30대(3.4점)가 40~50대 부모들(3.2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여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어머니들(3.4점)이 아버지들(3.2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자칫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양육시기에 소통공간의 필요성은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를 포함하는 여러 선행연구(권미경, 황선영, 이혜민 외, 2019, 권미경, 박원순, 김지현 외, 2020)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표 V-2-6〉 지역사회 육아 환경_소통 공간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13.8	37.3	37.3	7.7	100.0 (1,228)	3.3 (0.9)
연령							
20~30대	3.0	14.7	34.1	38.6	9.6	100.0 (700)	3.4 (0.9)
40~50대	4.9	12.7	41.5	35.6	5.3	100.0 (528)	3.2 (0.9)
t							2.5*
부모							
어머니	3.8	13.4	34.3	37.8	10.6	100.0 (603)	3.4 (1.0)
아버지	3.8	14.2	40.2	36.8	5.0	100.0 (625)	3.2 (0.9)
t							2.5*

* $p < .05$

‘우리 동네에는 보육, 교육, 돌봄 등 양육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항에는 <표 V-2-7>과 같이 전체 평균 3.1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대도시(3.1점)보다 농어촌 지역(2.9점)에서 낮은 동의를 보여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체감이 높았다.

<표 V-2-7> 지역사회 육아 환경_서비스 인프라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9	20.3	43.9	25.7	5.3	100.0 (1,228)	3.1 (0.9)
거주지							
대도시	3.4	17.0	47.1	27.3	5.3	100.0 (495)	3.1 (0.9)
중소도시	5.1	22.2	41.5	25.6	5.5	100.0 (544)	3.0 (1.0)
농어촌지역	7.9	23.3	42.3	21.7	4.8	100.0 (189)	2.9 (1.0)
F							4.1*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8.4	24.8	41.2	17.3	8.4	100.0 (226)	2.9 (1.0)
300~400만원 미만	5.8	22.4	46.8	20.8	4.2	100.0 (312)	3.0 (0.9)
400~500만원 미만	3.7	20.4	44.1	28.2	3.7	100.0 (245)	3.1 (0.9)
500~600만원 미만	3.5	14.7	43.5	31.8	6.5	100.0 (170)	3.2 (0.9)
600만원 이상	2.9	17.5	42.9	32.0	4.7	100.0 (275)	3.2 (0.9)
F							4.9***

* $p < .05$. *** $p < .001$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는 <표 V-2-8>과 같이 전체 평균 2.9점 정도의 낮은 동의를 보였다. 어머니들(2.8점)이 아버지들(3점) 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낮아 정부양육지원에의 개선요구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대도시(3점)보다 농어촌 지역(2.8점)에서 낮은 동의를 보여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서비스 개선에의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2-8〉 지역사회 육아 환경_정부지원 서비스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1	22.2	39.8	22.6	5.3	100.0 (1,228)	2.9 (1.0)
부모							
어머니	11.9	26.9	35.3	21.1	4.8	100.0 (603)	2.8 (1.1)
아버지	8.3	17.8	44.2	24.0	5.8	100.0 (625)	3.0 (1.0)
t							-3.6***
거주지							
대도시	8.3	20.4	42.0	23.4	5.9	100.0 (495)	3.0 (1.0)
중소도시	10.7	23.2	38.2	22.6	5.3	100.0 (544)	2.9 (1.0)
농어촌지역	13.2	24.3	38.6	20.1	3.7	100.0 (189)	2.8 (1.0)
F							3.2*

* $p < .05$, *** $p < .001$

2) 지역사회 육아 문화 체감정도

자녀를 키우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문화의 일면인 다음의 상황들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는지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를 평균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V-2-9〉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을 받는다는 부분에 3.7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를 경험함에 3.5점,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에 3.4점으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다음은 ‘어린 자녀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는 등의 배려’ 3.1점,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 2.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2-9〉 지역사회 육아 문화 체감(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어린 자녀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는 등의 배려	3.1 0.9
2.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	3.7 0.8
3.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	3.5 0.8
4.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	3.4 0.9
5.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	2.8 0.9
6.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 불편한 시선이나 주의	3.0 0.9
7.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소음)로 인한 갈등	2.6 0.9
8. 가정에서 아이들 소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충간소음 등)	3.0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표 V-2-10〉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어린 자녀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는 등의 배려에 대해서는 어머니(3.1점)보다 아버지(3.2점)의 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V-2-10〉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대중교통 양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	17.4	42.9	31.3	4.0	100.0 (1,228)	3.1 (0.9)
부모							
어머니	5.1	21.2	39.5	30.8	3.3	100.0 (603)	3.1 (0.9)
아버지	3.7	13.8	46.2	31.7	4.6	100.0 (625)	3.2 (0.9)
t							-2.7**

** $p < .01$

〈표 V-2-11〉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에 대해서는 20~30대 부모들(3.7점)이 40~50대 부모들(3.6점)보다 이 체감 정도가 높았고,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6점)에 유아(3.7점)나 영아(3.8점)를 둔 가구보다 그 체감정도가 낮았다.

〈표 V-2-11〉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사랑과 칭찬 표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5.7	29.8	51.5	12.5	100.0 (1,228)	3.7 (0.8)
연령							
20~30대	1.0	5.7	26.1	53.0	14.1	100.0 (700)	3.7 (0.8)
40~50대	0.0	5.7	34.7	49.4	10.2	100.0 (528)	3.6 (0.7)
t							2.1*
자녀 연령							
영아	1.2	5.3	24.0	55.2	14.3	100.0 (413)	3.8 (0.8)
유아	0.2	5.6	30.7	50.7	12.7	100.0 (410)	3.7 (0.8)
초등 저학년	0.2	6.2	34.8	48.4	10.4	100.0 (405)	3.6 (0.8)
F							3.1*

* $p < .05$

〈표 V-2-12〉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20~30대 부모들(3.5점)이 40~50대 부모들(3.4점)보다 이 체감 정도가 높았고,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4점)에 유아(3.5점)나 영아(3.5점)를 둔 가구보다 그 체감정도가 낮았다.

〈표 V-2-12〉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아이 배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9.9	37.8	41.4	9.8	100.0 (1,228)	3.5 (0.8)
연령							
20~30대	1.6	9.1	33.9	44.3	11.1	100.0 (700)	3.5 (0.9)
40~50대	0.6	10.8	43.0	37.7	8.0	100.0 (528)	3.4 (0.80)
t							2.6**
자녀 연령							
영아	1.2	8.0	32.9	47.7	10.2	100.0 (413)	3.6 (0.8)
유아	0.7	8.8	40.2	41.2	9.0	100.0 (410)	3.5 (0.8)
초등 저학년	1.5	12.8	40.2	35.3	10.1	100.0 (405)	3.4 (0.9)
F							4.6*

* $p < .05$, ** $p < .01$

〈표 V-2-13〉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의 경우(3.4점)에 어머니들의 경우(3.3점)보다 이 체감 정도가 높았고, 대도시(3.4점)나 중소도시(3.4점)보다 농어촌 지역(3.1점)에서 그 체감정도가 낮았다.

〈표 V-2-13〉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양육지원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	12.4	37.2	39.3	8.2	100.0 (1,228)	3.4 (0.9)
부모							
어머니	4.5	14.1	35.5	37.1	8.8	100.0 (603)	3.3 (1.0)
아버지	1.4	10.7	38.9	41.3	7.7	100.0 (625)	3.4 (0.8)
t							-2.2*
거주지							
대도시	2.4	10.3	38.0	41.4	7.9	100.0 (495)	3.4 (0.9)
중소도시	2.4	11.8	36.2	41.2	8.5	100.0 (544)	3.4 (0.9)
농어촌지역	5.8	19.6	38.1	28.0	8.5	100.0 (189)	3.1 (1.0)
F							7.7***

* $p < .05$, *** $p < .001$

〈표 V-2-14〉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도시(2.8점)나 중소도시(2.7점)보다 농어촌 지역(2.6점)에서 그 체감정도가 낮았다.

〈표 V-2-14〉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노키즈존 출입 제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9	28.5	44.1	15.5	3.0	100.0 (1,228)	2.8 (0.9)
거주지							
대도시	7.7	26.3	44.4	18.0	3.6	100.0 (495)	2.8 (0.9)
중소도시	10.3	28.3	43.6	14.9	2.9	100.0 (544)	2.7 (0.9)
농어촌지역	7.9	34.9	45.0	10.6	1.6	100.0 (189)	2.6 (0.8)
F							4.1*

* $p < .05$

지역사회에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 불편한 시선이나 주의를 경험하는 지에 대해서는 평균 3점 정도로 보통이다 정도의 동의를 보였고, 각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소음)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는 지에 대해서는 평균 2.6점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40~50대 부모들(2.7점)이 20~30대 부모들(2.6점)보다 이에 대한 체감정도가 다소 높았고, 대도시(2.7점)에서 중소도시(2.5점)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2.7점)에서 아닌 경우(2.6점) 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들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15〉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놀이터 소음 갈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	34.9	38.2	13.8	2.4	100.0 (1,228)	2.6 0.9
연령							
20~30대	13.4	36.9	31.9	14.9	3.0	100.0 (700)	2.6 1.0
40~50대	7.0	32.4	46.6	12.5	1.5	100.0 (528)	2.7 0.8
t							-2.3*
거주지							
대도시	8.1	32.7	39.8	16.4	3.0	100.0 (495)	2.7 0.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F	13.6 9.0	36.6 36.0	36.0 40.2	11.6 13.8	2.2 1.1	100.0 (544) 100.0 (189)	2.5 0.9 2.6 0.9 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맞벌이 아님 t	9.9 11.6	33.7 36.7	38.7 37.1	14.6 13.1	3.0 1.6	100.0 (635) 100.0 (580)	2.7 0.9 2.6 0.9 2.0*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17.3 10.9 10.2 6.5 8.0	33.2 37.2 38.0 34.1 31.6	35.8 40.1 37.1 37.1 39.6	10.6 10.9 12.7 18.2 18.2	3.1 1.0 2.0 4.1 2.5	100.0 (226) 100.0 (312) 100.0 (245) 100.0 (170) 100.0 (275)	2.5 1.0 2.5 0.9 2.6 0.9 2.8 1.0 2.8 0.9 4.8***

* $p < .05$, ** $p < .01$, *** $p < .001$

가정에서 아이들 소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충간소음 등)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표 V-2-16>과 같이 3점, 보통이다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 자녀의 수가 1명(2.9점)에서 2명(3점), 3명(3.1점)으로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험 체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영아 자녀를 둔 경우(2.8점)보다는 유아(3점)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3점)를 둔 경우에 그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표 V-2-16> 지역사회 육아 상황별 체감 정도_충간 소음 갈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1	24.0	38.4	23.1	6.3	100.0 (1,228)	3.0 1.0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9.1 7.5 6.1	25.2 23.1 21.7	38.6 38.8 35.7	22.2 23.1 27.8	4.8 7.5 8.7	100.0 (603) 100.0 (510) 100.0 (115)	2.9 1.0 3.0 1.0 3.1 1.0 3.3*
자녀 연령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F	11.6 7.3 5.4	27.1 22.2 22.7	36.1 38.5 40.7	20.8 23.2 25.4	4.4 8.8 5.7	100.0 (413) 100.0 (410) 100.0 (405)	2.8 1.0 3.0 1.0 3.0 1.0 7.9***

* $p < .05$, ** $p < .01$, *** $p < .001$

3) 지역사회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동네, 지역사회의 양육환경과 육아문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만족정도를 5점 척도로 <표 V-2-17>과 같이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은 대체로 동의함에 54.7%가 답하여 평균 3.6점 정도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를 보여 대도시나 중소도시(3.6점)에 비해 농어촌지역(3.4점)에서 다소 낮은 만족정도를 보였다. 월평균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3.4점으로 그 만족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V-2-17> 동네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별로 동의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8.0	30.7	54.7	5.5	100.0 (1,228)	3.6 0.8
거주지							
대도시	0.6	7.9	30.1	56.2	5.3	100.0 (495)	3.6 0.7
중소도시	1.1	6.8	29.8	55.7	6.6	100.0 (544)	3.6 0.8
농어촌지역	2.1	11.6	34.9	48.1	3.2	100.0 (189)	3.4 0.8
F							5.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8	10.2	39.4	43.8	4.9	100.0 (226)	3.4 0.8
300~400만원 미만	1.0	7.7	32.4	56.1	2.9	100.0 (312)	3.5 0.7
400~500만원 미만	0.4	9.4	25.7	55.9	8.6	100.0 (245)	3.6 0.8
500~600만원 미만	1.2	4.7	27.1	59.4	7.6	100.0 (170)	3.7 0.7
600만원 이상	1.1	7.3	28.4	58.2	5.1	100.0 (275)	3.6 0.7
F							4.4**

** $p < .01$

4)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좋은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표 V-2-18>이다.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23.4%,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 12.8%,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10.7%,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웃의 배려가 느껴져서 9.2%,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8.4%,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친절해서 6%의 순서로 높게 답하였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 순위에서의 변동은 없었다. 이는 양육자들에게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시설’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에 차이를 보였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3.3%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라는 부분에서는 대도시의 응답비율이 12.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에 따른 양육환경 평가 기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표 V-2-19>이다.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하여서 22.5%,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지 않아서 10.8%,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7.2%,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5.4%,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5.4%,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느껴져서 4.5%의 순서로 높게 답하였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 순위에서의 변동은 없었다. 이는 양육자들에게 ‘도로, 교통 상황’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유의한 변인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8〉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1순위/1+2+3순위)

단위: %(명)

구분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웃의 배려가 느껴져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친절해서	기타	계(수)
전체	28.9	23.4	12.8	10.7	9.2	8.4	6.0	0.5	100.0 (1,117)
거주지									
대도시	28.0	25.2	9.3	12.4	9.3	9.7	5.5	0.7	100.0 (453)
중소도시	30.7	22.4	12.6	10.0	9.6	7.6	6.6	0.6	100.0 (501)
농어촌지역	25.8	21.5	23.3	8.6	8.0	7.4	5.5	0.0	100.0 (163)
X ² (df)				26.376(14)*					
1+2+3순위	74.6	59.8	40.2	33.2	33.1	32.0	24.1	2.2	(1,117)

* $p < .05$

〈표 V-2-19〉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1순위/1+2+3순위)

단위: %(명)

구분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하여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지 않아서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아이다음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느껴져서	기타	계(수)
전체	40.5	22.5	10.8	7.2	5.4	5.4	4.5	3.6	100.0 (111)
1+2+3순위	80.2	61.3	45.9	31.5	28.8	18.0	18.0	12.6	(111)

나.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요구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육가정의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달체계로 그 사업에 따라 육아하는 가정에서의 지원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필요도, 이용경험, 이용한 경우의 만족정도를 살펴보았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도서대여, 부모교육, 시간제보육제공,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양육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V-2-20>과 같이 부모교육과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95.8%로 가장 높게 답하였고 다음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94.8%, 도서대여 94.5%, 장난감 도서관 92.9%로 나타나 전체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90%를 상회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이용경험은 장난감 도서관 42.5%, 도서대여 39.2%,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32.7%, 부모교육 25.6%, 시간제보육 서비스 18.2%에 그쳐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그에 못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3.6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2-20>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단위: %, 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평균(표준편차)	
1. 장난감 도서관	92.9	7.1	42.5	57.5	3.8	(0.8)
2. 도서 대여	94.5	5.5	39.2	60.8	3.9	(0.8)
3. 부모교육	95.8	4.2	25.6	74.4	3.8	(0.8)
4. 시간제 보육	94.8	5.2	18.2	81.8	3.6	(1.0)
5.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행사, 공연 포함)	95.8	4.2	32.7	67.3	3.8	(0.8)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임.

2)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등을 양육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V-2-21>과 같이 가족·부모·자녀 상담 96.3%,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95.4%, 가족교육 94.8%로 높게 답하였고 다음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90.4%,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89.3%로 나타나 대부분 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90%를 상회하였다.

이에 비해 이용경험은 20%에 모두 못 미쳐,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17.5%, 가족·부모·자녀 상담 14.2%, 가족교육 13.1%,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12%,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7.7%에 불과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미미함을 보여준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3.5점~3.6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V-2-21>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단위: %, 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평균(표준편차)	
1. 가족교육	94.8	5.2	13.1	86.9	3.6	(0.9)
2. 가족·부모·자녀 상담	96.3	3.7	14.2	85.8	3.5	(0.9)
3.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89.3	10.7	12.0	88.0	3.5	(0.9)
4.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90.4	9.6	7.7	92.3	3.5	(0.9)
5.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95.4	4.6	17.5	82.5	3.6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임.

3)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최근 지자체별로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화시켜 제공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의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지원³⁸⁾, 서울시의 우리 동네 보육반장³⁹⁾, 건강아기사업⁴⁰⁾, 가사도우미서비스⁴¹⁾, 아버지교육⁴²⁾, 조부모

육아교육⁴³⁾ 등이 그것이다.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향후 어떠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기 원하는 지 질의한 결과가 <표 V-2-22>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30.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 교육(20.3%)’,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지원(14.8%)’, ‘우리동네 보육반장(14.6%)’, ‘건강아기사업(14.3%)’, ‘조부모 육아 교육(5.1%)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은 현재 양육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건강아기사업(19.4%), 유아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서비스(33.7%),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버지 교육(22.7%)과 어르신 등하원서비스(17.3%)에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머니들의 경우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어르신 등하원서비스에의 요구가 아버지들 보다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돌봄공백 지원을 위한 어르신등하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아버지교육과 건강아기사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도우미 서비스에의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2-22> 향후 육아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단위: %(명)

구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	아버지 교육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우리 동네 보육 반장	건강 아기 사업	조부모 육아 교육	계(수)
전체	30.9	20.3	14.8	14.6	14.3	5.1	100.0 (1,228)
자녀 연령							
영아	30.0	16.5	14.8	12.3	19.4	7.0	100.0 (413)

38)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듯이 등하원, 숙제나 과제물 챙겨주기, 간식먹이기, 잠재우기 등 최소 1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39)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보육반장이 육아지원 수집 및 관리,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부모 모임 지원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40) 건강아기사업은 임신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41)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육아기 가정을 위한 가사도우미 연결 서비스임.

42) 아버지교육은 아빠들의 육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육아정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육아상담과 전문 교육을 지원함.

43) 조부모 육아 교육은 영유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

구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	아버지 교육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우리 동네 보육 반장	건강 아기 사업	조부모 육아 교육	계(수)
유아	33.7	21.7	12.4	14.4	13.4	4.4	100.0 (410)
초등 저학년	29.1	22.7	17.3	17.0	9.9	4.0	100.0 (405)
$X^2(df)$			30.057(10)***				
부모							
어머니	28.7	20.6	15.8	16.1	11.9	7.0	100.0 (603)
아버지	33.1	20.0	13.9	13.1	16.5	3.4	100.0 (625)
$X^2(df)$			16.75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1	17.0	18.7	15.1	10.6	5.5	100.0 (635)
맞벌이 아님	28.3	24.1	10.9	13.4	18.6	4.7	100.0 (580)
$X^2(df)$			37.104(5)***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4.3	24.3	12.4	17.3	17.3	4.4	100.0 (226)
300~400만원 미만	29.5	22.8	12.5	14.7	15.7	4.8	100.0 (312)
400~500만원 미만	27.8	22.0	15.1	15.5	14.3	5.3	100.0 (245)
500~600만원 미만	35.3	15.3	12.4	15.3	15.9	5.9	100.0 (170)
600만원 이상	38.2	15.6	20.7	10.9	9.1	5.5	100.0 (275)
$X^2(df)$			39.040(20)**				

** $p < .01$, *** $p < .001$

3.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요소를 줄여서 긍정적 육아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을 찾아보기 위해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관련 만족도, 최근 10년간의 육아문화에 대한 변화 체감, 변화의 원인, 육아문화 변화 주체 및 긍정적 변화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양육자 만족도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양육자의 양육관련 만족정도를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육자로서 체감하는 양육관련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V-3-1>과 같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가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은 아이 기르는 일 자체(3.8점), 부모로서 배우자의 역할(3.6점),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3.5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정부의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2.9점으로 정책 수요자의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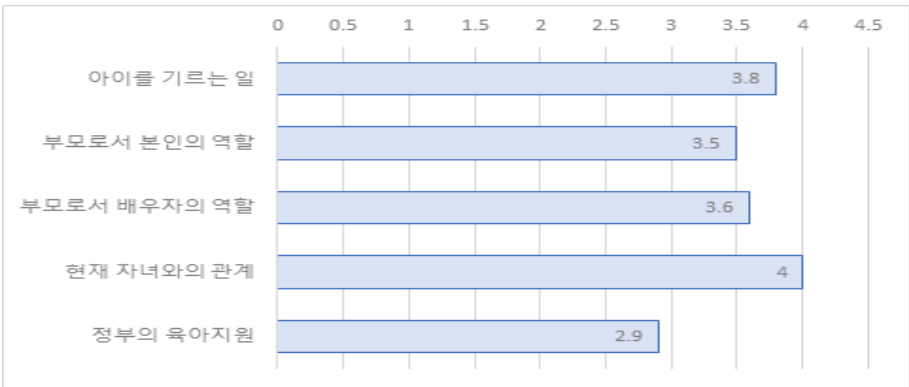
〈표 V-3-1〉 자녀 양육 만족도(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귀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8 (0.8)
2. 귀하는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5 (0.9)
3. 귀하는 부모로서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6 (1.0)
4. 귀하는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0 (0.8)
5. 귀하는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9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임.

〈그림 V-3-1〉 자녀 양육 만족도



주: 본 조사결과인 〈표 V-3-1〉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양육만족도 중 ‘아이 기르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3.8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표 V-3-2〉와 같이 20~30대의 만족정도(3.9점)가 40~50대(3.8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아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만족도(3.9점)가 유아나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8점)보다, 아버지들의 만족정도(4점)가 어머니들(3.7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3-2〉 양육 만족도_아이 기르는 일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4.8	22.5	54.1	18.1	100.0 (1,228)	3.8 (0.8)
연령							
20~30대	0.4	4.9	20.4	53.9	20.4	100.0 (700)	3.9 (0.8)
40~50대	0.8	4.7	25.2	54.4	15.0	100.0 (528)	3.8 (0.8)
t							2.4*
자녀 연령							
영아	1.0	3.9	18.2	53.3	23.7	100.0 (413)	3.9 (0.8)
유아	0.2	4.9	22.9	57.6	14.4	100.0 (410)	3.8 (0.7)
초등 저학년	0.5	5.7	26.4	51.4	16.0	100.0 (405)	3.8 (0.8)
F							6.0**
부모							
어머니	0.8	6.8	25.2	53.7	13.4	100.0 (603)	3.7 (0.8)
아버지	0.3	2.9	19.8	54.4	22.6	100.0 (625)	4.0 (0.8)
t							-5.3***

* $p < .05$, ** $p < .01$, *** $p < .001$

양육만족도 중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3.5점이며, 〈표 V-3-3〉과 같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1명 3.6점, 2명 3.5점, 3명 3.3점)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들의 만족정도(3.6점)가 어머니들(3.4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3.6점)가 농어촌 지역(3.3점)보다 높았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3〉 양육 만족도_부모로서 본인의 역할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1.8	32.7	44.7	9.8	100.0 (1,228)	3.5 (0.9)
자녀 수							
1명	1.2	10.1	31.2	46.9	10.6	100.0 (603)	3.6 (0.9)
2명	0.8	13.1	33.1	43.1	9.8	100.0 (510)	3.5 (0.9)
3명 이상	1.7	14.8	38.3	40.0	5.2	100.0 (115)	3.3 (0.9)
F							3.9*
어머니	2.0	14.3	37.1	39.5	7.1	100.0 (603)	3.4 (0.9)
아버지	0.2	9.4	28.3	49.8	12.3	100.0 (625)	3.6 (0.8)
t							-6.0***
거주지							
대도시	1.0	12.1	29.7	45.1	12.1	100.0 (495)	3.6 (0.9)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0.7	11.0	33.6	45.4	9.2	100.0 (544)	3.5 (0.8)
농어촌지역	2.1	13.2	37.6	41.8	5.3	100.0 (189)	3.3 (0.9)
F							3.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8	16.4	36.3	37.6	8.0	100.0 (226)	3.3 (0.9)
300~400만원	0.6	13.8	30.1	46.5	9.0	100.0 (312)	3.5 (0.9)
400~500만원	0.8	10.2	35.1	44.1	9.8	100.0 (245)	3.5 (0.8)
500~600만원	1.2	8.8	31.2	46.5	12.4	100.0 (170)	3.6 (0.9)
600만원 이상	1.1	9.1	31.3	48.0	10.5	100.0 (275)	3.6 (0.8)
F							3.2*

* $p < .05$, *** $p < .001$

양육만족도 중 ‘부모로서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본인에 대한 만족도 3.5점보다 다소 높아 본인 보다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4>와 같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1명 3.7점, 2명 3.5점, 3명 3.4점) 부모로서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3.7점)에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3.4점)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의 만족정도(3.9점)가 어머니들(3.2점)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아내의 어머니 역할에 더 높은 만족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 V-3-4> 양육 만족도_부모로서 배우자 역할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11.7	27.7	41.2	16.1	100.0 (1,228)	3.6 (1.0)
자녀 수							
1명	3.0	10.0	25.7	41.6	19.7	100.0 (603)	3.7 (1.0)
2명	3.3	13.7	29.0	41.2	12.7	100.0 (510)	3.5 (1.0)
3명 이상	4.3	12.2	32.2	39.1	12.2	100.0 (115)	3.4 (1.0)
F							6.0**
자녀 연령							
영아	2.9	9.7	26.6	40.2	20.6	100.0 (413)	3.7 (1.0)
유아	2.9	12.7	26.6	41.7	16.1	100.0 (410)	3.6 (1.0)
초등 저학년	4.0	12.8	29.9	41.7	11.6	100.0 (405)	3.4 (1.0)
F							4.8**
어머니	5.5	18.2	31.2	37.0	8.1	100.0 (603)	3.2 (1.0)
아버지	1.1	5.4	24.3	45.3	23.8	100.0 (625)	3.9 (0.9)
t							-11.2***

** $p < .01$, *** $p < .001$

양육만족도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4점이며, <표 V-3-5>와 같이, 20~30대(4점)가 40~50대(3.9점)보다 다소 높았고,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영아 4.1점, 유아 3.9점, 초등 저학년 3.8점) 만족도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들의 만족정도(4점)가 어머니들(3.9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3-5〉 양육 만족도_자녀와의 관계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4.6	20.9	47.9	26.2	100.0 (1,228)	4.0 (0.8)
연령							
20~30대	0.4	4.9	18.0	47.0	29.7	100.0 (700)	4.0 (0.8)
40~50대	0.2	4.4	24.8	49.1	21.6	100.0 (528)	3.9 (0.8)
t							2.8**
자녀 연령							
영아	0.5	3.1	15.7	45.5	35.1	100.0 (413)	4.1 (0.8)
유아	0.2	4.6	23.2	48.0	23.9	100.0 (410)	3.9 (0.8)
초등 저학년	0.2	6.2	24.0	50.1	19.5	100.0 (405)	3.8 (0.8)
F							13.8***
부모							
어머니	0.5	5.1	22.7	47.6	24.0	100.0 (603)	3.9 (0.8)
아버지	0.2	4.2	19.2	48.2	28.3	100.0 (625)	4.0 (0.8)
t							-2.3*

* $p < .05$, ** $p < .01$, *** $p < .001$

양육만족도 중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2.9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 V-3-6>과 같이 월평균 가구 소득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6〉 양육 만족도_정부의 육아지원

구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1	22.3	41.5	24.1	3.9	100.0 (1,228)	2.9 (1.0)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1.5	23.0	47.3	15.5	2.7	100.0 (226)	2.7 (0.9)
300~400만원	7.1	25.3	41.7	23.4	2.6	100.0 (312)	2.9 (0.9)
400~500만원	7.3	24.1	40.8	24.5	3.3	100.0 (245)	2.9 (1.0)
500~600만원	8.2	18.8	40.0	25.9	7.1	100.0 (170)	3.0 (1.0)
600만원 이상	7.3	18.9	38.2	30.5	5.1	100.0 (275)	3.1 (1.0)
F							4.3**

** $p < .01$

나. 육아문화 변화 인식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면적인 육아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인해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육아문화 변화 체감

최근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사회에서 육아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지 5분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V-3-7>이다.

응답 부모 1,228명 중 21.6%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63.9%는 긍정적으로 변화(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하였다고, 14.5%는 부정적으로 변화(약간 부정적+매우 부정적)하였다고 답하였다. 현재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사회의 육아관련 문화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경향을 보임은 육아존중문화의 조성에도도함에 고무적인 결과로 보인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 집단(3.6점)에서 아닌 경우(3.5점)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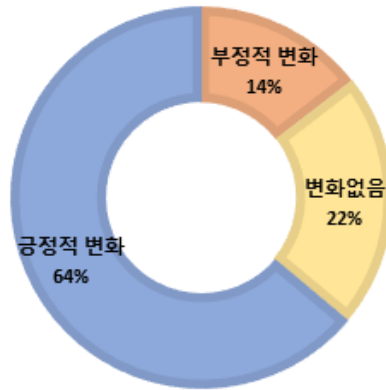
<표 V-3-7> 최근 10년간 육아문화 육아 문화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정적 으로 변화	약간 부정적 으로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으로 변화	매우 긍정적 으로 변화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	12.1	21.6	56.2	7.7	100.0 (1,228)	3.5 (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	9.3	20.8	58.3	8.7	100.0 (635)	3.6 (0.9)
맞벌이 아님	1.7	15.5	21.6	54.3	6.9	100.0 (580)	3.5 (0.9)
t							2.2*

* $p < .05$

[그림 V-3-2] 최근 10년간 육아문화 변화



주: 본 조사결과인 <표 V-3-7>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2) 부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요인

최근 10년 간 육아문화가 부정적으로 변화(약간 부정적+매우 부정적)하였다고 평가한 178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선택 응답한 결과가 <표 V-3-8>이다.

‘육아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49.4%, ‘육아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서’ 44.9% 등이 높은 응답을 보여 육아지원 제도의 효용성과 접근성 부족이 육아지원제도가 부정적 변화로 인지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41.6%, ‘육아지원 인프라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24.7%, ‘육아하는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느껴져서’ 18%, ‘부부간 평등한 양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6.3%의 순서로 부정적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정적 변화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육아지원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가능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과 인프라에의 요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부부간 평등한 양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3)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요인

최근 10년 간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한 785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선택 응답한 결과가 <표 V-3-9>이다. 전체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부부간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육아지원제도들이 많아져서’ 37.8%,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32.7%,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증가하여서’ 24.8%,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증가해서’ 20.6%, ‘육아지원 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져서’ 19%,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조되어서’ 12.7%, ‘이웃들의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좋아져서’ 5.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8〉 육아문화가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육아지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육아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서	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육아지원 인프라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육아하는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느껴져서	부부간 평등한 양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타	(수)
전체	49.4	44.9	41.6	24.7	18.0	16.3	5.1	(178)
20~30대	43.9	45.6	43.9	23.7	21.9	15.8	5.3	(114)
40~50대	59.4	43.8	37.5	26.6	10.9	17.2	4.7	(64)
자녀 수								
1명	53.5	46.5	45.1	22.5	11.3	12.7	8.5	(71)
2명	46.4	42.9	40.5	25.0	25.0	17.9	2.4	(84)
3명 이상	47.8	47.8	34.8	30.4	13.0	21.7	4.3	(23)
자녀 연령								
영아	55.7	36.1	42.6	27.9	18.0	16.4	3.3	(61)
유아	45.8	57.6	42.4	16.9	15.3	15.3	6.8	(59)
초등 저학년	46.6	41.4	39.7	29.3	20.7	17.2	5.2	(58)
부모								
어머니	45.1	42.7	45.1	25.6	19.5	20.7	1.2	(82)
아버지	53.1	46.9	38.5	24.0	16.7	12.5	8.3	(96)
거주지								
대도시	48.4	43.8	37.5	28.1	20.3	14.1	7.8	(64)
중소도시	51.1	48.9	42.0	21.6	18.2	14.8	3.4	(88)
농어촌지역	46.2	34.6	50.0	26.9	11.5	26.9	3.8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1	48.7	42.3	21.8	12.8	15.4	3.8	(78)
맞벌이 아님	45.0	42.0	41.0	27.0	22.0	17.0	6.0	(100)

〈표 V-3-9〉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한 원인(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부간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육아지원제도가 많아져서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서	육아자원을 위한 인프라가 증가하여서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증가해서	육아지원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져서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조되어서	이웃들의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좋아져서	(수)
전체	46.8	37.8	32.7	24.8	20.6	19.0	12.7	5.5	(785)
20~30대	49.2	38.4	30.1	24.6	20.0	18.6	12.0	7.1	(435)
40~50대	43.7	37.1	36.0	25.1	21.4	19.4	13.7	3.4	(350)
자녀 수									
1명	48.8	37.6	33.8	21.7	22.8	18.4	11.0	5.9	(391)
2명	47.9	38.2	28.5	28.8	18.5	19.1	13.9	5.2	(330)
3명 이상	28.1	37.5	48.4	23.4	18.8	21.9	17.2	4.7	(64)
자녀 연령									
영아	51.2	40.6	32.3	20.9	21.7	17.7	9.4	6.3	(254)
유아	47.3	39.1	33.7	24.8	18.6	19.8	12.0	4.7	(258)
초등 저학년	42.1	34.1	32.2	28.6	21.6	19.4	16.5	5.5	(273)
어머니	49.7	41.1	30.8	22.9	18.2	21.3	11.8	4.2	(380)
아버지	44.0	34.8	34.6	26.7	23.0	16.8	13.6	6.7	(405)
거주지									
대도시	42.9	34.4	35.0	23.7	23.3	20.5	13.9	6.3	(317)
중소도시	50.6	40.3	31.2	24.4	19.7	16.8	12.9	4.1	(340)
농어촌지역	46.1	39.8	31.3	28.9	16.4	21.1	9.4	7.0	(128)
맞벌이	44.7	40.0	29.4	25.2	23.5	19.5	11.8	5.9	(425)
맞벌이 아님	49.6	35.2	36.3	24.5	17.2	18.0	14.1	5.1	(355)

다.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 노력

1) 육아문화 변화 주체

육아를 둘러싼 문화인 육아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한 결과가 <표 V-3-10>이다.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는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23.2%, 직장과 기업 21.7%, 이웃과 지역사회 15.2%, 언론매체 1.8%의 응답을 보였다. 자녀의 수를 중심으로 보면 양육자 개인과 가족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 직장과 기업이라는 23.9%로 높았고, 3명 이상인 경우 이웃과 지역사회가 25.2%로 높게 답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웃과 지역사회(18.4%), 아버지의 경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24.8%), 직장과 기업(23.5%)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직장과 기업(25%)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V-3-10>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

단위: %(명)

구분	양육자 개인, 가족	정부 (중앙, 지자체)	직장과 기업	이웃과 지역 사회	언론 매체	기타	계(수)
전체	37.9	23.2	21.7	15.2	1.8	0.2	100.0 (1,228)
자녀 수							
1명	39.1	21.2	23.9	13.6	2.0	0.2	100.0 (603)
2명	36.9	26.3	19.8	14.9	2.0	0.2	100.0 (510)
3명 이상	35.7	20.0	18.3	25.2	0.0	0.9	100.0 (115)
$X^2(df)$			19.873(10)*				
부모							
어머니	38.5	21.6	19.7	18.4	1.7	0.2	100.0 (603)
아버지	37.3	24.8	23.5	12.2	1.9	0.3	100.0 (625)
$X^2(df)$			11.81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5	22.8	25.0	15.3	2.2	0.2	100.0 (635)
맞벌이 아님	41.4	23.3	18.4	15.2	1.4	0.3	100.0 (580)
$X^2(df)$			11.425(5)*				

* $p < .05$

2)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는 <표 V-3-11>과 같다. 전체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가 45.5%,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 21.1%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두 응답이 전체 응답의 66.6%에 달함은 양육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 14.8%,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1.2%, ‘부모교육 기회 확대’ 6.6%의 순서로 높았다.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20~30대의 경우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 24.6%, 40~50대의 경우는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 17.4%,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1.2%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답하였다.

영아부모의 경우에는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양육 시간의 확보가 중요함을 더 강조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48.9%)’와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22.5%)’에 응답자 중 71.4%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초등 저학년의 경우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14.1%가 답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답하였다.

3)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는 <표 V-3-12>와 같다. 전체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27.9%,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 21.9%,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19.2%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은 ‘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거나 놀이 활동을 같이 하거나 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기회 제공’ 13.7%,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9%,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노키즈존 지양)’ 8.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3-11〉 가정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단위: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 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식타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교육 기회 확대	기타	계(수)
전체	45.5	21.1	14.8	11.2	6.6	0.7	100.0 (1,228)
연령							
20~30대	46.6	24.6	12.9	9.6	6.0	0.4	100.0 (700)
40~50대	44.1	16.5	17.4	13.4	7.4	1.1	100.0 (528)
X ² (df)	20.937(5)***						
자녀 연령							
영아	48.9	22.5	11.9	10.4	5.1	1.2	100.0 (413)
유아	45.6	23.7	13.2	9.3	7.8	0.5	100.0 (410)
초등 저학년	42.0	17.0	19.5	14.1	6.9	0.5	100.0 (405)
X ² (df)	25.089(10)**						

** $p < .01$, *** $p < .001$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높게 답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31.5%)’과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노키즈존 지양)(10.1%)’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아버지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23%)’ 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21.6%)’, ‘육아존 중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10.7%)’ 등에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V-3-1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단위: %(명)

구분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부모들끼리 경험 공유, 놀이활동, 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기회 제공	육아종합문화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 (노키즈존 지양)	기타	계(수)
전체	27.9	21.9	19.2	13.7	9.0	8.2	0.1	100.0 (1,228)
자녀 수								
1명	25.7	22.9	19.9	13.3	10.0	8.3	0.0	100.0 (603)
2명	29.6	21.0	18.4	14.9	9.0	7.1	0.0	100.0 (510)
3명 이상	31.3	20.9	19.1	10.4	4.3	13.0	0.9	100.0 (115)
X ² (df)			21.528(12)*					
부모								
어머니	31.5	20.7	16.7	13.6	7.3	10.1	0.0	100.0 (603)
아버지	24.3	23.0	21.6	13.8	10.7	6.4	0.2	100.0 (625)
X ² (df)			20.302(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4.8	23.0	15.5	14.2	11.1	11.5	0.0	100.0 (226)
300~400만원 미만	28.2	18.9	20.2	16.3	7.4	8.7	0.3	100.0 (312)
400~500만원 미만	31.4	23.3	21.6	12.2	6.9	4.5	0.0	100.0 (245)
500~600만원 미만	34.1	14.7	22.4	10.0	11.2	7.6	0.0	100.0 (170)
600만원 이상	22.9	27.6	17.1	13.8	9.8	8.7	0.0	100.0 (275)
X ² (df)			38.729(24)*					

* $p < .05$, ** $p < .01$

4)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우리사회가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가 <표 V-3-13>이다. 부모들의 요구는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30.6%,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29.2%,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27.4%,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21.4%,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요자(부모, 예비부모 등)들의 의견수렴' 18.7%,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13.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10.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비용지원 확대를 제외하고 20~30대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32.1%)'을 강조하였고, 이에 비해 40~50대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33.5%)',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30.1%)',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24.6%)' 등을 강조하였다.

비용지원 확대를 제외하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에의 강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더 강조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비용지원과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자녀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에 대한 요구와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에 대한 강조가 보였다.

아버지들은 비용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요자(부모, 예비부모 등)들의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고, 어머니들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3-13〉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요자 (부모, 예비부모 등)들의 의견수렴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및 정책에서의 반영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기타	(수)
전체	48.7	30.6	29.2	27.4	21.4	18.7	13.2	10.5	0.2	(1,228)
연령										
20~30대	52.4	28.4	32.1	25.4	19.0	19.1	13.4	9.7	0.3	(700)
40~50대	43.8	33.5	25.2	30.1	24.6	18.2	12.9	11.6	0.2	(528)
자녀 수										
1명	49.1	31.8	31.5	26.5	19.1	18.2	12.8	10.8	0.2	(603)
2명	48.0	28.4	28.4	28.4	21.8	20.6	12.9	11.0	0.4	(510)
3명 이상	49.6	33.9	20.0	27.8	32.2	13.0	16.5	7.0	0.0	(115)
자녀 연령										
영아	53.5	31.7	33.2	26.2	16.0	17.9	11.4	9.7	0.5	(413)
유아	50.7	28.0	30.7	26.6	21.0	18.8	14.6	9.5	0.0	(410)
초등 저학년	41.7	32.1	23.5	29.6	27.4	19.5	13.6	12.3	0.2	(405)
부모										
어머니	46.8	31.7	30.2	25.2	25.5	16.6	13.6	10.1	0.3	(603)
아버지	50.6	29.6	28.2	29.6	17.4	20.8	12.8	10.9	0.2	(625)
거주지										
대도시	47.5	30.7	30.1	29.5	20.4	20.0	11.7	9.9	0.2	(495)
중소도시	50.4	29.6	28.9	26.3	19.9	19.3	14.0	11.4	0.4	(544)
농어촌지역	47.1	33.3	27.5	25.4	28.6	13.8	14.8	9.5	0.0	(189)

구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요자 (부모, 예비부모 등)들의 의견수렴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기타	(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1	31.5	33.9	26.0	20.9	18.0	12.6	10.9	0.2	(635)
맞벌이 아님	51.0	29.7	24.3	29.1	21.7	19.8	13.6	10.3	0.3	(580)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57.5	31.4	20.8	28.3	20.4	15.0	16.8	9.3	0.4	(226)
300~400만원 미만	57.1	29.2	24.0	28.2	21.2	17.6	14.1	8.7	0.0	(312)
400~500만원 미만	45.3	31.4	31.0	25.7	23.3	22.4	9.4	11.0	0.4	(245)
500~600만원 미만	42.4	24.7	38.8	27.1	20.6	19.4	13.5	12.9	0.6	(170)
600만원 이상	38.9	34.5	34.2	27.6	21.5	19.3	12.4	11.6	0.0	(275)

맞벌이 가구에서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에 대한 응답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 육아 관련 소통과 검색 도구

향후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 대상 접점을 찾고 홍보 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육아관련 검색과 주요 온라인 소통채널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 채널은 <표 V-3-14>와 같이 네이버(Naver)라는 응답이 81.4%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네이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다음(Daum) 7.8%, 구글(Google) 5.5%, 유튜브(Youtube) 5.2%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 다음(Daum)을 통한 검색 비중이 11.4%로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도 다음(Daum)을 통한 검색 비중이 16.5%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는 네이버(Naver)라고 87.8%가 답하였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른 검색채널로도 다소 분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네이버(Naver)에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14>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단위: %(명)					
구분	네이버 (Naver)	다음 (Daum)	구글 (Google)	유튜브 (Youtube)	계(수)
전체	81.4	7.8	5.5	5.2	100.0 (1,228)
연령					
20~30대	84.0	5.1	5.9	5.0	100.0 (700)
40~50대	78.0	11.4	5.1	5.5	100.0 (528)
$X^2(df)$	16.656(3)***				
자녀 수					
1명	81.1	7.1	6.5	5.3	100.0 (603)
2명	82.9	6.7	4.9	5.5	100.0 (510)
3명 이상	76.5	16.5	3.5	3.5	100.0 (115)
$X^2(df)$	15.808(6)*				
부모					
어머니	87.6	5.6	2.2	4.6	100.0 (603)
아버지	75.5	9.9	8.8	5.8	100.0 (625)
$X^2(df)$	37.862(3)***				
거주지					
대도시	77.4	9.1	7.7	5.9	100.0 (495)
중소도시	83.8	6.3	4.8	5.1	100.0 (544)
농어촌지역	85.2	9.0	2.1	3.7	100.0 (189)
$X^2(df)$	14.658(6)*				

* $p < .05$, *** $p < .001$

2)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이용하는 SNS

평소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V-3-15>와 같다.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카페 36.2%, 블로그 21.2%, 카카오톡 18.8%, 인스타그램 16%, 페이스북 2.4%, 네이버밴드 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는 인터넷 카페 38%, 인스타그램 21.7%로 인스타그램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40~50대에서는 인터넷 카페 33.7%, 블로그 24.8%, 카카오톡 23.7%로 블로그와 카카오톡의 활용이 우세하였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인터넷 카페를 제외하고 인스타그램(20.1%)의 활용이 우세하였고, 자녀가 2명과 3명 이상인 경우는 인터넷 카페를 제외하고 카카오톡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 인터넷 카페를 제외하고 인스타그램(21.1%) 이용이 많았고,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인터넷 카페를 제외하고 블로그와 카카오톡의 활용이 많았다.

어머니들의 경우는 인터넷 카페의 활용이 46.4%로 월등히 우세하였고, 아버지들의 경우는 블로그 26.7%, 인터넷 카페 26.2%, 카카오톡 23.5% 등의 순서로 높았다.

대도시(29.7%) 보다 중소도시(39.2%)나 농어촌지역(44.4%)에서 인터넷 카페의 활용비율이 높았고, 이에 비해 인스타그램의 활용은 대도시(18.6%)에서 중소도시(15.8%)나 농어촌지역(10.1%)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맘 카페(00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양육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20~30대 양육자들은 인스타그램을, 40~50대의 경우는 블로그와 카카오톡을 더 활용한다는 점은 홍보 시 대상 집단에 따라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표 V-3-15〉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이용하는 SNS

단위: %(명)

구분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기타	없음	계(수)	
전체	36.2	21.2	18.8	16.0	2.4	1.6	2.3	1.5	100.0	(1,228)
20~30대	38.0	18.4	15.1	21.7	2.4	1.1	2.3	0.9	100.0	(700)
40~50대	33.7	24.8	23.7	8.5	2.5	2.3	2.3	2.3	100.0	(528)
$X^2(df)$	58.090(7)***									
자녀 수										
1명	36.3	20.9	16.6	20.1	2.2	0.7	2.7	0.7	100.0	(603)
2명	35.3	22.7	21.0	12.5	2.7	1.8	2.0	2.0	100.0	(510)
3명 이상	39.1	15.7	20.9	10.4	2.6	6.1	1.7	3.5	100.0	(115)
$X^2(df)$	43.381(14)***									
자녀 연령										
영아	36.1	20.3	16.7	21.1	1.7	1.0	2.7	0.5	100.0	(413)
유아	40.0	19.0	16.3	17.1	2.7	0.7	2.7	1.5	100.0	(410)
초등 저학년	32.3	24.2	23.5	9.9	3.0	3.2	1.5	2.5	100.0	(405)
$X^2(df)$	47.420(14)***									
부모										
어머니	46.4	15.4	13.9	19.2	1.2	1.3	1.3	1.2	100.0	(603)
아버지	26.2	26.7	23.5	13.0	3.7	1.9	3.2	1.8	100.0	(625)
$X^2(df)$	89.768(7)***									
거주지										
대도시	29.7	26.1	18.8	18.6	2.4	1.2	1.2	2.0	100.0	(495)
중소도시	39.2	18.4	18.0	15.8	2.8	2.2	2.8	0.9	100.0	(544)
농어촌지역	44.4	16.4	21.2	10.1	1.6	1.1	3.7	1.6	100.0	(189)
$X^2(df)$	36.925(14)***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1,22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내 육아문화와 지역사회 육아문화에 대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요구

첫째, 자녀 양육과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에 대해 40대와 50대 연령의 부모와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와 양육 관련 인식을 확인하는 여러 문항들에서 부모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대체로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둘째, 10년 전 부모들에 비해 현재 부모들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 정서 및 관계의 측면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한국아동패널과 동일 문항으로 비교한 결과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둔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의 문항에 대한 동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현재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은 가정 내 부부 사이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이 있다.’ 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연령과 아버지 어머니의 차이를 보였는데 40대와 50대 연령의 부모와 아버지들이 보수적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자녀양육 부담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더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주말에는 아버지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가족중심의 주말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어머니가 생각하는 남편의 부담정도보다 아버지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부담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양상을 보여 부부 사이에 양육 부담을 둘러싼 서로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부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부부간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 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들은 주로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섯째, 현재 가정 내 양육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양육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

고, 부부가 함께하는 자녀양육 등과 같은 인식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지만,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한다는 등의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식변화에서 더 나아간 실질적 육아문화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64%에 달해 긍정적 평가를 보였고, 특히 영아 자녀를 둔 경우와 아버지, 맞벌이 가구, 월평균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가정 내 육아문화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빈도는 높지 않았고, 갈등의 원인은 자녀의 훈육과 부부간 양육 역할의 분담이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했다.

일곱째,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또는 어려움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40~50대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어린 자녀의 양육과정에서는 돌봄을 위한 시간의 요구가 많고,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자녀의 학습지원, 교육문제 등 부부간 양육 철학 및 양육태도로 인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참여가 가능한 활동과 교육이 설계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용품의 나눔과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관련 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시 접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개선요구

첫째, 우리 동네, 지역사회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인지 진단한 결과에서도 ‘아이 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처럼 가치나 인식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양육 지원 서비스나 긴급 돌봄 제공,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였다. 특히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지 못해 정책의 접근성 제고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농어촌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좋은 양육환경으로 체감되지 못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양육지원이 특화될 필요가 있다. 양육환경으로의 지역사회 평가 문항 중 양육지원 서비스 인프라의 구성, 안전한 놀이 공간, 긴급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제공, 정부의 양육지원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해 만족정도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더 낮았다.

셋째, 양육자들이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으로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지역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와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로 수렴되었다.

넷째, 양육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는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양육자들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 받기 원하는 서비스로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아버지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특히 모든 변인에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은 현재 양육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다.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요구

첫째,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양육자가 현재 양육과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양육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와 ‘아이를 기르는 일 자체’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양육관련 만족도를 살펴본 많은 문항에서 영아 자녀를 둔 경우와 아버지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아버지들은 부모로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최근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변화를 진단한 결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에 동의하나 육아지원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한 양육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육아문화가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부부간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육아지원제도들이 많아져서’,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등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약 15%는 ‘육아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육아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육아지원 제도의 효용성과 접근성 부족이 육아지원제도가 부정적 변화로 인지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양육자 개인과 가족’을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웃과 지역사회, 아버지의 경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장과 기업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맞벌이 가구에서도 직장과 기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넷째,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에의 요구가 높았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양육하는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등에의 요구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사회가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응답자 열 명 중 다섯 명이 비용지원 확대를 꼽았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 대상 접점을 찾고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육아관련 검색과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인한 결과, 검색채널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네이버를 활용하고 있으며, 평소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SNS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20~30대 양육자들은 인스타그램을, 40~50대의 경우는 블로그와 카카오톡을 더 활용한다는 점은 홍보 시 대상 집단에 따라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VI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존중문화 조성 시도

- 01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노력
- 02 SBS 특집방송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 03 소결

VI.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존중문화 조성 시도

본 장에서는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1차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온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활동을 담았다. 3차년도에는 숙의토론 워크숍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육아문화를 진단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능한 육아문화 개선활동을 실천하고 공유하였다. 이와 더불어 SBS ‘희망TV’의 13시간 기획특집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추진 내용을 정리하였다. ‘육아존중문화’는 본 3개년의 연구를 착수하면서 처음 개념화하여 사용한 단어로 육아하는 가족에게 힘을 주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 개선을 도모하면서 협동기관인 SBS를 통해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다양하게 집중 조명하게 됨은 문화조성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노력

가. 3차년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1) 개요

3차년도 숙의토론 워크숍은 기존에 활동하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5인과 새롭게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4인⁴⁴⁾을 대상으로 4월에 4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수요자 참여형 숙의토론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은 4월 워크숍 이후 약 5개월 동안 육아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44) 참여자 정보 부록 참조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다.

4차 워크숍은 가정과 가정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 <표 VI-1-1>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VI-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4차 워크숍 진행순서

진행 단계	시간	내용
도입	13:00 ~ 14:00	작년 워크숍 내용 회고 및 워밍업 대화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진단	14:00 ~ 14:45	지난 연구결과 발표, 육아존중문화 체크리스트(가정, 지역사회) 투표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개선 방안 논의	14:45 ~ 16:30	SNS 활동방안 논의 -나의 경험담 공유/크리에이터즈 실천 과제 도출
크리에이터즈 캠페인곡 선정	16:30 ~ 16:40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곡 곡 제작
마무리	16:40 ~ 17:00	워크숍 내용 정리 및 소감 발표

2) 주요내용

가)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1) 가정 내 육아문화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을 위해 질문한 10개 문항을 살펴보고 문항별로 동의 정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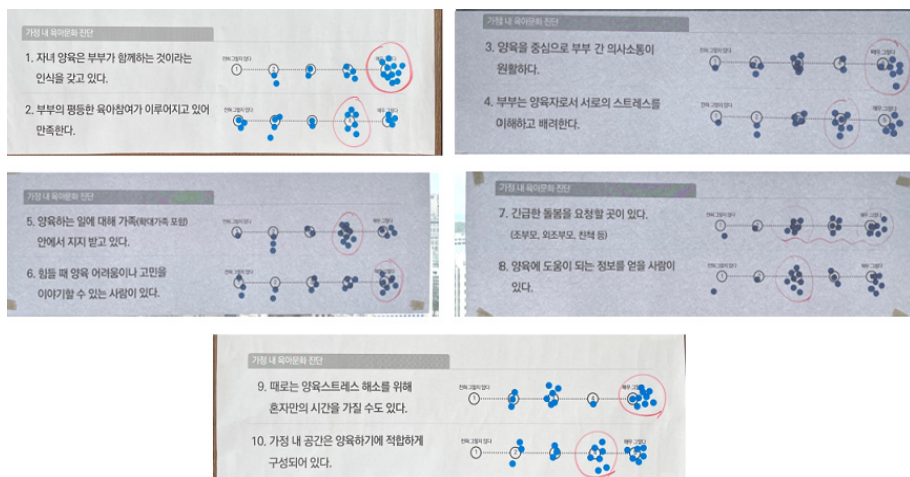
<표 VI-1-2> 가정 내 육아문화 체크리스트

우리 가정은...	동의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한다.					
3.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4. 부부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5.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받고 있다.					
6. 힘들 때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조부모, 친척 등)					
8.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9. 때로는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0.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함.

가정에서 자녀양육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되어있느냐는 질문에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인 15명이 ‘그렇다’(4표), ‘매우 그렇다’(11표)로 답해 대부분의 부부가 양육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제로 육아참여에 있어서는 인식에는 다소 못 미치는 참여율을 보였다([그림 VI-1-1] 참조).

[그림 VI-1-1]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결과



양육에 대한 부부 간 의사소통 항목에는 부부 간 대화는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배려 항목에서도 긍정 응답이 많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배려 노력이 엿보였다.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9표로 가장 많았고, 육아를 하면서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9표, ‘매우 그렇다’가 4표로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수가 과반 이상이였다. 마찬가지로 양육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3표인데 반해 4명은 양육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눌 대상이 부재하다고 답했다.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17명의 참여자는 조부모 등에게 긴급한 돌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묻는 항목에도 17명이 주변에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인적 도움을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이 양육하기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총 13표, ‘보통’이 3표, ‘그렇지 않다’가 3표로 대체적으로 집안의 환경은 육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질문한 10개 문항에의 동의 정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확인하였다.

〈표 VI-1-3〉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체크리스트

우리 동네는...	동의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2. 자녀를 양육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다.					
3.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있다(놀이터, 층간소음 등)					
4.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 지역사회 내 공간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6.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					
7.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8. 육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온라인 맘카페, 공동 육아나눔터 등)이 있다.					
9. 지역 내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양육에 도움이 된다.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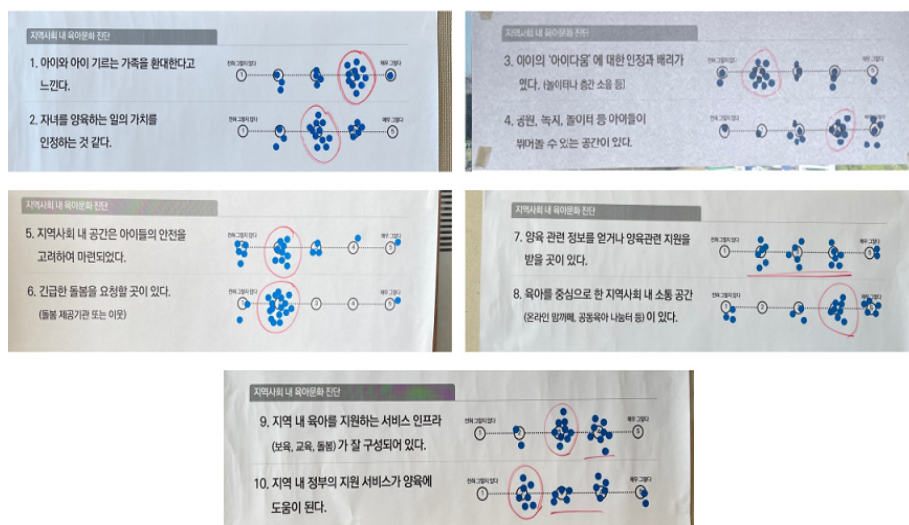
거주하는 동네가 아이와 가족들을 전반적으로 환대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긍정 응답이 13표로 과반수 이상의 가정이 지역사회가 육아하는 가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그림 VI-1-2) 참조). 그러나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중립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응답 많았다. 지역사회가 양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이 ‘보통’(12표)이라고 했으며,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있는지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표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대체로 잘 마련되어있으나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있는지 묻

는 질문에는 ‘보통’이 9표, ‘그렇다’가 8표로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했으나,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을 요청할 기관이나 이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육아 정보나 양육 지원을 받을 곳이 있는지, 정부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부터 ‘그렇다’까지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제도가 미비해서인지 혹은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등에 따라 각자 지원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결과



(3) 가정과 지역사회 육아문화 개선 방안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별로 육아를 존중받았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체크리스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육아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마지막 해로 육아준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자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육아준중 경험에 대해서는 조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이웃이나 외부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다움’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해준 경험이 고마웠다고 상기했고,

지역사회 내에 눈치 보지 않고 아이와 방문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물리적 환경 조성이 육아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이 있을 때, 카페나 식당에서 아이들 의자나 식기 등이 구비되어 있을 때

놀이터에 아이용 벤치나 아파트에 등하원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

아이들의 놀거나 뒹 때 발생하는 불편함(충간 소음 등)을 주변에서 이해해줄 때

버스, 택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배려해줄 때

이웃들이 아이에게 관심 가지고 인사해 줄 때

경험담 공유 후 체크리스트를 결과를 살펴보고 낮은 점수를 받는 항목이나 개선이 시급한 항목 등을 정하여 크리에이터즈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별로 브레인스토밍 하였다. 조별 토의 결과는 <표 VI-1-4>과 같다.

<표 VI-1-4>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 조별 브레인스토밍

조	내용
1조	- '구청장에 바란다'를 쓴다. - 재미요소가 있는 SNS 챌린지(#육아존중문화/육아존중 슬로건 태그, 릴레이 미션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존 등에 배포할 수 있는 놀이 커리큘럼 제작 - 육아 정보를 app 등을 통해 공유하기 - 실용성 있는 육아존중문화 홍보용 굿즈 제작하여 주변에 배포하기
2조	- SNS에 키즈존 해시태그, 사진 올리기 - 아이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기 - 키즈노트 앱 활용 및 홍보하기 - 운전 시 5030 안전속도 지키기 캠페인 - 동네 사각지대 찾아서 개선 요청하기
3조	-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하기 - 육아존중 사례를 보고 SNS 등으로 알리기 - 육아존중문화 홍보용 굿즈 제작하여 육아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가게에 제공 - 아이를 환대하는 가게 리스트 공유 - 미혼, 기혼 무자녀 가정의 육아 인식 개선과 육아존중문화를 홍보하는 캠페인 - '아이다움'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4조	- 노키즈존 매장을 가지 않기 - 동네에서 육아 가정끼리 품앗이 육아하기 - 육아 정보 홍보하기(맞벌이 가정 등에게)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 칭찬하기 - 부부 간 육아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만들기 - 카페에 온 엄마를 '맘충' 대신 '맘휴(休)' 로 부르고 홍보하기

조별 토의 내용을 비슷한 활동을 유형화한 후 전체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해 실천할 활동을 선정하였다. 가정과 지역사회 내 육아준중문화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이 제일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투표한 결과는 [그림 VI-1-3]과 같다.

[그림 VI-1-3]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 투표 결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좁게는 주변의 지인이나 거주 지역, 넓게는 사회 전반에 육아준중문화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활동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활동은 아이들을 환영하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을 발굴하고 SNS에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을 늘리고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줄여 지역사회에 아이를 환대하는 문화를 확산해가는 활동으로 총 15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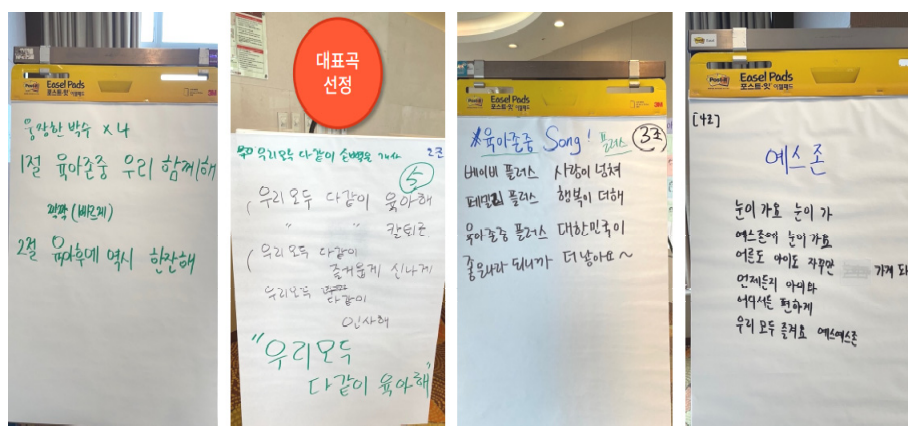
두 번째 높은 득표율을 받은 활동은 육아준중문화를 다양한 SNS 콘텐츠나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것과 육아준중문화 메시지가 담긴 굿즈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포하는 활동으로 각각 12표씩 받았다. 문화 확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육아를 존중하는 이모티콘 만들어 사용하기(9표)과 미혼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이벤트(5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작은 곳에서부터 육아문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품앗이 육아(7표)를 하자는 의견과 거주하는 구에 육아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점 건의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4표)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가정 내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비교적 높음을 고려할 때,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보다는 지역사회나 사회전반의 육아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4)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캠페인곡 선정

육아존중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별로 캠페인 곡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명한 광고 음악, 동요 등의 멜로디를 차용하여 육아 존중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곡을 만들고 대표 곡을 선정하였다. 각 조 별로, 공동육아 메시지를 담은 가사, 사회 전반에 육아존중문화 확산 메시지를 담은 가사,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확산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주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제작되었다.

[그림 VI-1-4]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캠페인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해 온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의 토의 내용의 종합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VI-1-5]와 같다.

[그림 VI-1-5]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4차 워크숍 결과물



나.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육아존중문화’ 실천 활동

4차 워크숍에 참석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1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육아문화 조성 실천 활동을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해당 활동을 위해 크리에이터즈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와 대화방을 만들었으며, 각 달마다 한 활동 내역을 카페에 올려 다른 참가자들의 활동도 참고하고 정보 등을 주변에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은 매달 차이는 있으나 모든 크리에이터즈가 수행하는 공통 실천 과제와 각자 원하는 선택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활동은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실천과제나 개인이 새롭게 발굴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연구소에서 제시하였던 월별 공통 실천 과제는 <표 VI-1-5>와 같다.

〈표 VI-1-5〉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공통 실천 과제

월	활동 내용
5월	- 우리 동네 에스키즈존 탐색, 홍보하기 - 육아존중문화 SNS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 - 육아존중문화 이모티콘 문구 공모
6월	- 우리동네,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 체크리스트 작성 후 개선이 필요한 점 각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작성하기
7월	- SNS '잘하고 있어' 챌린지(양육자 칭찬하기) 참여 -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콕놀이' 공유
8월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약속챌린지 참여
9월	-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육아지원정책 칭찬하고 주변에 추천하기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의 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 및 사회전반 문화 확산 측면에서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표 VI-1-6>, <표 VI-1-7>로 정리할 수 있다.

1) 가정 내 육아존중문화 확산 활동

<표 VI-1-6>과 같이 가정 내 육아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부부간 육아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고취시키는 SNS 홍보 활동이 있었다. 더불어, 공통 과제로 제시한 SNS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 내용 중 양육자들이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잘하고 있어!’ SNS 챌린지를 실시하였다. 사회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본 활동으로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음을 SNS에 게시하고 주변의 다른 부모들에게도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크리에이터즈 중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은 주변의 양육을 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지목하여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홍보하였다.

<표 VI-1-6>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가정 관련)

유형	가정 육아문화 개선 및 육아정보 공유	함께할 수 있는 집콕놀이 공유
분류	<부부 공동육아>	<요리>
내용	1. 맘 휴(休) 프로젝트 (엄마에게 휴식 주기, 육아 역할 분담하기) 2. 아빠와 노는 모습 sns에 업로드 후 미션과 이벤트를 가짐	뽕꼬치, 브라우니, 마카롱, 초코스틱 만들기
분류	<‘잘하고 있어!’ 챌린지>	<게임>
내용	1. 부모로서의 나 자신/배우자 칭찬하는 게시글 올린 후 챌린지 할 다음 사람 지정 2. 칭찬 글에 해시태그 #부모로서나 #칭찬챌린지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육아존중문화	보드게임, 목공놀이, 보물찾기, 스피드게임, 퍼즐놀이, 양궁놀이
분류	<부모교육>	<야외>
내용	1. SNS로 부부교육 홍보 2. 육아 관련 서적과 영상 업로드	흙놀이, 텃밭 가꾸기
분류	<부모교육>	<기타>
내용	1. SNS로 부부교육 홍보 2. 육아 관련 서적과 영상 업로드	그림자 놀이, 구슬 팔찌 만들기, 물에 꽃 띄우기

2) 지역사회 중심 육아존중문화 확산 활동

〈표 VI-1-7〉과 같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육아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을 탐색하고 홍보하기, 육아존중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모티콘 문구 만들기를 시작으로 워크숍에서 의견이 나왔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거주하는 동네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통 과제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활동을 추진하였다. 해당 활동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동네의 육아친화점수를 진단해보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설치되었으면 하는 시설,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 등을 구청에 직접 건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이 현재보다 육아하는 가정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어린이집이나 장난감 도서관 등 보육 관련 서비스 확대와 인력 확충,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 설치, 공공장소에서 육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공통 과제로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4차 워크숍에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제도나 서비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다른 항목보다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와 제도의 신설이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 활동에서는 본인이 활용한 육아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크게 영유아 지원, 부모 지원, 직장 근로자 지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선택 활동으로는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거나 주변의 아빠들끼리 공동육아를 하는 육아 품앗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사회나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가게에 방문하거나 주변 지인들 혹은 SNS를 통해 육아친화적 메시지나 결혼과 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다수의 육아가 정에게 육아지원제도를 소개하거나 육아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표 VI-1-7〉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실천과제(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 관련)

유형	에스키즈존(Yes kids zone) 홍보	지역사회 내 육아 관련 인프라 점검 및 건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홍보	육아존중문화 이모티콘 문구 공모	기타
분류	〈서울〉	〈지역사회 인프라 점검〉	〈영유아 지원〉	〈부모의 입장〉	〈육아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내용	월드컵 하늘공원, 초안산캠핑장, 평화의 공원, 국립한글박물관, 삼청동공방 우물길 정원, 리프패럿 전농점, 홍릉수목원, 어린이대공원, 팽곶랜드, 긴고랑 계곡, 서울숲 공원, 교보문고 광화문점 등	우리 동네,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1. 장난감 도서관 2. 월령별 영아보육 프로그램 3. 영유아 건강검진 4. 열린육아방	1. 육아 자체 영업종료 2. 나 오늘 칭찬해 3. 나도 엄마/아빠가 처음이야 4. 드려 육되 한잔해 5. 독박육아! 줄려~ 6. 엄마빠 지금도 잘하고 있어! 7. 이따 올게~ 8. 자유 부인/남편	1. 육아존중문화 굿즈 지역 사회 내 가게에 전달 2. 비혼 및 당크 지인들에게 결혼과 육아의 가치와 아이디어 나눔 3. 100인의 아빠단 활동 4. 육아친화적 글귀 sns에 업로드
분류	〈경기〉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모 지원〉	〈아이의 입장〉	〈품앗이 육아 실천〉
내용	카페 프랑슈아, 만골근린공원, 앤드테라스 카페, 숲266, 별내 별동별 숲놀이터, 파더스 키친, LA BBQ, 광고중앙공원 숲 놀이터, 동두천 자연휴양림 등	1. 보육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인력 확충 제언 2. 아이들 건강을 위해 흡연부스, 의료시설, 운동기구 등 신설 요청 3. 아이들 안전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개선, CCTV 확충, 보도정비 신호등 설치 요청	1. 우리동네 보육반장 2. 부모교육 프로그램 3. 예비부부교실 4. 양육상담 지원 5. 가족체험행사 지원 6. 맘스카페 7. 임신부 책 택배 서비스	1. 왜요오오오? 2. 하루 준비중 3. 충전~ 4. 응아 5. 쉬아 6. 까꿍! 7. Yes(No) kids!! 8. 조금 울다 그칠테니 이해 부탁요! 9. 내가 우리나라 미래입니다	1. 조카나 이웃 아이들을 서로 봐주며 소통하고 정보를 나눔. 2. 아빠들끼리 모여 공동육아에 참여함
	〈인천〉				〈지역사회 아이들 한대〉
	툼아저씨 트리하우스	4. 남녀공공화장실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설치 요청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유형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홍보	지역사회 내 육아 관련 인프라 점검 및 건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홍보	육아존중문화 이모티콘 문구 공모	기타
분류	〈대전〉		〈직장근로자 지원〉	〈직장인의 입장〉	〈#약속챌린지 참여〉
내용	장태산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태아검진시간 보장제도 -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금지 및 업무변경 - 가족돌봄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 육아휴직은 사랑이야 - 나는 열린 상사 - 칼퇴 감사합니다 - 수요일은 가정데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차별과 편견을 줄이자는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SNS에 공유
	〈강원〉				
	그림책 놀이터, 대관령 양떼목장				
분류	〈경북〉		〈경제적 지원〉		〈육아지원 제도 홍보 및 육아가정 공감대 형성〉
내용	교동집밥, 군파크루지		- 출산가구 전기료, 차량 취득세 경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가정 장학금, 교복 구입비, 전세자금대출비용 지원 및 시설이용료 감면		카카오 '음mm' 플랫폼에서 육아 관련 라디오 운영 및 육아휴직 관련 인터뷰 진행
	〈대구〉				
	동제미술관, 온더레일				

2. SBS 특집방송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SBS ‘희망 TV’는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로 2021년 11월 19일, 20일 양일 간 13시간 동안 연속으로 방영하게 되었다. ‘아이 기르는 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방송이 결을 같이 하기 위해 연구진은 방송제작진과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강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가. 기획의도⁴⁵⁾

가정, 지역사회, 직장 내 육아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육아와 출산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육아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육아존중문화’를 제시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함께 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라는 인식과 함께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나. 주요내용

[1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육아 이야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육아문화를 다시 보다. 육아전문가와 스타 부모들이 1:1 토크로 풀어가는 대한민국 육아문화 이야기다(그림 VI-2-1 관련).

[1부] 당신의 육아를 들려주세요 <희망카>

<희망카>에 탑승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육아에 관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고 2021 대한민국 육아 문화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

[2부] 경이로운 탄생

45) 본 내용은 본 연구의 협동연구기관인 SBS에서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탄생을 기다리는 일상의 설렘부터, 힘겨운 진통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기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예비 부모들의 출산 순간을 함께한다.

[2부] 육아의 재발견

육아는 정말 전쟁이고, 지옥일까? 12시간 관찰카메라를 통해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힘든 육아 속, 아이가 주는 행복의 순간을 재발견한다.

[2부] 나는 아빠다

이제 막 육아에 뛰어들든 초보 아빠부터, 육아 고수 아빠까지. 출산과 육아에 대처하는 각 가정 아빠들의 고군분투 육아기

[3부] 걱정말아요, 육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들에 대해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듣고, 맞춤 ‘정책’ 솔루션을 제시한다.

[4부] 글로벌 맘&대디 카페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 그리고 스웨덴과 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육아 중인 외국인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해외의 육아 문화를 살펴본다.

[4부] 뭉쳐야 산다! 新대가족의 탄생

최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동네, 한 건물에 가족이 모여 사는 ‘新대족’이 늘고 있다. 그들이 대가족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족이 모여 살면서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5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캠페인

1) 유아차 먼저!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부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TV 캠페인.

① 유모차No, 유아차Yes!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라는 용어를 사용

② 유아차 먼저!

계단이 있는 장소에서 유아차 이동 시 도와주기, 좁은 인도(도로)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아차를 먼저 배려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유아차 양보 캠페인

2) 울어도 괜찮아

유아와 동반 외출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희망TV 캠페인. ① “울어도 괜찮아” 수신호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 당황하는 부모님에게 긍정의 수신호 보내기

다. 편성

〈표 VI-2-1〉 SBS ‘희망 TV’,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편성표

방송 시간	내용																
1 부 08:40 ~ 11:00	■ since 1997. 희망티비 기적의 이야기 ■ since 1997 희망TV ■ <우리 하나 되어> 결산 ■ 보호종료아동 ■ 발진남 ■ 2021 새 프로젝트 - 육아존중문화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육아 이야기 & 희망카																
2 부 11:00 ~ 12:30	■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 ■ 결이로운 탄생 ■ 육아의 재발견 ■ 육아데디 ■ 가수 니비 남편, 쌍둥이아빠 김도연, 단축근무 심지원, 개그맨 이정수																
3 부 15:00 ~ 17:00	■ 걱정말아요 육아 with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table border="1"> <thead> <tr> <th>사례</th><th>솔루션 (정책)</th></tr> </thead> <tbody> <tr> <td>오산4남매</td><td>공보육,온종일돌봄 확충</td></tr> <tr> <td>22년 출산예정 부부</td><td>영아수당,첫만남누리미</td></tr> <tr> <td>아들 쌍둥이네</td><td>3+3육아휴직</td></tr> </tbody> </table> ■ 전국 육아정책 자랑 <table border="1"> <thead> <tr> <th>사례</th><th>솔루션 (정책)</th></tr> </thead> <tbody> <tr> <td>시골육아(강원도)</td><td>찾아가는 산부인과</td></tr> <tr> <td>황혼육아(광주)</td><td>손주돌봄수당</td></tr> <tr> <td>싱글대디(서울)</td><td>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td></tr> </tbody> </table> ■ 육아친화 기업 & 지자체 육아 정책 (예정) ■ 상상인저축은행	사례	솔루션 (정책)	오산4남매	공보육,온종일돌봄 확충	22년 출산예정 부부	영아수당,첫만남누리미	아들 쌍둥이네	3+3육아휴직	사례	솔루션 (정책)	시골육아(강원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황혼육아(광주)	손주돌봄수당	싱글대디(서울)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례	솔루션 (정책)																
오산4남매	공보육,온종일돌봄 확충																
22년 출산예정 부부	영아수당,첫만남누리미																
아들 쌍둥이네	3+3육아휴직																
사례	솔루션 (정책)																
시골육아(강원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황혼육아(광주)	손주돌봄수당																
싱글대디(서울)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4 부 17:30 ~ 19:50	■ 외국인가족 - 해외육아문화 ■ 글로벌 맘&대디 카페 (국내 취재) ■ 현지 취재 (스웨덴, 프랑스) ■ 캠페인 : <유아차 먼저> ■ 2021 新(신) 대가족 - 뭉쳐서 육아한다 ■ 연애인대가족 (이시훈) 일인인대가족 (진세권) ■ 육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육아) ■ 캠페인 : <울어도 괜찮아> ■ 가족의 의미 ■ 어마넉게																
5 부 24:30 ~ 27:00	■ 희망TV 스페셜																
6 부 08:30 ~ 11:00	■ since 1997. 희망티비 기적의 이야기 ■ since 1997 희망TV ■ 시청각장애아동 돕기 ■ 모두의 육아 (예정) ■ 육아친화 기업																

[그림 VI-2-1] SBS '희망 TV',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방송



주: 본 협동연구로 추진된 SBS 희망TV 방송장면을 캡처한 것임(2021.11.19.방송분).

라. 육아존중문화 조성의 파급효과

SBS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13시간 방영 이후 육아존중문화의 파급 효과를 다음의 수치들을 통해 가늠해 보았다.

1) SBS 희망TV 시청자수 추정

SBS 희망TV 방영 시 누적 실시간 시청자수는 2,479,790명으로 추산되며, 동영상 누적 조회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SBS 희망TV 누적 실시간 시청자수: 총6부 × 시청률 0.8% × 51,662.290명(2021년 10월 주민등록 총인구) = 2,479,7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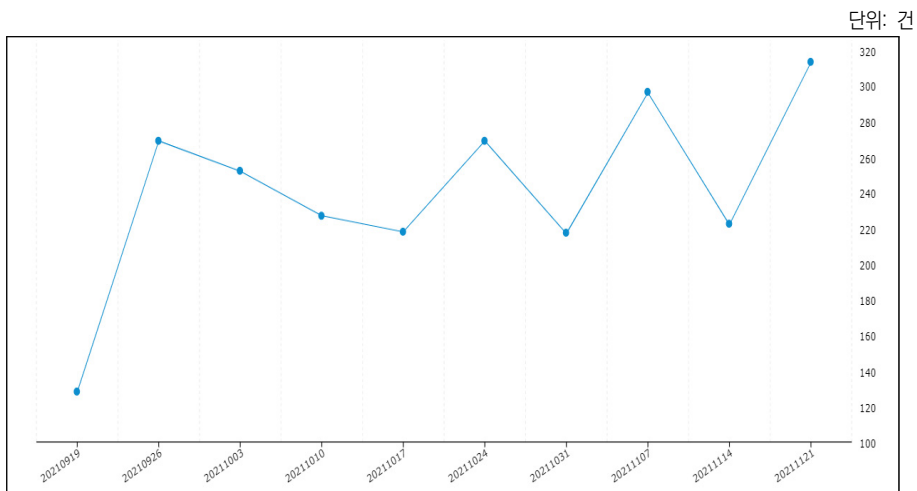
□ 유튜브 SBS pick에 업로드된 동영상 누적 조회 수(2021. 11. 28. 기준): 25,743회(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SBS 희망TV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시보기 시청자 수는 포함 안 됨.

2) 검색어 ‘육아’ 기사건수

다음은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BIGKinds(<https://www.bigkinds.or.kr/>)의 결과이다. 2021년 9월 19일 ~ 2021년 11월 27일 기간 중 주간 ‘육아’ 기사건수는 SBS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방영된 19일과 20일이 속한 11월 21일 주간 ‘육아’ 기사건수가 313건으로 최근 10주 중에서 가장 높게(이전 9주 평균 233건)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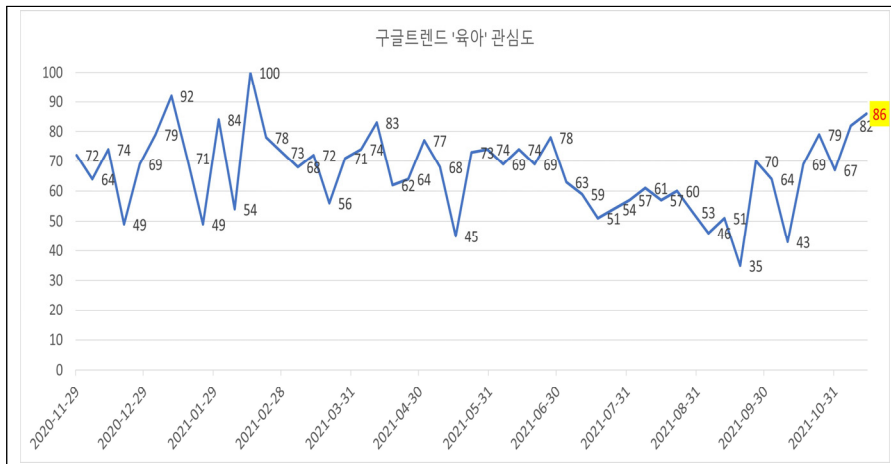
[그림 VI-2-2] 검색어 ‘육아’ 기사 건수 변화 추이



3) 구글트렌드에서의 ‘육아’ 및 ‘아동’ 관심도 변화

구글트렌드 대한민국(<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은 웹검색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1일 주간 ‘육아’, ‘아동’ 관심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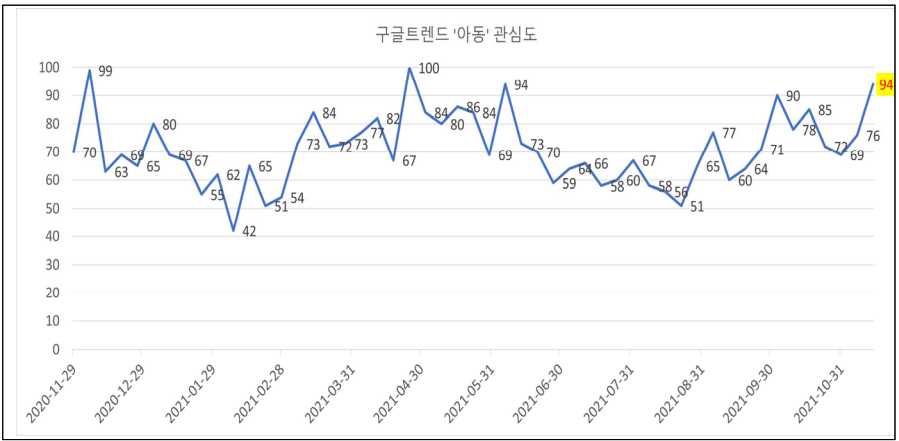
[그림 VI-2-3] 구글트렌드 ‘육아’ 관심도 변화 추이



먼저, ‘육아’ 웹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던 2021년 2월 14일~21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아준중문화 희망TV 방송이 된 2021년 11월 14일~21일 ‘육아’ 웹검색 빈도는 86으로 2021년 2월 21일 이후 관심도 최고 기록하였다.

구글트렌드 대한민국에서 ‘아동’ 웹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던 2021년 4월 25일~5월 2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아준중문화 희망TV 방송이 된 2021년 11월 14일~21일 ‘아동’ 웹검색 빈도는 94로 2021년 5월 2일 이후 관심도 최고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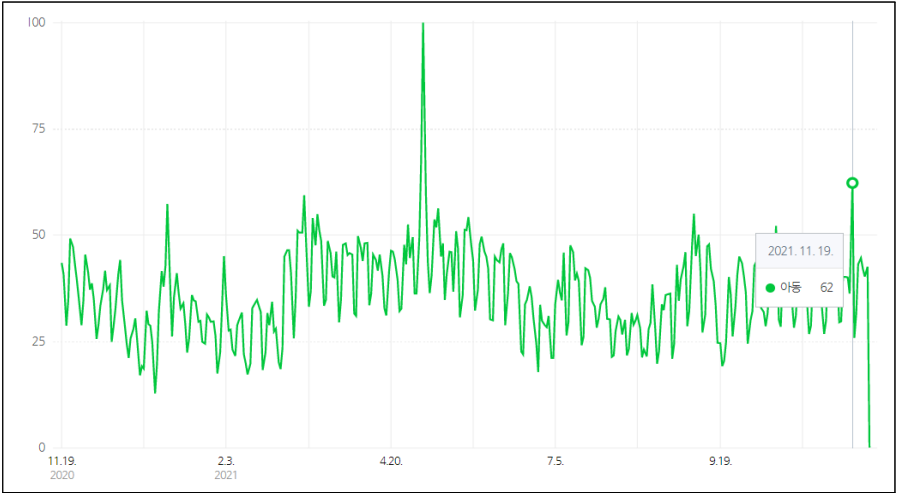
[그림 VI-2-4] 구글트렌드 ‘아동’ 관심도 변화 추이



4) 네이버(NAVER) ‘아동’ 관심도 변화

다음은 ‘네이버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2020년 11월 19일 ~ 2021년 11월 27일 일별 ‘아동’ 검색 건수를 조사하였다.

[그림 VI-2-5] 네이버데이터랩 ‘아동’ 관심도 변화 추이



네이버에서 ‘아동’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로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2021년 5월 5일)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기간 내 최다 검색량인 2021년 5월 5일을 100으로 했을 때, 육아존중문화 SBS 희망TV가 방송된 2021년 11월 19일이 62로, 2021년 5월 4일(68)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참고: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해당기간 내 평균 36임).

3. 소결

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활동을 통한 시사점

가정 내 육아문화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체로 크리에이터즈 확산 활동에서도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개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지역사회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부족하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성, 지역 육아지원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워크숍에서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반에 육아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실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개인 선택활동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진 활동이 많았다. 지속적인 육아존중문화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육아가정을 배려하는 시설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과 같이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나 캠페인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3년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을 통해 육아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의 홍보가 효과적임을 확인하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확산 활동은 일회성 행사나 교육으로 단기간 내 달성되기 어렵고, 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 집단이 자발적으로 육아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함에는 인력과 비용 등의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바단’과 같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를 사업화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SBS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방송을 통한 시사점

방송 미디어가 시청자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SBS의 장시간 집중 기획 프로젝트는 시청자들에게 ‘아이 기르는 일’에 주목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전 사회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BS 희망TV 시청자수 추정, 뉴스빅데이터 검색어 ‘육아’ 기사 건수, 구글트렌드에서의 ‘육아’ 및 ‘아동’ 관심도 변화, 네이버(NAVER) ‘아동’ 관심도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양육자들이 사회의 지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홍보가 방송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VII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 01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 02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 0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VII.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본 장에서는 3차년도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3개년의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아동과 양육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요 양육환경인 가정과 양육자의 일터, 가족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육아존중문화’ 조성의 방향성과 그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1.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은 점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니나 실제 양육 분담 등의 실행은 여전히 미진하다.’,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지원에의 요구가 높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희망한다.’, ‘맘 카페, 육아용품 지역 나눔 등의 육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 <표 VII-1-1>과 같이 제시한다.

<표 VII-1-1>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자녀 양육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 - 성평등한 가치관 지니나 실행은 미진 -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지원의 요구 - 자녀 양육역량 강화에의 요구 - 육아 중심 소통 다양화(맘카페, 지역나눔)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보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역량 강화 기회 확대(아버지교육 등)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나.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양육자들은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20~30대의 경우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 40~50대의 경우는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1)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설문조사 결과 육아문화 인식과 자녀 양육 관련 가치 등의 문항에서 집단차이 보이는 부분은 연령과 남성과 여성 등 성별로 수렴되었다. 20~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음이 공통적인 양상이다.

이렇듯 연령에 따른 차이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육아관련 인식의 변화가 급격하였음을 의미한다. 40대와 50대에 비해 20~30대가 실제 양육분담에서도 참여도 높고, 그로 인한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다. 육아문화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이다.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육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미래 부모가 될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행복한 육아, 성평등한 육아, 책임 있는 육아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

육아문화를 홍보로 바꿀 수 있는가?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을 요한다.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다. 육아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을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육아에 대한 문화 개선을 도모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 수준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우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

는 행복육아' 주제로 육아문화 정착 포스터 공모전⁴⁶⁾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실속육아, 작은 육아를 포함하는 육아문화 조성에 노력⁴⁷⁾하면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금번 SBS의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⁴⁸⁾와 같이 방송매체의 내용으로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의 기쁨과 어려움을 공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CBS 등의 매체⁴⁹⁾에서도 육아문화에 대한 내용을 기획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캠페인도 다양하여 경북 김천, 경기도 오산, 부산 금정은 아빠들의 육아사진 전시회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육아에 대한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다.⁵⁰⁾ 이와 같이 지자체의 다양한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육아하는 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홍보 시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긍정적 육아문화가 퍼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주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파악한 정보를 각 주체들의 웹진이나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노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본 연구 추진 과정에서 3년 동안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적극적 참여로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주위의 홍보만이 아니라 설문문의 구성, 결과의 해석,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 또는 기업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포터즈 집단으로 육아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운영하는 안을 제

4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0.21.).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함께하는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47)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권미경, 이정원, 최효미, 김혜진, 2016) 및 행복을 키우는 작은 육아: 실속육아 실천 가이드북(권미경 외, 2017) 수탁연구로 진행.

48) 2021년 11월 19일, 20일 SBS ‘희망 TV’ 13시간 기획 방송

49) 노컷뉴스 기획으로 육아문제를 다루며, CBS 포럼 주제로 육아문화를 포함함.

50) 매일일보, 2020. 5. 22, 2020. 9. 8; 한국일보, 2020. 6. 25

안한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양육자들이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토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를 위한 서포터즈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여 온 것 같이 그동안 직장(가족친화기업)을 포함하여 다면적인 육아문화 개선을 도모해 온 여성가족부에 문화 개선을 위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 지역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선발과 운영이 가능하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를 지자체 별로 아니면 경제계와 협력하여 ‘직종’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외식업체 혹은 보건의료나 IT업계에서 근무하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를 통해 그 직군에서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평등한 양육참여 가능한 제도적 지원

현재 가정 내 양육 환경 진단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부가 양육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여성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자녀양육 등에서의 동의가 높아 가정에서 대체로 성평등한 육아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식에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치고 있었다.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빈도는 높지 않았지만, 갈등의 원인은 자녀의 훈육과 부부간 양육 역할의 분담이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했다. 인식변화에서 더 나아간 실질적 육아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등한 양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설문과 심층면담 결과 이러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아버지가 양육의 참여는 희망하지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체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량이 어머니에 비해 떨어져 아버지에게 양육이 힘겹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는 자연스럽게 정시 퇴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직장의 육아지원제도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환경과 연계된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다면적인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아버지들은 양육 참여를 희망하지만 돌봄에의 필요한 양육 기술이나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이 서툴러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버지 양육 역량강화 기회 확대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며 아버지의 역할이 확장되었고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변화한 역할에 맞춰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육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아버지 대상의 교육강좌, 부모교실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직장에서 자체 교육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초록우산 부모교육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화시켜 일터인 직장으로 가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한 아버지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빠들의 놀이터’ 운영

덴마크의 ‘아빠들의 놀이터(Fars Legestue)’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빠들의 놀이터는 육아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네트워크 형성의 공간이며 함께하는 시간이다. “덴마크의 ‘아빠들의 놀이터(Fars Legestue)’는 일주일에 한번 씩 구마다 마을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놀이터지기를 파견하여 3시간 정도 운영되는 형태이며 이 때 간호사가 함께 파견되어 1시간 동안의 양육 상담도 지원한다(권미경, 문무경, 김영민, 2019, p.255-256).”

주로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토요일에 자녀와 아버지가 모일 수 있는 ‘아빠들의 놀이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연구결과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또는 어려움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거나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에의 요구가 높았다. 심층면담에서도 주말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 문화가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 부모의 자녀양육 권리에 대한 보장 요구인 것이다.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 증진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육아문화 개선으로 2차년도에 다룬 내용이다. 그동안 일·가정양립제도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비롯하여 일·가정양립제도는 COVID 19 이후 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권미경 외, 2020, p. 341).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 감염병 상황 대처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 운영 모범사례 발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지원 유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권미경 외, 2020, p. 342).

4) 양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도 성장한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도 힘을 얻는다. 그러나 부모들은 양육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양육을 힘겹게 느껴 육아 길잡이, 놀이 방법 등 실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참여가 가능한 활동과 교육이 설계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기회 확대

이러한 부모교육에의 요구를 반영하여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강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양육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은 일방향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소규모 토론식, 양육 상담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이 많아졌고 양육방식 차이가 갈등을 야기되기도 한다. 조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높으나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다. 부모교육 계획 시, 조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5) 온·오프라인 육아정보의 교환, 소통의 장 마련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사회를 벗어나 온라인 카페, 조리원, 문화센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과 친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하고 정서적 지원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⁵¹⁾ 육아하는 가족 간에 지역 내 육아용품의 나눔이 증가하고,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 관련 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함이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로 두드러졌다. 부모들은 육아기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도 높았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이 육아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의 장으로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긍정적 육아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예전에 영유아의 백신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온라인 네트워크처럼 편향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복지로, 육아정책연구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부모들이 육아관련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1)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임.

2.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가.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은 ‘지역사회에서 양육자가 체감하는 육아 관련 가치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한다.’,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가 높다.’, ‘농어촌 지역의 양육환경이 도시 지역보다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자들은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가 높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 <표 VII-2-1>과 같이 제시한다.

<표 VII-2-1>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육아 관련 가치/인식은 높은 평가 -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활용 어려움 -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 - 농어촌지역 양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 -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나. 지역사회 육아문화 개선방안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구축’,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과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1)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 양육 지원제도에의 안내가 필요하다. 각종 육아지원 제도가 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도 그 활용이 저조함이 문제이다. 정책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정책의 안내와 홍보를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 가능하다.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 강화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⁵²⁾으로 운영 중이다. 출생신고 시 부모동의를 얻어 보육반장은 각종 육아정보(돌봄, 보육, 육아정책, 지역사회 내 육아공간 등)를 수집하여 push service로 부모에게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양육 부모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수요자들에게 다가가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도가 다른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

부모들은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으나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⁵³⁾ 이는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지자체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다를 수 있다. 각 센터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거리가 멀어서 유모차를 밀고 오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도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지자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셔틀 운영), 농어촌처럼 멀리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해 주거나(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로 버스 운영을 중단한 대신에 장을 보러 나가는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 서비스 제공), 대도시의 자차 이용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센터의 주차 공간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5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3.

53)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임.

2021년 10월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센터까지 포함하여 123개소⁵⁴⁾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7개⁵⁵⁾가 운영 중이다. 전국 분포임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떨어짐은 분명하다. 센터의 확대가 부담이 된다면 인력의 보강을 통해 분소의 형태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중심의 육아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전달체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자체 특화사업들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의 중앙정부와의 매칭보다 지자체 운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장해가도록 전달체계의 지자체 이양을 고려할 수 있다.

바퀴달린 센터를 만들어,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동네 공터, 주민센터 주차장, 아파트 광장 등 이용 가능). 현혈버스처럼 대형버스를 개조해서 차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실내 놀이공간을 만들고, 외부 공터에 튜브 슬라이드나 트램폴린을 이용한 작은 이동식 놀이터 제공하고, 어르신을 위한 방문 목욕차처럼 작은 탐차를 개조해서, 지자체 내 영유아가 있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며 장난감이나 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찾아가는 육아서비스 차량에 전문가가 함께 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아이 기르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영아를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아전용 놀이터’ 등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54)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보육진흥원_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4860/fileData.do> (2021.10.23 인출함).

5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2021. 10.23 인출함).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및 정책 건의

양육자들이 지금 거주 중인 지역사회는 육아친화적인가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환경정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양육자가 거주하는 사회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할 수 있는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⁵⁶⁾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에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한 기업으로) 참여해 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육아하기 좋은 지자체를 ‘육아친화도시’로 인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실천활동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활동명으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청과 울산시로 육아환경 개선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책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3)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심층면담에서도 농어촌 지역 거주하는 경우 지역 내 육아지원 환경 개선에의 요구가 높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양육환경으로의 지역사회 평가 문항에서 양육지원서비스 인프라, 안전한 놀이 공간, 긴급돌봄지원, 양육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은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8)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하다. 농어촌의 양육환경은 농어촌은 보육교육기관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관과 거리가 멀고,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서비스

56) 권미경·박원순·김지현·윤유나·손승우·윤정호·김동우·정소이·조승연·박범수(2020).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이용이 어려우며, 소아과 병원과 응급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에서 영유아 양육가정이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의료시설 부족이다. 특히 소아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8)에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공중보건의를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 의사로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 소아과 병원을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혹은 건물 대여비용에 대한 대출 등 금전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개원을 장려하는 방안, 지역 보건소 또는 공공 네트워크로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주말 등 필요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에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한 기업으로) 참여해 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육아하기 좋은 지자체를 ‘육아친화도시’로 인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문화공간에의 요구가 높다. 도시에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센터, 영유아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 체험실, 키즈 카페 등 다양한 이용기회가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체로 이런 기회가 부족하다.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장소는 도서관이나 초등학교의 빈 교실, 주민센터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도서관의 전문인력과 재정으로 지역 내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공연, 인형극, 독서교실, 체험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 만난 또래 부모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회사 동료, 친구, 조리원 동기, 유치원 엄마 등 오프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듣고, 서로 힘을 얻는다. 부모들은 지역 및 동네에서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육아모임이 있고, 활성화되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지자체 내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가정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적 육아공동체가 지역사회(social community)안에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정(育兒亭)’설치

육아정(育兒亭)은 노인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육아를 위한 마을 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끼리의 육아정보 교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다. 서울특별시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이라는 사업으로 이러한 육아정 개념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67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도 유사한 기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육아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의 기능을 담당한다. 시군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지역 내 육아정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이다. 상근 보육전문요원의 파견이 어렵다면 요일제로 파견하여 부모상담 프로그램, 체험교실, 부모 교육, 양육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 수준이 가능하다면 공공 키즈 카페로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렵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은퇴한 교사나 단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도 가능하다.

건강한 온라인 공동체 조성 방안

현재 부모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은 지역 맘카페이다. 맘카페에서는 각종 정

보를 공유하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물품을 교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맘카페의 역기능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지역 맘카페는 육아정책의 안내와 홍보의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역 맘카페 담당 업무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정책의 안내와 홍보, 부모지원 자료의 배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둘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지역 맘카페의 운영자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등으로 연계해서 일방향적인 정책 안내나 홍보가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육아지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의 주요 내용은 일·가정양립제도를 포함하는 육아지원과 관련이 깊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에 14개를 운영 중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 기업, 들의 여성가족재단, 일자리진흥원과 협력하여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중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처럼 '육아친화상점', '아동친화식당', '육아친화노래방' 등의 인증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동 맞춤 세면대나 변기가 있으며, 유모차 파킹 공간이 있는 등 아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영업장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업 중심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조성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포럼, 홍보, 교육 등 지역사회 기업 간 협업사업을 통해 가능하다.

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가. 3개년 육아문화 연구 흐름

본 과제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3개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특히 문화 확산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와 3년 동안 협력하였다.

1차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현재 우리사회의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먼저 양육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육아 관련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우리 사회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양육자의 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있으나 그 사용은 쉽지 않다.’,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육아(育兒)’에 대해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육아 관련 키워드의 빅데이터 분석⁵⁷⁾,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등으로 육아문화를 진단하여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차년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하여 양육자의 일터, 직장에서의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심층면담,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직장 육아문화 현황 및 문제점을 ‘제도는 있지만 그 사용은 어렵다.’, ‘양육자들은 자녀를 돌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다.’, ‘직장 내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이는 상황이다.’, ‘직장 육아지원제도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이 좌우한다.’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지원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집중, 육아지원 직장 문화 조성,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 등을 골자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차년도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현황을 탐색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5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함께 2016년~2018년 3개년의 관련 자료를 웹크롤링하여 분석하였다(권미경 외, 2019).

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문화의 변화가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가? 육아문화의 구성자들은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였다(권미경, 문무경, 김영민, 2019, p.249).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열 명 중 아홉 명이 동의하였다(권미경 외, 2019, p.249). 또한 양육자들은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는 정부(23.2%), 직장과 기업(21.7%) 보다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37.9%) 이라고 답하여 자신을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결과들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육아문화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자녀와 그 양육자의 환경으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족들이 환대 받는 육아존중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양육자 환경의 육아친화성(育兒親和)증진

우리 사회가 양육자들에게 긍정적인 육아문화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공간, 마을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선행연구(권미경, 황선영, 이혜민 외, 2019; 권미경, 박원순, 김지현 외, 2020)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 환경은 아이 기르는 상황을 배려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공원 녹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아이 기르는데 필요한 돌봄,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잘 조성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며,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체화하였다. 양육자의 환경이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되도록 지자체 수준에서 현재 지역사회 환경과 지원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요구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와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지자체 중심 진단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였다.

58) 3차년도 설문조사 결과임.

2) 육아지원 제도의 수요자 적합성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면적인 육아지원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책수요자들은 ‘육아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⁵⁹⁾, ‘육아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서’ 육아지원 제도의 효용성과 접근성 부족을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들로 지적하기도 하였다.⁶⁰⁾

육아지원정책이 정책수요자에게 지원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안내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에 맞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적조사 결과 양육자들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 받기 원하는 서비스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양육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대신해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로봇청소기나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등을 대여해 주거나 출산 전이나 산후조리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혹은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른 집안 정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집안정리, 출산휴가 이후 직장 복귀 전 집안정리, 영아기에서 유아기나 아동기(초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집안정리 등이 그것이다.

신규 제도의 도입, 정책의 추진, 성과 분석의 과정에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3) 육아문화 개선 노력과 홍보의 지속성

우리사회에서 육아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들은 더 이상 육아가 여성의 일로, 도와주어야 하는 일로 여기기보다는 함께 하는 일로 생각하는 변화를 보이고,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중심의 주말을 보내는 경향을 보이며, 기업에서도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제도들이 서서히 안착되는 양상을 보인다.⁶¹⁾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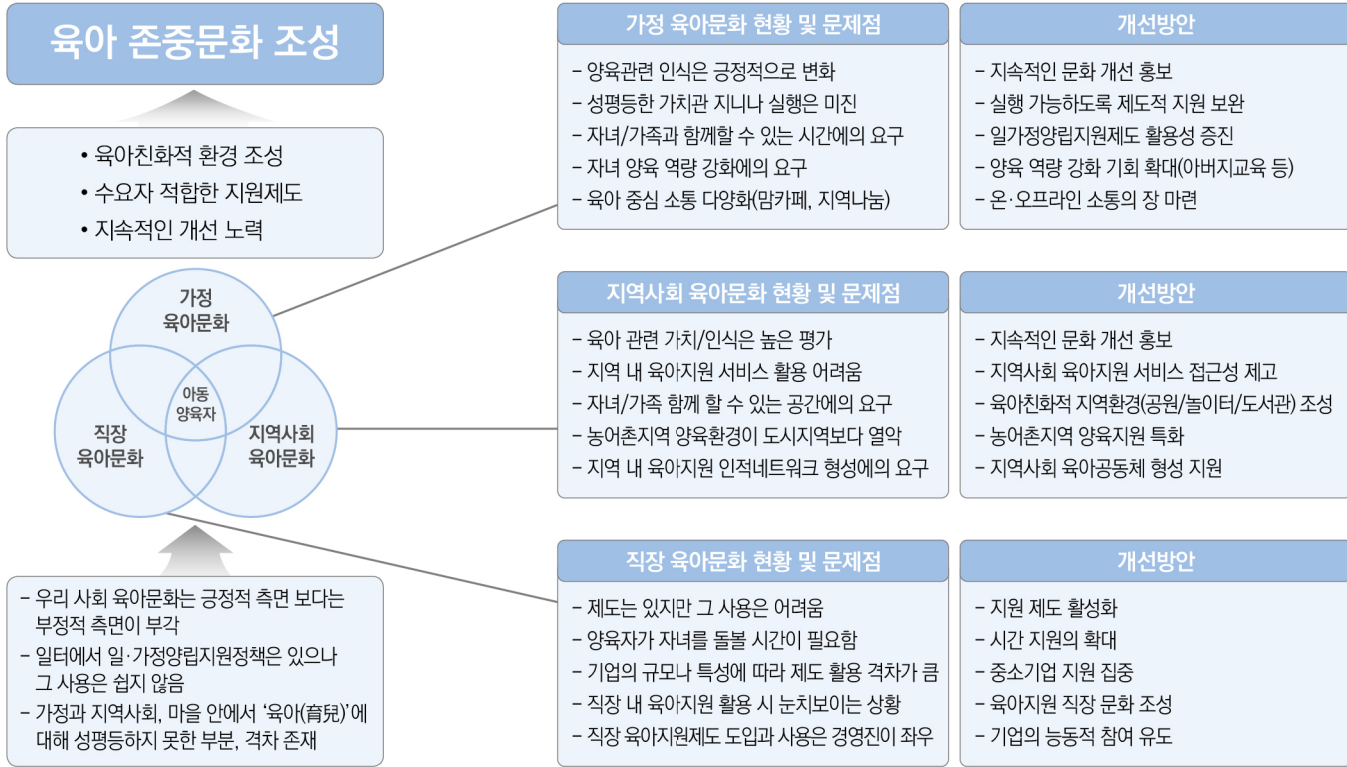
59) 양적조사 결과,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응답자 열 명 중 다섯 명이 비용지원 확대를 꼽았는데 영아를 위한 육아수당을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정부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임.

60) 본 연구 조사 결과임.

61)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 자료에 근거함.

도 높아 각종 언론매체와 방송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적 수준에서 출산과 육아지원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며 홍보하고 있다. 정책수요자들은 육아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을 꼽았다. 이렇듯 전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의 개선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Ⅶ-3-1]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





참고문헌

-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
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고용노동부(2015. 7. 31.).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 노르웨이의 일가양득 제도.
[http://moel.skyd.co.kr/bbs/board.php?bo_table=balance&wr_id=](http://moel.skyd.co.kr/bbs/board.php?bo_table=balance&wr_id=25)
25 (2021.8.28. 인출)
- 고정국·이정화·오영은(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1), 25-50, p.41.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
화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김나영·김아름·최인화·김영민·신하은·강민정·이승현·권소영(2020). 육아존중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박원순·김지현·윤유나·손승우·윤정호·김동우·정소이·조승연·박범수
(2020).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
회·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
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최효미·김지현·김혜진(2017). 행복을 키우는 작은 육아: 실속육아 실천
가이드북.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9-23.
- 김순란·김용미(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동향:
1984년부터 2019년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9(4), 127-140.
- 김연재·최은실(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놀이치료연

구, 24(2), 19-33.

김연하·장욱·서홍우(2019).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 13(3), 81-98. p.93.

김영미(2016).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외국법제동향 2, 58-73.

김은설·김지현·이재희·김혜진·안석(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0-01.

김태근(2021). 미국 정부의 확장적 사회정책: 아동수당 확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7, 59-66.

김혜정(2018).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노르웨이, 핀란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효정·박경옥(2021). 육아커뮤니티 시설의 공간·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 한국주거학회, 32(1), 99-112.

나경애·민경석(2020). 아버지의 행복감, 어머니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과 자존감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26(1), 41-59.

남현주(2020).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871-884.

박언하(2017). 노르딕 4개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6(6), 513-527.

박혜선·남윤옥(2016).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의 독일 다세대교류센터의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60.

방해순·이현주 (2021).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19(2), 89-98.

보건복지부(2021). 100인의 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0.21.).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함께하는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동희(2008).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173-181.

서석원·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마을이 키우는 아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유지연(2019).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특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115-138.
- 이미화·이윤진·박상신(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옥경(2017). 아빠육아 참여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여성우리, 57, 6-11.
- 이윤진(2015).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할.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조혜주(2015).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세원(2013).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숙(2004).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27(1), 91-119.
- 이진숙·김태원(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8(1), 3-26.
- 이하정(2010). 일본의 지역중심 자녀양육지원 체제의 특성-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1), 373-395.
- 이희정(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33(6), 25-41.
- 전홍주·조수경·김미정·최향준(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5(5), 2678-2688.
- 정우영·김희영(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 연구, 17(3), 75-101.

- 정재훈(2010). 독일의 저출산 문제 등장배경과 정책적 대응양상. 민족연구 41, 168-189.
- 정재훈·박은정(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24(1), 1-31.
- 정재훈(2013).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5(2), 45-80.
- 조은주·이소연(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증상과 자녀에 대한 분노의 매개 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27-144.
- 최미경(2020).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8(3), 299-313.
- 최숙희(2016).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18, 37-62.
- 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2020).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 최지은·이지원·김현경(2021).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맞벌이-공동양육 (dual earner-dual carer) 잠재집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15(1), 55-79.
- 최화자·이하원(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2), 77-94.
- 허수연(2010). 복지국가의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비교연구 :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279-308.
- Abe, Y. (2011).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labor force behavior of women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5(1), 39-55.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21. 4. 15). Child Care Funding Released in American Rescue Plan.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1/child-care-funding-r>

- released-american-rescue-plan
- Asher&Lyrics. (2020. 6. 24.) The Best Countries to Raise a Family in 2020.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www.asherfergusson.com/raising-a-family-index/>
-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e, M. A. (2006). Th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M. (2011). Changing families, changing workplaces. The Future of Children, 15-36.
- BMFSFJ. (2016). “Bilanz 10 Jahre Elterngeld”, Berlin: BMFSFJ. Retrieved July 1, 2021, fro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13300/8802e54b6f0d78e160ddc3b0fd6fbc1e/10-jahre-elterngeld-bilanz-data.pdf>
- BMFSFJ. (2019).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Berlin: BMFSFJ.
- BMFSFJ. (2020).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Berlin: BMFSFJ. Retrieved July 1, 2021, fro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93614/5007d8253164d915b285066b8791af38/elterngeld-elterngeldplus-und-elternzeit-data.pdf>
- BMFSFJ. (n.d.). Was ist ein Mehrgenerationenhaus? Retrieved June 20, 2021, from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mehrgenerationenhaeuser/was-ist-ein-mehrgenerationenhaus>
- BMFSFJ. (n.d.). Hauser in Ihrer Nahe. Retrieved July 1, 2021 from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mehrgenerationenhaeuser/haeuser-in-ihrer-naehe>
- Bronfenbrenner, U. (1981).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Brüning, B. (2020). Ikumen-The new fathering in Japan.
- Fiske, A. P. (2002). Us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 compare cultures-A critique of the validity and measurement of the

- constructs: Comment on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1), 78-88.
- Holloway S.D., & Nagase A. (2014). Child Rearing in Japan. In: Selin H. (eds) *Parenting Across Cultures. Science Across Cultures: The History of Non-Western Science*, vol 7.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07-7503-9_6
- Kaiser, S., Skjesol, I., Sætrum, A., Adolfsen, F., & Martinussen, M. (2020). Parent Satisfaction with the Open kindergarten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1-14.
- Kobayashi, M., Kobayashi, M., Okumura, T., & Usui, E. (2016). Sharing housework between husbands and wives: how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for working wives in Japa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18), 1-15. (2016). Retrieved July 1, 2021, from <https://doi.org/10.1186/s40173-016-0074-9>.
- Leitner, S.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 Nomura, K., & Koizumi, A. (2016). Strategy against aging society with declining birthrate in Japan. *Industrial Health*, 54(6), 477-479.
- Samtleben, C., Schaeper, C., & Wrohlich, K. (2019). Elterngeld und Elterngeld Plus: Nutzung durch Väter gestiegen, Aufteilung zwischen Müttern und Vätern aber noch sehr ungleich. *DIW Wochenbericht*, 86(35), 607-613.
- Sigle-Rushton, W., & J. Waldfogel. (2006). Motherhood and women's earnings in Anglo-American, Continental, European and Nordic Countries.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Series*, 454.
- Yu, W. H., & Kuo, J. C. L. (2018). Does parenthood foster traditionalism? Childrearing and alterations in gender and family attitudes in Japan. *Social Forces*, 97(1), 221-250.

【신문기사】

- 경향신문(2018. 7. 23). 올해 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8463명, 육아휴직 6명 중 1명은 '아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31200001&code=940702 (2021. 3. 18. 인출)
- 국민일보(2018. 9. 6). 충북광역새일센터, 부부공동육아 인식개선 '아빠도 육아'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62827&code=61171811&cp=nv>
- 국민일보(2021. 2. 11). 육아휴직 4명 중 1명 아빠... 3년새 2배 늘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162&code=11131100&cp=nv> (2021. 3. 18. 인출)
- 국제일보(2018. 10. 31), “육아,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http://kookjeilbo.com/news/article.html?no=49407> (2021. 3. 18. 인출)
- 노컷뉴스(2017. 9. 1). [노키즈존 해법 ③] '맘충·노키즈존', 공존은 가능한가
<https://www.nocutnews.co.kr/news/4838357> (2021. 6. 6. 인출)
- 뉴스1(2020. 9. 15.). 코로나19·가족변화에 '지역사회 돌봄' 강화...공동육아나눔터 64곳 확대.
<https://www.news1.kr/articles/?4058938> (2021. 3. 18. 인출)
- 뉴스시(2021. 5. 24). 대전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건립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4_0001450744&cID=10807&pID=10800 (2021. 6. 6. 인출)
- 동아일보(2020.12.22.). “육아휴직 16만명...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 매일일보(2019. 7. 29). 천안시 ‘아이좋아, 아빠좋아’ 교실 운영.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25421> (2021. 3. 18. 인출)
- 매일일보(2020. 4. 26). 인천시, 슈퍼맨 양성 프로젝트 ‘아빠육아 천사(1004)단’ 모집.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05365> (2021. 3. 18. 인출)
- 매일일보(2020. 5. 22). 오산시, 아빠 육아·가사 사진 공모전 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2659> (2021. 3. 18. 인출)
- 매일일보(2020. 9. 8). 부산 금정구, ‘초보아빠 육아방 사진 전시회’ 성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4628> (2021. 3. 18. 인출)
- 베이비뉴스(2019. 8. 22).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성동 마더센터’ 개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43>
(2021. 6. 6. 인출)
- 베이비뉴스(2020. 8. 14). 여가부, 내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모집 시작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81>
(2021. 6. 6. 인출)
- 서울&(2019. 9. 14). ‘노 키즈? 웰컴 키즈!’ 국내 최초 공립영화관.
http://www.seoulant.com/arti/culture/culture_general/2521.html
(2021. 3. 18. 인출)
- 서울경제(2017. 9. 15). [육아錢쟁] 자녀 돌봄 품앗이로 나홀로 육아걱정 뚫.
<https://www.sedaily.com/Event/Election2017/NewsView/10L1CVTH7E> (2021. 3. 18. 인출)
- 서울신문(2018. 11. 14). 여주시와 함께하는 아빠육아 첫걸음… ‘초보아빠수첩’ 발간.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4500052&wlog_tag3=naver#csidx8fec241fcf0ac318127472bb1f5f969 (2021. 3. 18. 인출)
- 세계일보(2018. 1. 25). [이슈+] ‘아빠 육아’ 늘었지만…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125005462?OutUrl=naver>
(2021. 3. 18. 인출)
- 세계일보(2018. 7. 19). 아빠 육아휴직 쓰라더니… 정부부처 사용률 3.8%.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719005773?OutUrl=naver>
(2021. 3. 18. 인출)

- 세계일보(2019. 6. 14). “육아 관심 많은 아빠들 모여라”.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3511484?OutUrl=naver>
(2021. 3. 18. 인출)
- 세계일보(2020. 8. 13).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3509512?OutUrl=naver>
(2021. 3. 18. 인출)
- 세계일보(2021. 3. 11.). 코로나에 어쩔수없이?... 육아·살림하는 남자 늘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0515139?OutUrl=naver>
(2021. 3. 18. 인출)
- 아시아경제(2017. 12. 3). "우논아이환영" 노키즈존 논란에 뜨는 예스키즈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0300123669258> (2021. 3. 18. 인출)
- 아시아경제(2019. 12. 30). 페미니즘·유니클로·노키즈존...2019 한국 사회 갈등
뒤 있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3000100883549> (2021. 6. 6. 인출)
- 여성신문(2021. 1. 27). 관악구,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92> (2021. 6. 6. 인출)
- 여성조선(2019. 5. 13). 임기 중 출산휴가, 아이 동반 국회 출석 신보라 의원
<https://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90561329> (2021. 6. 6. 인출)
- 연합뉴스(2017. 5. 12).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아빠육아 캠페인.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1061700017> (2021. 3. 18. 인출)
- 연합뉴스(2019. 5. 31.). 초보아빠 육아모임 '100인의 아빠단' 전국 확대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044800017> (2021. 3. 18. 인출)
- 연합뉴스(2019. 4. 21). [SNS 세상] "조용히 즐겨야하니 노키즈?"...파인다이닝 쉼
프에게 물어보니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128800011?input=1195m>
(2021. 6. 6. 인출)

- 연합뉴스(2020.01.0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 이데일리(2017. 10. 10). [작은육아]"뛰지마!" 집은 층간소음·밝은 노키즈존...갈
곳 잃은 아이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9206616091608
&mediaCodeNo=257&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9206616091608&mediaCodeNo=257&OutLnkChk=Y) (2021. 6. 6. 인출)
- 이데일리(2018. 1. 12.). 여행객도 무료 이용...평등 교육의 상징 '열린 유치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19077064
&mediaCodeNo=257](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19077064&mediaCodeNo=257) (2021. 6. 30. 인출)
- 조선일보(2019. 7. 29). 아빠 육아휴직 늘고는 있는데, 양육·집안일 70% 엄마 몫.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0167.html (2021. 3. 18. 인출)
- 조선일보(2020. 6. 3). "초보 아빠 모여라"...충북 100인의 아빠단 모집.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1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1. 3. 18. 인출)
- 조선일보(2020. 8. 14). 승진 앞뒤편도 눈치 안봐...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1. 3. 18. 인출)
- 파이낸스뉴스(2020. 12. 29). 아이들 위한 지식공간... 예스키즈존 레스토랑도
[fn뉴트렌드리딩].
<https://www.fnnews.com/news/202012291719074147> (2021. 3. 18. 인출)
- 한겨레(2017. 11. 24). 인권위 “‘노키즈 존’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 행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562.html
(2021. 6. 6. 인출)
- 한겨레(2017. 8. 25.). 엄마들의 ‘비밀 언덕’ 공동체 육아·취미·소통 맞춤형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279.html
(2021. 3. 18. 인출)
- 한겨레(2019. 5. 18.). 아빠가 아이랑 출근, 아이 아프면 조퇴...세종에 ‘라떼파파’
가 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403.html
(2021. 3. 18. 인출)
- 한겨레(2019. 5. 31). 초보 아빠들 육아 비법 배우는 ‘아빠단’ 사업 신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156.html
(2021. 3. 18. 인출)
- 한겨레(2020. 1. 9). 육아휴직 3040 아빠들 “회사보다 힘들지만 행복감 맛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870.html
(2021. 3. 18. 인출)
- 한겨레(2020. 5. 19). 미션! ‘아빠랑 아이랑’...천안 ‘좋은아빠단’ 모집.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45546.html>
(2021. 3. 18. 인출)
- 한국일보(2019. 10. 19). [단독] 공직사회서 아빠 육아휴직 바람 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61750055512>
(2021. 3. 18. 인출)
- 한국일보(2019. 5. 17). [여론 속의 여론] 아빠 육아 어디까지 왔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81623312314>
(2021. 3. 18. 인출)
- 한국일보(2020. 6. 25). 김천시, 남성육아 사진 공모전 대상에 ‘아빠는 슈퍼맨을 꿈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50945000027?did=NA> (2021. 3. 18. 인출)
- 헤럴드경제(2017. 3. 27.). [일·가정 양립]"일가정 양립 정책 적극 시행하면 출산율 회복 가능" <https://news.v.daum.net/v/20170327143322442>
(2021. 6. 20. 인출)
- CBC뉴스(2020. 12. 1) “어린이 손님 싫다” 노키즈존 불편한 진실 ... “오죽하면” vs “혐오표현”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109>
(2021. 6. 6. 인출)
- CNA(2018. 10. 14). 'It's like I'm part of life again': The magic when seniors and kids do daycare together.
<https://www.channelnewsasia.com/cnainsider/elderly-childcare-salzgitter-mother-centre-multigenerational-790886> (2021. 10.

20. 인출)

KBS(2017. 3. 29). 육아 대디? 프렌디?...아빠들이 달라졌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3453767> (2021. 6. 6. 인출)

MBC(2021. 5. 21). [집중취재M] "아이 동반도, 출산 휴가도 불가"...다른 나라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7052_34936.html (2021. 6. 6. 인출)

SBS(2019. 11. 27). '겨울왕국2' 뜻밖의 논란..."노키즈 관 찬성" vs "아동 혐오 그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0797&plink=ORI&cooper=NAVER (2021. 6. 6. 인출)

The PR News(2017. 3. 9). 가족의 단절, 독일은 어떻게 잇고 있나.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2>
(2021. 6. 6. 인출)

Rolling Stone(2021. 3. 11). 'A Truly Transformative Moment': Biden's Stimulus Is a Seismic Shift in the Federal Approach to Child Poverty.

<https://www.msn.com/en-us/news/opinion/a-truly-transformative-moment-biden-s-stimulus-is-a-seismic-shift-in%EA%A0%93the-federal-approach-to-child-poverty/ar-BB1euLyd?ocid=msedgntp>
(2021. 10. 20. 인출)

YTN(2019. 5. 5). "어린이는 거부"...'노키즈 존' 갑론을박.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51031569785 (2021. 6. 6. 인출)

【참고 사이트】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familynet.or.kr/web/lay1/S1T431C432/contents.do>

<https://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

<https://familynet.or.kr/web/lay1/S1T296C297/contents.do>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2021. 7. 23 인출함).

고용노동부(202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jsessionid=eKbbxaIwebyueXCEe5OhvO9FWCL1a84zaQHkeeJgLTgvLElGJWGjr6TDNQm9hURM.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10200878 (2021. 6. 6. 인출)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보육진흥원_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4860/fileData.do> (2021.10.23. 인출함).

구글트렌드 대한민국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네이버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100인의 아빠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80420&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6061&cid=40942&categoryId=34126> (2021.7.5. 인출)

두산백과. 지역사회 정의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7924 (2021.7.5. 인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seoulchildcare.mnz.co.kr/7748> (2021. 6. 6. 인출)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 (2021.5.30. 인출, 2021.10.10 인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youngua.seocho.go.kr/yua/> (2021.5.30.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1&L_MENU_CD=020201&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1.5.30. 인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jeonju.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435C436/A/>

18/view.do?article_seq=60006&cpage=1&rows=10&condition=&keyword= (2021. 6. 6. 인출)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jccic.or.kr/2018/sub37.php>
(2021.5.30.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600221.jsp (2021.5.30. 인출)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Child Care Funding Released in American Rescue Plan.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1/child-care-funding-released-american-rescue-plan> (2021. 7. 2. 인출)

Baluba apen musikbarnehage

<https://www.balubabarn.com/>,
<https://www.facebook.com/balubaapenmusikbarnehage/photos/2527534544212454> (2021. 7. 2. 인출)

BIGKinds <https://www.bigkinds.or.kr/>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Family Support Policy and Program Approache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upporting/support-services/policy/> (2021.7.21. 인출)

Expatica. Moving to Germany with kids: the challenges and benefits.

<https://www.expatica.com/de/living/family/growing-up-german-raising-kids-as-an-expat-in-germany-100897/> (2021. 7. 3. 인출)

Generations United. (n.d.). Who We Are, Generations United improves the lives of children, youth, and older adults. Retrieved June 20, from <https://www.gu.org/who-we-are/>

Ikumen Project

<https://ikumen-project.mhlw.go.jp/project/design/>
<https://ikumen-project.mhlw.go.jp/project/about/> (2021. 7. 5. 인출)

- Kløverveien Barnepark
<https://kloverveienbarnepark.no/om-oss/>
<https://kloverveienbarnepark.no/apningstider/> (2021. 7. 2. 인출)
- NAV. (n.d.). Lov om folketrygd (folketrygdloven) Kapittel 14. Ytelser ved svangerskap, fødsel og adopsjon.
<https://lovdata.no/nav/folketrygdloven/kap14> (2021. 7. 2. 인출)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Social Security in Japan 2014.
<http://www.ipss.go.jp/s-info/e/ssj2014/007.html> (2021. 7. 2. 인출)
- Osaka Family Support Center. 大阪市ファミリー・サポート・センター事業とは?
https://www.osaka-kosodate.net/k_fsc/ (2021. 7. 2. 인출)
- OECD. (n.d.). Employment :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 sex.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7> (2021. 7. 2. 인출)
- Relocation. Childcare/Preschools.
<https://relocation.no/expat-communities/national-information/childcarepreschools-2/> (2021. 7. 2. 인출)
- Save the Children. The Urban Disadvantage: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5.
<https://www.refworld.org/docid/55881f574.html> (2021. 7. 2. 인출)
- Setagaya City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02/001/d00134306.html> (2021. 7. 2. 인출)
- St. Ann's Center
<https://stanncenter.org/children/four-year-olds/>
<https://stanncenter.org/about/history/>
<https://stanncenter.org/about/>
<https://stanncenter.org/children/> (2021.7.1. 인출)
- 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Leave.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employer/the-a-melding/the-a-melding-guide/employment/information-on-on-employment/leave/> (2021. 7. 2. 인출)

- The World Bank. (n.d.).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ermany. Retrieved January 10, 2022,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DE> (2021. 12. 2. 인출)
- UN, East-West Center. (2015. 11. 2-3). Government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Japan.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Policy Brief No. 11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events/pdf/expert/24/Policy_Briefs/PB_Japan.pdf (2021. 7. 2. 인출)
- World Economic Forum. (2021).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21> (2021. 7. 2. 인출)



Abstract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wards a Culture that Respects Parenting and Raising Positive Awareness on Parenting Culture(III)

: Creating a Culture of Respect for Childcare at Home and in Local Communities

MeKyung Kwon, Ji Hyun Kim, Youngmin Kim

This study, which started from recognition that there is a largely negative view of childcare, is a three-year collaborative work designed to pave the way for a paradigm shift that would lead to a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i.e. a view that parenting is a joyful activity, parenting responsibilities are more equally shared between father and mother, and the culture is supportive of work-life balance and childca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parenting culture at home and in local communities, and suggest soci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address challenges; it aims to foster a positive parenting culture in the workplace where parents' childcare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are respected.

A collaboration among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BS Broadcasting Group,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us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As part of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trends in parenting culture, and the system of delivery of childcare support in local communities. A case study analysis is made of what has worked

at home and abroad in terms of local community childcare support and ways to foster a culture that honors childcar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of 48 parents and 1,228 parents of infants, toddlers and low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questioned on their perception of childcare, factors affecting it, and how changes can be made to foster a culture that is conducive to childcare. In view of fostering a culture that honors parenting, a debate of Parenting Culture Creators was organized, and a 13-hour long program titled 'Every child is everybody's child' was aired on SBS 'Hope TV' on November 19 and 20, 2021.

Parents have shown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 and 'the work they do to care for the child. Challenges and impediments to childcare at home differed by age group, with those in their 20s and 30s stating there was not enough time for childcare, while those in their 40s and 50s pointed to a difference between the father and the mother, or among family members, in how they approach and deal with childcare (philosophy and attitude). In parents' views, what constitutes a good local community environment is a playground or park where children can play and available childcare/educational facilities. Survey respondents were of the view that parents and their families be the ones driving a change in parenting culture.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key to fostering a positive change in parenting culture at home is for parents to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parenting culture at home, we suggest continuously promoting and spreading positive childcare culture by promoting a culture that honors childcare throug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the media, and operating 'Parenting Culture Creator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 enable equitable family engagement in childcare, we need to seek more childcare capacity-building opportunities available for fathers and operate 'fathers' playground'. In addition, making programs that support

life-work balance more readily available,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building childcare capacity, making various information available, increasing parent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reating online/offline venues for the exchange of childc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n be considered.

For improving the childcare culture in local communities and access to childcare support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finding better ways to promote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expanding and reinforcing system to deliver government childcare support services are in need. To create local environments that are conducive to childcare (parks, playgrounds, and libraries) the communities can ‘Diagnose KICCE childcare-friendly village’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within their communities. To tailor childcare support services to the specific needs of rural communities, we can consider expanding medical service support and operating early childhood cultural centers unique to rural areas. On top of that, support in the creation of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needs to be made. In detail, we can consider providing common space (‘Yugajeong’) for parents and children, and find ways to create healthy online communities. Lastly, we suggest building childcare support networks within communities by creating a network of childcare support around local businesses

Overall, to create a culture that honors childcare and positive parenting culture, the promotion of childcare-friendliness in the parental environment is required by ensuring childcare support programs benefit those who need them the most and sustaining efforts to improve and promote childcare culture.

Keyword: Parenting culture, Home and local communities childcare culture

부록 1. 설문조사지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양육문화 조성방안(Ⅲ)」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선문1.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선문2.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선문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 명

선문2-2. 자녀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영아(0세~만2세)
2. 유아(만3세~만5세)
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학년~3학년)
4.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선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성 2. 남성

선문4.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선문5-1. 귀하의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전일제 취업 2. 시간제 취업 3. 미취업

선문5-2.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전일제 취업 2. 시간제 취업 3. 미취업 4. 배우자 없음



1.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문1.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문2.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1.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2.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3.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동의하 지않음	별로 동의하 지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2.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4. 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이 있다.					
5. 여자는 양육과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한다.					

※ 다음은 가정 내 육아문화와 관련한 귀하의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4. 주중 동안의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을 100%로 하고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비율
1. 본인	()%
2. 배우자	()%
3. 총합	()%

문5. 주말 동안의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을 100%로 하고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비율
1. 본인	()%
2. 배우자	()%
3. 총합	()%

문6. 부부 간 양육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7. 자녀의 양육과정의 각 영역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응답해 주세요. 본인이 아버지일 경우, 본인의 참여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참여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1	2	3	4	5
1. 기본생활돌봄 (먹이기, 입히기, 씻기기)					
2.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 (식사준비, 빨래, 청소)					
3. 자녀와의 놀이 (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					
4. 자녀의 훈육 (생활지도)					
5. 자녀의 학습지원					
6. 자녀의 등하원					

문8. 다음은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일 경우, 본인의 참여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라면, 자녀가 3세까지 육아에 참여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2. 나는/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 나는/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4. 나는/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문9. 귀하의 가정 또는 부부에게 다음 각 항목이 어떠한지 응답해주시시오.

우리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우리 집은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3.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4.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 우리 부부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6.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7.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조부모, 외조부모, 친척 등).					
8. 힘들 때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9.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10. 때로는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11.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10. 현재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1. 부부 간 혹은 가족 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갈등을 겪으십니까?

1.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하루 한번 이상)
2.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주당 3~5회)
3.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월 4회 이내)
4.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월 1회 이내)

문12. 부부 간 혹은 가족 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점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까?

1. 부부간 양육 분담 관련 2. 가족 간 양육 지원 관련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의 양육지원)
3. 양육 비용 관련 4. 자녀 훈육(생활지도) 관련
5. 자녀 교육(사교육 포함) 관련

문13. 긍정적 육아문화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귀 닥의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1.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2.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3.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4.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5.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문14. 다음은 ‘아동’과 ‘육아’에 관련된 우리사회의 일부 의견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각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요.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1. 돌이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2. 아이의 입장을 환영하는 ‘Yes kids Zone’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4.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II.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문15.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2.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3. 우리 동네는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놀이터의 소음이나 층간 소음 등)					
4.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동네에는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					
7. 우리 동네에는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8.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나눔터 등)이 있다.					
9. 우리 동네에는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문16. 살고 계신 동네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다음의 상황들을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는 자녀와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어린 자녀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 는 등의 배려					
2.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					
3.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 (의자, 놀잇감, 간식 제공 등)					
4.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					
5.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					
6.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 불편한 시선이 나 주의					
7.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소음)로 인한 갈등					
8. 가정에서 아이들 소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충간소음 등)					

문17.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의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17-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사회(동네)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주시시오.

1.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웃의 배려가 느껴져서
2.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
3.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4.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
5.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6.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7.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친절해서

문17-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사회(동네)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주시시오.

1.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느껴져서
2.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3.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하여서
4.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 이 좋지 않아서
5. 범죄발생률이 높거나 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6.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
7.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문18.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교육/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 항 내 용	있다	없다
	1	2
1.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		
2. 자녀의 훈육 및 교육에 대한 교육		
3. 아버지 교육		
4. 아동학대 예방 교육		
5. 아동 안전 교육		
6. 육아 관련 품앗이(돌봄이나 교육) 활동		
7. 육아 관련 온라인 활동(지역맘 카페 활동 등)		
8. 육아 관련 용품 나눔 활동		
9. 육아 관련 상담(예시:언어발달, 자녀와의 관계 등)		

문19. 가정에서의 육아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용 경험이 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그 만족도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1) 필요도		(2) 이용경험		(3) 만족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1	2	1	2	3	4	5
육아종합지원	1) 장난감 도서관									
	2) 도서 대여									
	3) 부모교육									
	4) 시간제 보육									
	5) 체험 활동 및 참여									

센터	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6) 가족교육									
	7) 가족·부모·자녀 상담									
	8) 공동육아나눔터									
	9)찾아가는 아버지교실									
	10) 아이돌봄서비스									

※장난감 도서관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

※도서 대여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도서를 무료로 대여

※부모교육 : 영유아 자녀 및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양육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

※시간제 보육 :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 아이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가족 대상 행사

※가족교육 : 가족 내의 문제 예방 및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상담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비롯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남성대상 육아교육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문20. 다음은 여러 지자체에서 특화시켜서 제공하고 있는 육아 지원 서비스입니다.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에 향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2. 우리동네 보육반장
3. 가사도우미 서비스 4. 건강아기사업
5. 조부모 육아 교육 6. 아버지교육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듯이 등하원, 숙제나 과제물 챙겨주기, 간식 먹이기, 잠재우기 등 최소 1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동네 보육반장: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보육반장이 육아지원 수집 및 관리,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부모 모임 지원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육아기 가정을 위한 가사도우미 연결 서비스

※건강아기사업: 임신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

※조부모 육아 교육: 영유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 및 교육 제공

※아버지교육: 아버지의 육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육아정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육아상담과 전문 교육 지원



Ⅲ.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문21. 귀하는 최근 10년간을 돌아보면 우리사회에서 육아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3. 변화가 없는 것 같다
4.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5.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문21=1,2 응답자

문21-1. 육아문화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택해주시시오.

1. 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2. 육아하는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느껴져서
3. 부부간 평등한 양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4. 육아지원 인프라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5. 육아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서
6. 육아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못해서
7. 기타()

문21=4,5 응답자

문21-2.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택해주시시오.

1.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2.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조되어서
3. 부부간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4. 이웃들의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좋아져서
5.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증가하여서
6. 육아지원제도들이 많아져서
7. 육아지원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져서
8.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증가해서

문22. 육아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 2. 이웃과 지역사회
3. 직장과 기업 4. 정부(중앙정부와 지자체) 5. 언론 매체

문23. 귀하는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해주시시오.

1. 가족 내 공평한 양육참여 실현
2.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4.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
5. 부모교육 기회 확대

문24. 귀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해주시시오.

1.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2.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노키즈존 지양)
3.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4. 동네에서 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거나 놀이활동을 같이 하거나 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기회 제공(예시: 동네 세미나, 동네 육아 나눔터 등)
5.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6. 지역사회 내에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구축

문25. 귀하는 다음의 내용 중 우리사회가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2.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3.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4.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5.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6.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부모, 예비부모 등)들 의견수렴
7.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8.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비용 지원을 확대

문26.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1. 귀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귀하는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부모로서 배우자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귀하는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 귀하는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배문1. 귀택의 작년 1년간(2020.1.1.~2020.12.31.) 월평균 소득(근로/사업/기타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 | |
|----------------------|---------------------|
| 1. 200만원 미만 | 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4.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 5.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6. 600만원 ~ 700만원 미만 |
| 7. 700만원 ~ 800만원 미만 | 8. 800만원 ~ 900만원 미만 |
| 9.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 10. 1,000만원 이상 |

배문2. 귀하께서 평소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SNS는 무엇입니까?

1. 블로그 2. 카페 3. 카카오톡 4. 인스타그램 5. 페이스북
6. 네이버밴드 7. 기타()

배문3.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채널은 무엇입니까?

1. 다음(Daum) 2. 네이버(Naver) 3. 구글(Google)
4. 유튜브(Youtube) 5. 기타()

부록 2. 심층면담 조사지

I.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Q1, Q2)

1. 여러분의 일상(평범한 하루 일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공휴일, 주말)을 나누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을 보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 1.1.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어려움과 함께 즐겁고 사랑스러운 순간도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것 하나, 부정적인 것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둘 중 어느 쪽을 먼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은 어떠하고, 그렇게 분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1.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주(main)로 담당하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주로 담당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담당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2.2. 가정 안에서 육아를 도맡아 하고 계신다면 육아를 하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육아를 도맡아 하고 계신다면, 그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세요.

II. 지역사회에서의 육아경험 (Q3, Q4)

3. 어머니/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국가 또는 우리가 속한 지역(동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있나요? 좋았던 기억이나 별로였던 기억 모두 좋습니다.
4. 어머니/아버지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 '양육에 대해 존중받는다, 혹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노키즈존' '맘충'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육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는 인식은 어떤 것 같나요?

III. 지역사회의 의미 확장: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육문화와 공동체 인식 (Q5, Q6)

5. 어머니/아버지께서 자녀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거나, 소통하는 사람 또는 집단은 누구인가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나요?

5.1. 어머니/아버지/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살아가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가족 외에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공유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경험들이 생각나시는지 이야기해주세요.

5.2. 어떤 부분에 특히 의존을 하시나요? (특별한 서비스)

6.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어머니가 속한 커뮤니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와 공동체를 형성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Ⅳ.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과 기대 (Q7)

7. 처음 임신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고, 어떠한 기대들을 하셨나요? 자녀에게 이런 아빠, 또는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한 것이 있나요?

7.1.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준비를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예를 들어 육아 관련 책을 읽고 공부를 했거나, 보험을 들었거나, 육아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등등)

7.2. 자녀를 임신했을 때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하였나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일들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나요?

Ⅴ.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녀 양육의 의미와 성찰 (Q8)

8. 부모와 자녀의 양방향적 관계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통해 어머니/아버지도 함께 성장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나도 이렇게 크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인가요?

마 무 리 (Q9)

9.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과 사회에 어떠한 지원들이 더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록 3. 초점집단 면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영아기 자녀 부모 면담참여자 정보(16명)

면담자	연령	거주지	혼인기간(년)	자녀수(명)	자녀연령	근로여부	근무형태	종사상지위	근무일수	일평균근무시간	맞벌이여부	자녀이용기관	월평균가구소득	최종학력	경험한지원제도	자녀를 돌보는 방법	돌봄방법만족도
어머니1 A	29	경기 화성	3	1	만0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o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1 B	34	경기 평택	3	1	만1세	x					x	x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1 C	35	경기 안양	4	1	만2세	x					x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1 D	35	경기 구리	5	2	만0세 만2세	x					x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2 A	33	서울	3	1	만1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o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국공립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2 B	32	경기 화성	5	2	만0세 만2세	x					x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국공립 어린이집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 C	33	경기 화성	2	1	만0세	x					x	x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 D	37	경기 화성	4	1	만1세	x					x	x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아버지 A	33	서울	3	1	만1세	o	전일제	종업원이 없는	주중 5일	주중 9시간	o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유연근무제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한다

2) 유아기 자녀 부모 면담참여자 정보(16명)

면담자	연령	거주지	혼인기간(년)	자녀수(명)	자녀연령	근로여부	근무형태	종사상지위	근무일수	일평균근무시간	맞벌이여부	자녀이용기관	월평균가구소득	최종학력	경험한지원제도	자녀를 돌보는 방법	돌봄방법만족도
어머니1A	39	서울	11	3	만2세 만5세만 8세	x					x	어린이집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1B	33	부산	5	1	만3세	o	반일제(파트타임)	임시직	주중 5일	주중 6시간	o	어린이집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사립 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원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1C	37	부산	5	2	만10세만 3세	x					x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사립 유치원,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1D	39	경기 남양주	6	2	만1세만 3세	x					x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A	37	대구	7	1	만3세	x					x	어린이집	2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2B	40	대전	17	3	만4세	o	반일제(파트타임)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5시간	o	유치원	400~500만원 미만	고등 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사립 유치원,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2C	37	부산	5	2	만3세만 0세	o	전일제	종업원을 둔 고용주	주중 5일	주중 6시간	o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2D	40	부산	7	2	만3세만 6세	x					x	유치원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엄마가 직접 돌봄, 사립 유치원, 초등 방과후 1시간	만족한다
아버지A	42	대구	8	1	만3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4일,	주중 7시간,	x	어린이집	2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면담자	연령	거주 지	혼인 기간 (년)	자녀 수 (명)	자녀 연령	근로 여부	근무 형태	종사상 지위	근무 일수	일평균 근무 시간	맞벌이 여부	자녀 이용 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최종 학력	경험한 지원 제도	자녀를 돌보는 방법	돌봄 방법 만족도
									주말 2일	주말 7시간							
아버지 B	42	대전	17	3	만4세	○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	유치원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 유치원	만족한다
아버지 C	41	부산	5	2	만3세만 0세	○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10시간	○	어린이집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하지 않는다
아버지 D	40	부산	7	2	만3세	○	전일제	종업원없 는 자영업자	주중 5일, 주말1일	주중 15시간 주말15 시간	×	유치원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사립 유치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만족한다
부부 (부) A	40	서울	6	2	만0세만 4세	○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부부 (모) B	40	서울	6	2	만0세만 4세	○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7시간	○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하지 않는다
부부 (부) C	41	서울	8	2	만2세만 4세	○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8시간	○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직장 어린이집	만족한다
부부 (모) D	40	서울	8	2	만2세만 4세	○	반일제(파트타임)	임시직	주중 3일	주중 20시간	○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육아휴직	엄마가 직접 돌봄, 직장 어린이집	만족한다

3) 학령기 자녀 부모 면담참여자 정보(16명)

면담자	연령	거주지	혼인기간(년)	자녀수(명)	자녀연령	근로여부	근무형태	종사상지위	근무일수	일평균근무시간	맞벌이여부	자녀이용기관	월평균가구소득	최종학력	경험한지원제도	자녀를 돌보는 방법	돌봄방법만족도
어머니1A	40	서울	10	1	만7세	x					x	학교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한다
어머니1B	37	서울	11	2	만7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10시간	o	학교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사립 유치원,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1C	42	서울	10	2	만7세	o	전일제	종업원을 둔 고용주	주중 2일	주중 10시간	o	학교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1D	37	서울	9	3	만7세	x					o	학교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 베이비시터, 사립 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2A	37	인천	9	2	만7세 만2세	x					x	학교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원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B	36	충남	10	3	만8세 만5세 만3세	x					x	학교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2C	39	경기 고양	10	2	만7세 만5세	o	전일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주중 4일	주중 6시간	o	학교	700~8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사립 유치원	만족한다
어머니2D	37	경기 남양주	9	2	만7세 만2세	x					x	학교	소득 없음	무응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학원	만족하지 않는다

면담자	연령	거주지	혼인기간(년)	자녀수(명)	자녀연령	근로여부	근무형태	종사상지위	근무일수	일평균근무시간	맞벌이여부	자녀이용기관	월평균가구소득	최종학력	경험한지원제도	자녀를 돌보는 방법	돌봄방법만족도
아버지 A	34	인천	9	1	만6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4일, 주말 2일	주중 9시간, 주말 9시간	o	학교	2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학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만족한다
아버지 B	43	세종	11	2	만6세 만7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4일, 주말가끔	주중 9시간, 주말 5시간	o	학교	800~9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유연근무제	엄마가 직접 돌봄, 학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만족한다
아버지 C	38	경기 용인	10	2	만7세 만5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o	학교	900~10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가족돌봄휴직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조부모, 이모, 고모 등), 국공립 어린이집, 학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만족한다
아버지 D	42	경기 용인	11	2	만7세 만5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o	학교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민간 베이비시터, 사립 유치원, 학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만족한다
부부(부) A	38	청주	9	1	만6세	o	전일제	상용직	주중 5일	주중 9시간	x	학교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육아휴직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한다
부부(모) B	39	청주	9	1	만6세	x					x	학교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빠가 직접 돌봄,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한다
부부(부) C	46	경기 성남	15	2	만8세 만10세	o	전일제	종업원을 둔 고용주	주중 5일, 주말 1일	주중 14시간, 주말 8시간	x	학교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학원	만족한다
부부(모) D	43	경기 성남	15	2	만8세 만10세	x					x	학교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엄마가 직접 돌봄	만족한다

4) 2차 초점집단면담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연령	거주 지	혼인 기간 (년)	자녀 수 (명)	자녀 연령	근로 여부	근무 형태	맞벌이 여부	자녀 이용 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최종 학력	경험해본 지원제도	돌봄 방법	돌봄 방법 만족도
부부(아내) A	34	서울	4			o	전일제	o		700~8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부(남편) B	36	서울	4			o	전일제	o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부(아내) C	35	경기	4			o	전일제	o		800~9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부(남편) D	37	경기	4			o	전일제	o		800~9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어머니1 A	34	전남	6	3	만5세 만3세 만2세	x		x	어린이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직장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1 B	37	전남	4	1	만2세	o	전일제	x 육아휴직중	어린이집	무응답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직장어린이집	만족한다
어머니1 C	36	광주	7	2	만3세, 임신중	o	전일제	o	어린이집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식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	만족한다
어머니1 D	39	광주	9	3	만6세 만6세 만2세	o	전일제	x 육아휴직중	초등학교, 어린이 집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원, 초등돌봄교실	만족한다
아버지 A	36	대전	5	2	만1세 만1세	o	전일제	x	어린이집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 민간 베이비시터, 사립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족한다

연구 참여자	연령	거주 지	혼인 기간 (년)	자녀 수 (명)	자녀 연령	근로 여부	근무 형태	맞벌이 여부	자녀 이용 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최종 학력	경험해본 지원제도	돌봄 방법	돌봄 방법 만족도
아버지 B	35	원주	3	2	만1세 만1세	o	전일제	o	x	400~5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한다
아버지 C	47	경기	17	4	15,13,1 2,6세	x		o	학교, 유치원	500~7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 A	40	경기	9	3	만 8,6,3세	x		x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유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원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2 B	43	경기	16	4	15,13,1 2,6세	o	반일제	x	학교, 유치원	300~4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아빠가 직접 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만족한다
어머니2 C	34	원주	2	2	만6세	o	전일제	o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의 엄마가 직접 돌봄, 친인척이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한다
어머니3 A	35	대전	5	2	만1세	x		x	어린이집	1000만원 이상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민간 베이비시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만족하지 않는다
어머니3 B	36	제주	9	1	만6세	x		x	유치원	200~300만원 미만	대학교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의 아빠가 직접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돌봄, 국공립 유치원, 학원	만족한다
어머니3 C	39	울산	13	1	만11세	x		x	학교	500~700만원	대학교 졸업	모두 이용 안함	아이의 아빠가 직접돌봄, 아이의 엄마가 직접돌봄, 친인척이 돌봄, 학원, 초등돌봄교실	만족한다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